

옥척경(玉尺經)

원(元) 유병충(劉秉忠) 저(著)

명(明) 유 기(劉 基) 주(註)

야학(野鶴) 민중원(閔中園) 역(譯)

(연 구 용)

전국풍수지리학회

옥척경(玉尺經) 상집(上集)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이기(理氣)의 묘(妙)는 이기(二氣) 오행(五行)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수자(數字)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전도전(顛倒顛)하여 식과(識破)하면 곧 이는 대라선(大羅仙)이라는 것이다. 이 경(經)의 편(篇)중에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전전도도(顛顛倒倒)하여 국(局)에 따라 취용(取用)한다 하였다. 양(楊) 요(寥) 전인(前人)이 발(發)하지 못한 뜻을 발명(發明)하였다. 학자(學者)가 이기(理氣)의 묘(妙)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 경(經)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고씨(顧氏)의 구집(舊集)에 실록(失錄)된 것을 내가 이제 그것을 보(補)한다.

심세편(審勢篇) 제일(第一)

[천(天)은 성수(星宿)를 분(分)하고 지(地)는 산천(山川)을 열(列)한다. 우두(牛斗)의 허(墟)를 양관(仰觀)하면 중성(衆星)이 공운(拱運)함을 본다. 강부(岡阜)의 내(來)를 부찰(俯察)하면 바로 평원(平原)의 기적(起跡)을 식(識)한다.]

오행(五行)의 기(氣)는 하늘에서 상(象)을 이루어 일월성신(日月星辰)이 나타난다. 자미(紫微) 북극(北極)은 해자(亥子)의 가운데에서 일어난다. 천시(天市) 동원(東垣)은 인묘(寅卯)의 구역에서 일어난다. 소미(少微) 서액(西掖)은 곤태(坤兌) 사이에 있다. 태미(太微) 남극(南極)은 손사병(巽巳丙)의 수중(首

中)에 있다. 일성(一星)이 있어 속에 존거(尊居)하면 이십팔수(二十八宿)가 밖에서 환요(環遶)한다. 그러므로 우두(牛斗)의 자리 왼쪽은 제성(帝星)이 거쳐하는 곳이 된다. 그 나열된 별 자라는 두병(斗柄)이 가리키는 곳을 따르고 받들어 향하여 하늘에 붙어 행(行)한다. 이것이 천경(天經)이 된다. 오행(五行)의 기(氣)가 땅에 있으면 형(形)을 이룬다. 솟으면 산강(山岡) 농부(隴阜)가 되고 흩어지면 평원(平原) 도읍(都隰)이 된다. 흐르면 강회하한(江淮河漢)이 된다. 그러므로 산천(山川)의 흐르고 솟음은 그 기(氣)의 응결되고 펼침이 아닌 게 없다. 그러나 평원(平原) 광야(曠野)는 모두 강릉(岡壟)에 뿌리를 두고 사유(四維)에 분포(分布)하여 형(形)을 이룬다. 그러므로 강부(岡阜)의 온 곳을 살피면 평원(平原)의 발적(發跡)을 안다.

[만산(萬山)은 일관(一貫)하여 곤륜(崑崙)으로부터 기(起)한다.]

산룡(山龍)이 흩어져 땅에 나타나면 비록 천만(千萬)으로 많이 있으나 그 용맥(龍脉)이 온 것은 모두 곤륜(崑崙)에서 나온다. 다른 기록 및 지지도(地志圖)를 찾아보면 곤륜산(崑崙山)은 높이가 일만팔천구백사십칠리(一萬八千九百四十七里)이다. 중봉(中峯)은 하늘과 같고 중국(中國)에서 헤아리면 곤륜(崑崙)은 서북(西北) 건태(乾兌)사이에 있다. 이는 천하(天下) 산천(山川)의 조(祖)이며 오악(五嶽)이 중국에 들어간다. 또 못 산천(山川)의 대중(大宗)이다.

[강(講)이 출(出)한 고종(孤宗)은 팔극(八極)으로 분행(分行)한다.]

곤륜산(崑崙山)은 위는 모나고 아래는 둥글다. 주위(周圍)는 이만이천칠백리(二萬二千七百里) 구십삼보(九十三步)다. 강(講)은 사면(四面)으로 나뉜다. 동북(東北)으로 나온 각(角)은 간(艮)에 거(居)하고 동남(東南)으로 나온 각(角)은 손(巽)에 거(居)하며 서남(西南)으로 나온 각(角)은 곤(坤)에 거(居)하고 서북(西北)으로 나온 각(角)은 건(乾)에 거(居)하니 이는 사세(四勢)가 된다. 산정(山頂)까지는 육천칠백구리(六千七百九里) 십삼보(十三步)다. 옆으로는 가지가 사정(四正)으로 나뉜다. 동쪽 가지는 진(震)에 거(居)하고 남쪽 가지는 이(離)에 거(居)하며 서쪽 가지는 태(兌)에 거(居)하고 북쪽 가지는 감(坎)에 거(居)한다. 위로 팔괘(八卦)를 보고 아래로 팔분(八分)을 본다. 건곤간손(乾坤艮巽)은 오룡(五龍) 생기(生氣)의 문(門)을 열고 감이진태(坎離震兌)는 오기(五氣) 관왕(官旺)의 맥(脉)을 발(發)한다. 이것을 팔극(八極)이라 한다. 팔극(八極)은 또 만산(萬山)의 대중(大宗)이다.

[건곤감이(乾坤坎離)와 태(兌)는 절역(絶域)에 귀(歸)하고 서쪽으로 한해(瀚海)에 통한다. 간진(艮震)과 손(巽)의 삼조(三條)는 중국(中國)으로 들어가서 오악(五嶽)으로 나뉘어 거(居)한다.]

건곤감이태(乾坤坎離兌)의 오조(五條)는 나뉘어 서북(西北)과 정남(正南)으로 귀(歸)하여 오랑캐 야만 인종의 땅으로 들어간다. 용맥(龍脉)의 출권(出勸)이 모두 상고할 수 없다. 오직 간진(艮震)과 손(巽)의 삼조(三條)만 홀로 중국(中國)에 들어가서 오방(五方)에 나뉘어 거(居)하여 오악(五嶽)의 산이 되고 또 중국 산천(山川)의 대중(大宗)이 되어 세(勢)를 나누어

시생(施生)한다. 동남(東南) 손사(巽巳) 행룡(行龍)은 출신(出身)하여 십일만구천육백오십리(十一萬九千六百五十里)를 행(行)하여 입해(入海)하고 제왕(帝王)의 도(都)를 맺어 삼기(三起)한다. 교룡(蛟龍)의 지(地)는 일백사십칠수(一百四十七水)이고 혈(穴)은 삼십육(三十六)이다. 그 사이에 충정(忠貞)을 산출하고 영재(英才)를 기르며 성군(聖君) 현상(賢相)을 산출한 것이 칠백이십혈(七百二十穴)이다. 취정(聚精) 발수(拔秀)하여 경사대부(卿士大夫)의 땅이 되니 그 수(數)를 셀 수 없다. 인간(寅艮) 행룡(行龍)은 출신(出身)하여 팔만사천일백리(八萬四千一百里)에 입해(入海)하고 제왕(帝王)의 도(都)를 맺어 일기(一起)하며 교룡(蛟龍)의 지(地)가 칠십이(七十二) 곳이다. 큰 혈(穴)이 일십팔(一十八) 곳인데 대성인(大聖人)을 산출한 자리가 다섯 곳이고 현인(賢人) 양상(良相)을 산출한 곳이 오백칠혈(五百七穴)이며 경대부(卿大父)의 자리는 그 수(數)를 헤아릴 수 없다. 갑묘(甲卯) 행룡(行龍)은 출신(出身)하여 팔만일천오백육십리(八萬一千五百六十里)를 행(行)하여 이(伊) 낙(洛) 전(漣) 간(澗)이 만나는 곳에 멈추고 제왕(帝王)의 도(都)를 맺어 삼기(三起)한다. 교룡(蛟龍)의 혈(穴)이 이십사(二十四)이고 성군(聖君) 현상(賢相) 후백(侯伯)을 산출하니 오백오혈(五百五穴)이다. 그 사이에 기(氣)를 모으고 수기(秀氣)를 발(發)하여 경사(卿士) 대부(大夫) 현사(賢士)의 유형이 된다. 그 간손(艮巽)의 혈(穴)이 지극히 많다.

[그러므로 황하(黃河)가 경계한 서북(西北)은 축간(丑艮) 행룡(行龍)이다.]

황하(黃河)의 갈래가 곤륜(崑崙)으로부터 간인(艮寅)의 좌

(左)와 갑묘(甲卯)의 우(右)를 경계하여 간축(艮丑)의 동북(東北)으로 향하고 갑묘(甲卯)의 정동(正東)으로 한정하여 동쪽을 향하여 곡절(曲折)하고 중국(中國)으로 흘러들어 하투(河套)의 모(牡)에 이르며 협(峽)의 좌(左)와 산서등로(山西等路)의 우비(右臂)로 나아가 변(汧)의 동남(東南)에 이른다. 좌(左)로 서주(徐州)의 동북(東北)을 돌아 입해(入海)한다. 그러므로 하(河)의 서북(西北)은 축간(丑艮) 행룡(行龍)이니 실로 곤신(坤申)의 기(氣)가 된다. 그러므로 연(燕) 기(冀)에서 청(靑) 연(兗)의 땅에 이르러 대부분 곤신(坤申) 결혈(結穴)이 많다. 오른쪽으로부터 돌아서 감국(坎局)이 되고 왼쪽으로 돌아보아서 태국(兌局)이 되며 손(巽)을 향하여 해룡(亥龍)이 되고 이 손간진(離巽艮震)의 혈(穴)은 없다. 대개 수(水)가 동북(東北)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뇌경선(賴敬仙)이 이르기를 곤륜(崑崙)산이 축간(丑艮)으로 낙맥(落脉)하여 곤신(坤申)의 기(氣) 입수(入首)가 된다. 수(水)는 대부분 동류(東流)하고 연기운삭(燕冀雲朔)의 땅은 곤기(坤氣)가 된다. 요락(腰落)한 청서(靑徐)의 땅은 곤기(坤氣)의 진룡(盡龍)이 되고 황하(黃河)가 경계하며 곧고 거친 갈래다. 개주(開州) 이남은 그 좌비(左臂)이고 요동(遼東)은 그 우비(右臂)의 진기(盡氣)다. 그 맥(脉)은 직수(直遂)하고 곡절(曲折)이 없다. 하북(河北)의 기(氣)는 흩어져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민(民)이 대부분 직로(直魯)하고 성격이 강(剛)하며 풍기(風氣)가 강경(強勁)하고 조금 알사(訐詐)하다. 민(民)이 가업(家業)을 연(戀)하지 않아 부(富)가 불구(不久)하고 관(官)은 삼대(三代)가 없다. 그러나 청천(淸泉)이 솟아 혈기(穴氣)가 상승(上升)하여 성현(聖賢)을 산출하여 문장(文章)의 조(祖)가 된다. 영재(英才)를 육성하여 일시(一時)의 성(盛)함이

된다. 여자(女子)는 미모(美貌)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모두 기(氣)의 응(應)함이다.

[장강(長江)에 막혀서 동남(東南)은 손진(巽辰)에 조(祖)를 기(起)한다.]

곤륜(崑崙) 동남(東南)의 호각(狐角)이 가지를 나누어 강고(康姑)로부터 구만팔천칠백오십리(九萬八千七百五十里)에 나가 서쪽 오랑캐 천축(天竺) 서반(西番) 남쪽을 경계 지어 목국산(木國山)이라는 산의 북쪽으로 일만이천리(一萬二千里)에 과서(巴西)의 엄봉산(嚴鵬山)을 통(通)하여 세 갈래로 분지(分枝)한다. 우고(右股)는 섬(陝)의 남쪽으로 나가 옹(雍)의 우위(右衛)가 된다. 중고(中股)는 빙기(憑旂)를 지나 갈래를 발출하여 형양(荊襄)의 좌위(左衛)가 되고 기산(祁山)을 건너 남악(南嶽) 형산(衡山)을 일으켜 이궁(離宮)의 화성(火星) 빙기(憑旂)가 된다. 우고(右股)는 성도(成都)의 좌위(左衛)를 만들고 엄봉(嚴鵬)에 멈춘다. 남고(南股)는 옹사(雍思)를 지나 동촉(東蜀)의 남쪽에 들어가 성도(成都)의 우위(右衛)가 된다. 동북(東北)을 지나 평화정(平華頂)을 일으키고 이고(二股)를 나눈다. 우고(右股)는 운남(雲南)의 우위(右衛)가 되고 좌고(左股)는 사천(四川)의 동북(東北)을 지나 운남(雲南)의 좌위(左衛)를 만든다. 뇌마산(雷磨山)을 지나 이지(二枝)를 일으키는데 일지(一枝)는 진주(辰州) 이남으로 나가서 귀주(貴州)의 서북호(西北護)가 되고 일지(一枝)는 나가서 위주(爲州)의 동북(東北)이 되며 서남(西南)으로 일지(一枝)를 나누어 광둥(廣東)에 들어가 남해(南海)를 향한다. 일지(一枝)가 광서(廣西)에 들어가 진주(辰州)의 북쪽 경계와 더불어 합하여 행(行)하

여 동매봉(東梅峯)을 지나 광둥(廣東)의 북호(北護)가 되니 복(福)의 남조산(南條山)이다. 매봉(梅峯) 서각(西角)이 분지(分枝)하여 예장(豫章)에 들어 약남진(弱南盡)이 되고 구강(九江)에서 강을 건너 황주(黃州)를 지나 호광(湖廣)의 하류(下流)를 만들어 하남(河南)의 동북(東北) 장(障)이 된다. 매봉(梅峯)의 북각(北角)이 건(建)에 든 것은 잠양산(潛陽山)을 지나 기초(起祖)하여 건(建)의 서남(西南) 장(障)이 되고 연산(鉛山)을 거쳐 좌비(左臂)는 건(建)의 북(北) 장(障)이 되니 곧 절(浙)의 남위(南衛)다. 건녕(建寧)으로부터 장강(漳江)의 남쪽으로 나가서 입해(入海)한다. 우비(右臂)는 나뉘어 여러 고을의 연산(鉛山)을 뗏고 좌비(左臂) 이조(二條)인데 일조(一條)는 복건(福建)으로 들어가고 일조(一條)는 절동(浙東)으로 들어간다. 처주(處州)를 거쳐 이조(二條)로 나뉘는데 일조(一條)는 온(溫)에서 입해(入海)하고 일조(一條)는 합(合)으로부터 사명(四明)에 이르러 입해(入海)한다. 그 연산(鉛山)의 좌고(左股) 일조(一條)는 유왕산(踰王山)의 요화봉(蓼花峰)이 기정(起頂)하여 삼조(三條)로 나간다. 일조(一條)는 요신(饒信)으로 나가고 일조(一條)는 남강(南康) 저택(渚澤) 파양(鄱陽)으로 나가고 일조(一條)는 절문(折門)으로부터 들어와 절강(浙江) 임안(臨安)의 서쪽에 이르러 높이 일어난다. 갑묘(甲卯)로부터 행룡(行龍)하여 태기(兌氣) 입수(入首)가 되고 고향(古杭)에 이르러 좌우로 회포(回抱)하고 합기(合氣)하여 결혈(結穴)하니 전당(錢塘)이 된다. 그 좌고(左股)는 고정(阜亭)을 거쳐 해염(海鹽)에 이르러 입해(入海)하여 그친다. 그 축간(丑艮) 일조(一條)는 임국(臨國) 서쪽 경계에 이르러 분파(分派)하는데 일지(一枝)는 태평(太平)으로 나가 양자강(洋子江)을 건너 함산(含山)을 지나 육합(六合)을 경유하여 태흥(太興)에서 입해(入

海)한다. 일지(一枝)는 건평(建平) 서쪽 경계로 나가 분파(分派)하여 건강(建康)의 동쪽 경계로 들어가 구용(句容)을 거쳐 표산(表山)이 된다. 이지(二枝)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거슬러 돌아서 건강(建康)의 북(北)이 된다. 남쪽의 일지(一枝)는 서쪽으로부터 동쪽을 지나 민주(閩州)에 이르러 정강(靖江)으로 나가 입강(入江)하고 십일만구천육백오십리(十一萬九千六百五十里)를 지나와서 입해(入海)한다. 그 중에 분지(分枝)한 다른 갈래는 멈추지 않고 수백(數百)을 역행(逆行) 순행(順行)하여 각기 향하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그 민산(岷山)은 동쪽의 구산(垢山)과 서쪽의 땅은 이룡(離龍)이 많다. 운남(雲南)의 수(水)는 북쪽으로부터 남쪽 땅까지 감간건룡(坎艮乾龍)으로 이름한다. 귀주(貴州) 북쪽 경계의 땅은 진손(震巽)이 많고 광둥(廣東)의 경계 땅은 곤간태건(坤艮兌乾)이 많다. 광(廣)으로부터 서쪽은 손진간감(巽震艮坎)으로 기(氣)를 받는다. 예장(豫章)은 동쪽으로 손진(巽震)이 만나고 북쪽 경계는 감간(坎艮)이다. 그 귀민복(貴閩福)의 남쪽은 곤신(坤申)이 기(氣)를 얻고 북쪽 가지는 태해감(兌亥坎)이 태(胎)를 이루어 곤태(坤兌)가 만나게 된다. 건강(建康)은 남쪽 이(離)의 기(氣)를 얻는다. 대개 장강(長江)의 수(水)가 동북(東北)을 향하기 때문이다.

뇌경선(賴敬仙)이 이르기를 곤륜(崑崙)이 동남(東南)으로 출맥(出脉)한 것은 건해(乾亥) 행룡(行龍)이 되고 또 손궁(巽宮)의 기(氣)가 따듯하고 풍화(風和)하여 해목(亥木)이 그것을 얻으면 생의(生意)하여 가지가 성장하고 지엽(枝葉)이 무성하다. 그러므로 남쪽 가지로부터 바람을 향한 것은 기(氣)가 더욱 화(和)하고 조수(鳥獸)가 산만(散漫)하다. 혁민(革民)을 바라면 옛 남방인(南方人)을 분석한다. 용(龍)이 모이지 않으니 교화

(敎化)에 불복(不服)한다. 그러나 동굴이 많아 혈수(穴水)가 혈(穴)을 따라 행(行)하니 잠수(潛水)라 한다. 사람이 도리어 간음(奸淫)한다. 동역(同域) 이음(異音)으로 화언(話言)은 분별하지 못 한다. 남조(南條) 북쪽은 기(氣)가 화평(和平)하고 교화(敎化)가 행(行)하고 풍속(風俗)이 아름답고 수레가 같은 궤(軌)이고 글(書)이 같은 문(文)이며 행(行)함이 같은 윤(倫)이고 국(國)이 대치(大治)된다. 오직 광서(廣西) 운남(雲南) 민북(閩福)의 삼성(三省)의 기(氣)는 동쪽을 등지고 역행(逆行)하여 홀로 동남(東南)을 향하고 대강(大江) 유신(流神)과 갈래를 달리한다. 그 산은 교고(膠股) 합맥(合脉)이 많고 혈지(穴地)가 출수(出水)한다. 민풍(民風)은 완고하고 예(禮)를 모르며 부자(父子) 군신(君臣)의 의(義)가 없고 음탐(淫貪)하여 부끄러움이 없다. 용사(龍蛇)가 출몰하고 아지랑이가 나타난 기운이 행(行)하여 백성에 역병(疫病)이 많다. 말(語)이 음(音)에 통하지 못하고 그 풍토(風土)와 기질과 습관의 유형이 이와 같다.

[오직 인갑묘을(寅甲卯乙)의 낙맥(落脉)은 하강(河江) 중주(中柱)의 근기(根基)가 된다.]

하원(河源)의 좌(左)는 인갑묘을(寅甲卯乙)로부터 진(震)의 수(首)에 당(當)하여 낙맥(落脉)하고 장(帳)을 일으켜 일만사천리(一萬四千里)를 나아가 난화강(蘭花講)이 되고 삼만삼천칠백일십육리(三萬三千七百一十六里)에 이르러 교려산(喬黎山)이 되며 일만구천리(一萬九千里)에 이르러 유협산(榆莢山)에 들어간다. 서역(西域) 강호(羌胡)의 남막(南幕) 서수산(西首山)을 지나 일만이천이백오십리(一萬二千二百五十里)를 행

(行)하여 중국(中國)에 든다. 함곡(函谷) 연기(漣奇)에 이르러 진한(秦漢)이 된다. 또 일조(一條)는 나뉘어 남초(南楚)의 북쪽 경계에 이르고 일조(一條)는 나뉘어 동원(同原)의 북쪽에 이르러 입하(入河)한다. 중조(中條)는 장강(長江) 동쪽에 내려와 황하(黃河) 서류(西流)를 한정한다. 여기(餘氣)는 회양(淮陽)에 이르러 통태(通泰)하여 입해(入海)한다. 이는 진맥(震脉)이 내려와 강호(江湖)의 중주(中柱)가 됨을 안다. 그 용(龍)은 홀로 존귀하고 그 기(氣)는 홀로 정(正)하여 진(震)으로 나가 이(離)의 대도(大都)에 들어간다. 이구(二區)는 십년(十年) 유구(悠久)하다. 백성이 편안하고 물자가 왕성하며 문사(文士)가 모여 풍기(風氣)를 출(出)하니 정직(正直)하다. 백성은 간사(奸詐)함이 없고 상하(上下)가 종화(從化)하니 모두 그 응(應)함이다.

[강릉(岡壟)과 평원(平源)의 분별(分別)은 체골(體骨) 기육(肌肉)이 상부(相附)함과 같다. 기육(肌肉)은 골외(骨外)에 걸리고 혈맥(血脉)은 육중(肉中)에 행(行)한다. 혈맥(血脉) 유동(流動)의 정(情)을 알면 기육(肌肉) 영고(榮枯)의 이치를 본다.]

산맥(山脉)이 곤륜(崑崙)으로부터 일어나면 그 곤륜은 산의 수(首)가 되고 기맥(氣脉)의 행(行)함은 산으로 인하며 사람에게 체골(體骨)의 격(格)이 있는 것과 같다. 기맥(氣脉)이 유행(流行)하여 분포(分布)되어 산만(散漫)하면 토피(土皮)가 된다. 토피(土皮)가 됨은 사람의 기육(肌肉)과 같다. 토(土)는 산을 떠나지 못하니 육(肉)이 골(骨)을 떠나지 못함과 같다. 이에 평토(平土)의 기(氣)는 모두 산(山)에 근(根)함을 안다. 산이

동(東)으로부터 오면 토맥(土脉)의 기(氣)는 산을 따라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기육(肌肉)은 골(骨)밖에 붙어 있고 산이 행(行)하면 수(水)가 따른다. 수(水)는 사람의 혈맥(血脉)과 같다. 토(土)에 수(水)가 없으면 양육을 못한다. 그러므로 용맥(龍脉)은 반드시 수(水)를 얻어야 하고 지중(地中)에 적서 행하면 기행(氣行)이 되며 밖에서 보면 수(水)가 된다. 수(水)는 기(氣)의 자취다. 밖을 경계 지어 속을 견고히 하고 기맥(氣脉)이 얻어서 지중(地中)을 행한다. 그러므로 수신(水神)의 유동처(流動處)는 기(氣)의 출입(出入)을 증험할 수 있다. 동쪽으로 흐르면 산의 기(氣)가 통행(通行)함을 볼 수 있다. 수(水)의 동류(東流)가 없으면 도리어 서쪽에 펼치는 이치로 이른바 용(龍)이 행하면 수(水)가 따른다. 대개 기(氣)가 행(行)하면 수(水)는 자연히 따른다. 따름은 혈맥(血脉)이 경락(經絡)을 유동(流動)하여 질서 정연하게 조리(條理)가 관천(貫串)한다. 그러므로 지리(地理)는 천경(天經)과 지리(地理)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여 천문(天文)을 보면 지리(地理)의 묘용(妙用)은 환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수(衆水)가 동북(東北)으로 추귀(趨歸)하면 곤신(坤申)의 기(氣)가 시생(施生)한다.]

대강 곤신(坤申) 행룡(行龍)은 수(水)가 반드시 동북(東北)으로 향하여 흐른다. 그 기맥(氣脉)이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수신(水神)이 동북(東北)으로 흘러 행(行)한 것은 그 땅은 대부분 곤신(坤申)의 기(氣)가 결국(結局)한다. 삼관(三關)이 환기(換氣)하면 건태(乾兌)의 만남이 있고 감리간진(坎離艮震)의 기(氣)는 불입(不入)한다. 감리간진(坎離艮震)의 용(龍)이 동북

(東北)에서 교구(交媾)한 것을 구하면 진룡(眞龍)이 아니다. 용(龍)이 부진(不眞)이면 혈(穴)이 부정(不正)하고 절멸(絶滅)하여 가난하지 않음이 없지 않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수(水)가 동북(東北)으로 귀(歸)하면 용수(龍首)는 서남(西南)에 있으며 미(尾)는 동북(東北)에 있다. 땅이 모두 동북을 따라서 행하여 수(水)를 만나면 기(氣)가 멈추고 국(局)을 받으니 비록 전관(轉關)이 있어도 단지 건태(乾兌)의 기(氣)를 널리 얻을 뿐이다. 감리간진(坎離艮震)의 땅이 곤신(坤申) 행룡(行龍)이 되는 것은 반드시 없는 바이다.

[군류(群流)가 와서 진진(震辰)을 향(向)하면 건해(乾亥)의 용(龍)이 육수(育秀)한다.]

가령 중수(衆水)가 와서 진진(震辰)의 방(方)으로 흘러 향하고 교회(交會) 합류(合流)하여 가면 토맥(土脉)의 내(來)함은 반드시 건해(乾亥) 행룡(行龍)으로 부터이다. 그러므로 용(龍)이 동남(東南)에서 만난 것을 구하면 비로소 진(眞)이다. 전관(轉關)하면 임자룡(壬子龍)도 결지(結地)한다. 곤신(坤申)의 기(氣)가 좌(左)로 관(關)한 것도 취할 수 있다. 오직 이손진간(離巽震艮)의 기(氣)는 불입(不入)한다. 그러므로 심룡자(尋龍者)는 건해(乾亥)의 사두(砂頭)에서 입혈(立穴)함이 부당(不當)하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동남(東南) 수취처(水聚處)의 계수(界水)가 도우(倒右)하면 진혈(震穴)이 있고 계수(界水)가 도좌(倒左)하여 북(北)을 향해 흐르면 태혈(兌穴)이 있다. 이간손(離艮巽) 삼룡(三龍)은 마땅하지 않다. 용(龍)이 서북방(西北

方)으로부터 오고 수(水)가 동남(東南)으로부터 합한 것은 기(氣)가 수(水)를 향(向)하여 교구(交媾)한다. 정의(情意)는 진손(震巽)에 있고 거슬러 이르는 이치는 없다.

[갑묘(甲卯)가 태(胎)를 이루면 유신(酉辛)의 기(氣)를 불식(不食)한다.]

진룡(震龍) 입수(入首)에 서쪽을 향하면 서(西)는 진기(震氣)의 이르는 곳이 되고 동(東)은 기출(氣出)의 문(門)이 된다. 그러므로 사(砂)의 서수(西首)를 향(向)하여 입혈(立穴)하면 이는 기(氣)가 멈추고 수(水)가 만나는 곳이니 진혈(眞穴)이 된다. 만약 동수(東首)로부터 입표(立標)하면 유신(酉辛)을 거두어 태기(兌氣) 입혈(入穴)하여 원래 수(水)가 서(西)에서 교(交)하니 어찌 태기(兌氣)가 동(東)으로 돌아오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른바 유신(酉辛)의 기(氣)를 불식(不食)한다. 태기(兌氣)가 동(東)에 들지 못하고 진룡(震龍)이 태기(兌氣)를 불식(不食)함을 말한다. 시사(時師)는 용맥(龍脉)의 기지(起止)를 모르고 수신(水神)의 내거(來去)를 살피지 않으며 지기(地氣)의 소종(所從)에 밝지 못하다. 단지 좌대(坐對)를 보아 지동화서(指東畫西)하여 잘못 입표혈(立標穴)한다. 그것은 사람을 해롭게 하니 말로 할 수 없다.

[오정(午丁)의 생의(生意)가 어찌 감계(坎癸)의 영(靈)을 승(乘)하겠는가.]

오정(午丁) 행룡(行龍)의 수신(水神)은 반드시 남쪽으로부터 북서쪽에서 합류(合流)하여 간다. 이 수(水)를 보고 보룡(步

龍) 입혈(立穴)함은 모름지기 수류(水流) 교합처(交合處)를 향하여 구(求)하니 오정(午丁) 생식(生息)의 기(氣)가 비로소 모여서 지(地)를 이룬다. 만약 수성(水城) 출합(出合)의 곳이 아니면 도리어 남쪽의 상수처(上水處)를 향하여 입혈(立穴)하니 이는 감계(坎癸)의 영(靈)을 승(乘)하니 혈(穴)이 아니다. 거기를 범하면 반드시 절(絶)한다.

[중수(衆水)의 교금(交衿)을 보면 자웅(雌雄)이 보인다.]

산(山)은 자(雌)가 되고 수(水)는 웅(雄)이 된다. 사람에 남녀(男女)가 있는 것과 같다. 용진(龍盡) 수합(水合)하여 자웅(雌雄)이 교회(交會)함은 남녀(男女)가 합하여 구정(媾精)하는 것과 같다. 이 현묘(玄妙)한 곳은 만물(萬物)이 화생(化生)하는 대관(大關)이다. 남녀의 현문(玄門)은 이맥(二脉)의 다함을 말아 살핀다. 그러므로 남녀가 구(媾)하면 양미(兩尾)가 서로 마주하여 산진(山盡) 수합(水合)의 곳과 같다. 바로 빈모(牝牡) 교구(交媾)의 묘(妙)함으로 거기에 함영(含英) 육수(育秀)를 볼 수 있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용지(龍至) 수교(水交)한 곳은 바야흐로 맥(脉)을 멈추고 기(氣)를 다한다고 하였다. 기(氣)가 모이면 진혈(眞穴)이 된다. 수(水)가 합금(合衿)을 못하면 용맥(龍脉)이 멈추지 못하고 용맥이 멈추지 못하면 기(氣)가 행(行)하여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룡(尋龍) 정혈(定穴)은 반드시 수교처(水交處)에서 구(求)해야 옳다.

[만리(萬里)의 평룡(平壟)을 살피면 수미(首尾)를 안다.]

평원(平原) 광야(曠野)는 비록 만리(萬里)로 멀지만 그 맥(脉)이 시작된 곳을 구(求)하면 반드시 산룡(山龍)이 있어 뿌리가 된다. 사지(四肢) 분직(分職)하고 원수(元首)는 상기처(上起處)에 있어 수(首)가 되고 진처(盡處)는 미(尾)가 되는 것과 같이 그 이치는 일치(一致)한다. 그러므로 평양지(平洋地)를 보는 데는 반드시 수미(首尾)가 있는 곳을 구(求)해야 한다. 그런 뒤에 그 수신(水神)의 내거(來去)를 살펴서 그 교회(交會)하고 멈추어 모이는 정(情)을 보면 진혈(眞穴)은 자연히 보인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곤륜산(崑崙山)은 천지(天地)의 수(首)이고 오악(五嶽) 사독(四瀆)은 심복(心腹)이라 했다. 지류(支流)가 나뉘고 맥(脉)이 팔극(八極)에 흠어진 것이 사지(四肢)다. 중국(中國)으로 말하면 오악(五嶽)은 만산(萬山)의 수(首)이다. 산(山)의 수(首)를 알면 순맥(循脉)의 나뉨므로 맥(脉)의 나뉨를 알고 용(龍)의 토(土)를 볼 수 있다.

[비록 그 회두(回頭)하여 고조(顧祖)한 용(龍)이라도 어찌 부모(父母) 본생(本生)의 기(氣)를 벗어나겠는가.]

비록 갑묘(甲卯) 행룡(行龍)은 유신(酉辛)의 기(氣)를 불식(不食)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회두(回頭) 고조(顧祖)한 것이 있는데 가령 갑묘행룡(甲卯行龍)하여 기맥(氣脉)이 돌아서 갑묘(甲卯)를 향하여 결혈(結穴)한 것은 이름 하여 고조지(顧祖地)라 한다. 비록 역회(逆回)하여 성혈(成穴)하고 사두(砂頭) 기각(起脚)하여 모름지기 진궁(震宮)으로부터 발래(發來)하여 관전(關轉)하고 역수(逆水)하여 진(震)을 향하면 진전(眞轉) 관처(關處)를 취(取)한다. 만약 수류(水流)가 단(斷)하면 부모(父

母) 본생(本生)의 기(氣)가 이미 수신(水神) 격절(隔絶)이 되어 진지(眞地)가 아니다. 우관수(右關水)가 좌도(左倒)하면 태기(兌氣) 입수(入首)하여 태국(兌局)을 따라 작용(作用)하고 좌관수(左關水)가 도우(倒右)하면 건기(乾氣) 입수(入首)하여 건국(乾局)을 따라 작용(作用)한다. 또 진기(震氣) 입법(立法)으로 취하면 부당(不當)하다. 하나의 용(龍)을 예로 드니 다른 용법(龍法)도 같은 예(例)이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양사(兩砂)가 병출(並出)하여 고장고단(股長股短)하고 변조변세(邊粗邊細)하면 그 단(短)하고 세(細)한 것이 반드시 축(縮)하고 조(粗)하고 대(大)한 것은 반드시 신(伸)한다. 조대(粗大) 웅급(雄急)한 세(勢)는 반드시 곡절(曲折)해야 한다. 사(砂)의 단처(短處)를 향하여 애귀(挨歸)한다. 그러므로 대부분 회룡지(回龍地)를 맺는다. 다만 반룡지(盤龍地)가 혹 압(壓)한 사(砂)를 범하게 되고 곡절(曲折) 전관(轉關)한 것도 회룡(回龍) 반룡혈(盤龍穴)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부모(父母) 본생(本生)의 기(氣)를 얻고 벗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행(行)한다. 사(砂)가 수(水)를 따라 전관(轉關)하여 이른 것은 바야흐로 대지(大地)가 된다.

[그러므로 순수(順水) 직충(直衝)하고 역회(逆回) 결혈(結穴)하면 바야흐로 체단(體段)의 진(眞)을 알아야 한다. 만약 멀리 역수(逆水)가 직충(直衝)하여 합금(合衿)이 뒤에 있으면 허화(虛花)의 지(地)로 단정한다.]

회룡(回龍)의 지(地)는 그 사두(砂頭)가 본생(本生)의 방(方)을 따르지 않고 와서 단지 역수(逆水) 직충(直衝)하여 위의 그 수류(水流)가 배후(背後)를 향하여 교합(交合)한 것은 모두

진지(眞地)가 아니다. 시사(時師)가 가리켜 말하기를 상수어(上水魚) 비천룡(飛天龍)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잘못이다. 비록 그 지세(地勢)가 완전(宛轉)하고 좌응(坐應)이 정제(整齊)하여도 허화(虛花)다. 대개 합류(合流)가 뒤에 있으면 그 사(砂)의 행기(行氣)가 결국 교금처(交衿處)를 추향(趨向)한다.

[건원(乾源) 광야(曠野)의 보전(補氈)은 교금(交襟)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수 백리의 평양지(平洋地)가 있고 전후좌우에 또 구학(溝壑) 계간(溪澗)이 없이 포전(鋪氈) 전석(展席)같고 일망무제(一望無際)하면 이런 형체(形體)는 이미 그 출입(出入)을 상고할 수 있는 수신(水神)이 없고 또 그 내거(來去)를 분별할 수 있는 강부(岡阜)가 없으니 어떻게 그 용맥(龍脉)의 행지(行止)와 혈정(穴情)의 여부(如否)를 정하겠는가. 그런 평지(平地)를 보면 또한 반드시 볼 수 있는 미망수(微茫水)가 있다. 대개 구료(溝潦)의 수(水)는 반드시 돌아가는 곳이 있으며 미망(微茫)의 수(水)의 거류(去留) 또한 족히 그 용맥의 행지(行止)를 살필 수 있다. 수(水)는 반드시 낮은 아래를 향하고 낮게 쏠리는 곳은 중수(衆水)가 돌아가는 곳이 된다. 비록 미망수(微茫水) 또한 그 회합(會合)을 볼 수 있는데 동(東)으로 교회(交會)하면 태기(兌氣)의 입수(入首)를 찾고 서(西)로 교회(交會)하면 진기(震氣)의 입수(入首)를 찾는다. 세심(細心) 상찰(詳察)하면 반드시 진정(眞情)을 얻는다. 옛말에 한 척(尺)이 높으면 산이 되고 한 척(尺)이 낮으면 물이 된다고 하였다. 바로 평양(平洋) 건원(乾源) 광야(曠野) 지(地)의 입법(立法)이 된다.

[극릉(極隴)의 평과(平坡)에 월각(月角)은 머물러 맺힌 것을 자세히 본다.]

산릉(山隴)이 궁진(窮盡)하여 절두(截頭) 패각(掛角)하고 평과(平坡)를 포출(鋪出)하였는데 좌우(左右)에 끼고 따라 행(行)하여 보내는 수(水)가 없고 앞에 구학(溝壑) 계간(溪澗)의 계합(界合)이 없으면 이와 같은 호두(浩頭)는 비록 수법(水法)이 없어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맥(龍脉)이 출(出)하여 만약 진룡(眞龍) 결혈(結穴)이 있으면 그 기(氣)가 멈추어 융취(融聚)된 곳은 반드시 정맥(正脉)이 넓게 드리운다. 혹은 미망(微茫)으로 좌우(左右)를 경계하고 옆으로 사(砂)를 나누며 익상(翼上)에 수(首)가 마치 월각(月角)이 나온 것 같고 양견(兩肩)이 두전(兜轉)하여 호위(護圍)가 두루 돈다. 혹은 일중(一重) 이중(二重) 혹은 사오중(四五重)으로 하나하나 앞을 향하여 두당(兜堂) 수기(收氣)한다. 혹은 좌우(左右)의 견(肩)이 포출(抱出)하고 사두(砂頭)가 완전(宛轉) 곡절(曲折)하여 도당(到堂)하며 횡과(橫過)하여 미망(微茫)의 안(案)을 만들어 응(應)한 것은 그 지(地)는 바야흐로 진(眞)이다. 혹은 별지(別支) 분맥(分脉)을 따라 곡절(曲折)하여 도당(到堂)하고 직배당국(直拜當局)하며 옆으로 양익(兩翼)을 나누어 본사(本砂)의 좌우(左右)를 덮어 가린 것도 아름답다. 그러므로 평지(平地) 낙두(落頭)를 보아 머물러 맺은 것을 찾을 곳이 없으면 단지 월각(月角)이 두수(兜收)했는지 두수(兜收)를 못하였는지와 사두(砂頭)의 전잡(轉匝)에서 용(龍)이 머물렀는지 머물지 못했는지와 혈(穴)이 맺혔는지 맺히지 못하였는지가 바야흐로 보인다. 또 사오(四五)의 산두(山頭)가 있어 평과(平坡)에 출각(出脚)하면 어느 산의 낙두(落頭)가 장(長)하고 어느 산의 낙

두(落頭)가 단(短)하며 방각(旁角)은 어느 방향을 따라 두전(兜轉)하였는가를 모름지기 분별하면 그 오산(五山)의 화기(和氣)가 교합(交合)하여 혈(穴)을 이룬 것을 안다. 그 법은 더욱 정미하여 그 혈(穴)을 얻으면 부귀쌍전(富貴雙全)하고 천만자손(千萬子孫)이 일이백기(一二百紀)이다.

심기편(審氣篇) 제이(第二)

[용(龍)은 삼팔(三八)로 나뉘고 기(氣)는 오행(五行)에 속하며 음양(陰陽) 소장(消長)의 이치를 정(定)하고 고허왕상(孤虛旺相)의 인(因)함을 밝힌다.]

지지(地支) 일십이위(一十二位)에 사유(四維) 팔간(八干)으로 배(配)하여 간(干)에 속하고 지(支)중과 아울러 이십사위(二十四位)가 된다. 갑경임병(甲庚壬丙)으로 사정(四正)의 궁(宮)에 붙이고 을신정계(乙辛丁癸)는 사고(四庫)의 지(地)에 붙이며 건곤간손(乾坤艮巽)은 사유(四維)의 방(方)에 붙인다. 삼합(三合)은 해묘미(亥卯未)가 목(木)에 속하고 건갑정(乾甲丁)이 다르다. 사유축(巳酉丑)은 금(金)에 속하고 손경계(巽庚癸)가 다르다. 인오술(寅午戌)은 화(火)에 속하고 간병신(艮丙辛)이 다르다. 신자진(申子辰)은 수(水)에 속하고 곤임을(坤壬乙)이 다르다. 경(經)에서 말한 기(氣)를 따른다는 것이 이 것이다. 건(乾)은 갑(甲)을 납(納)하고 금(金)이 된다. 손(巽)은 신(辛)을 납(納)하고 목(木)이 된다. 간(艮)은 병(丙)을 납(納)하고 토(土)가 된다. 태(兌)는 정(丁)을 납(納)하고 금(金)이 된다. 곤(坤)은 을(乙)을 납(納)하고 토(土)가 된다. 이(離)는 임(壬)을

납(納)하고 화(火)가 된다. 감(坎)은 계(癸)를 납(納)하고 수(水)가 된다. 진(震)은 경(庚)을 납(納)하고 목(木)이 된다. 경(經)에서 말한 기(氣)를 납(納)한다는 것이 이 것이다. 정오행(正五行)으로 논(論)하면 인갑묘을손(寅甲卯乙巽)의 오산(五山)은 목(木)에 속한다. 사병오정(巳丙午丁)은 화(火)에 속하고 경신신유건(庚申辛酉乾)은 금(金)에 속한다. 해임자계(亥壬子癸)는 수(水)에 속하고 진술축미곤간(辰戌丑未坤艮)은 토(土)에 속하여 사방(四方)으로 분포(分布)하니 만고(萬古)에 바뀔 수 없는 정해진 기(氣)이다. 만약 삼합(三合) 나문(羅紋)의 법이면 토(土)는 기(寄)하여 사방(四方)에 왕(旺)하고 생기(生氣)는 수신(水神)에 배(配)한다. 장생(長生)은 곤(坤)에 왕(旺)은 자(子)에 있다. 수화목금(水火木金)을 용(用)하여 사경오행(四經五行)이 된다. 가령 서가(筮家)의 묘용(妙用)도 고인(古人)의 심의(深意)이다. 생왕휴폐(生旺休廢)를 헤아려서 음양소장(陰陽消長)의 이치를 밝히고 고허왕상(孤虛旺相)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그 용기(龍氣)를 살피는 것은 정오행(正五行)으로 논한다. 쌍산(雙山) 납갑(納甲)은 입향(立向) 소납사수(消納沙水)의 용(用)에 오로지 간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유씨(劉氏)가 모두 간문(干文)하여 선해(先解)함은 그 용법(用法)에 있으니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계임(癸壬)이 태경(兌庚)으로부터 내(來)하면 체전(體全)의 상(象)을 만든다. 감수(坎水)가 인묘(寅卯)로 영귀(迎歸)하면 이름하여 영기(領氣)의 신(神)이 된다.]

임계(壬癸)는 북방(北方)의 수(水)가 된다. 수룡(水龍)이 태

경(兌庚)으로부터 오면 인수(印綬)의 향(鄉)으로부터 나오니 종생추왕(從生趨旺)하여 수기(秀氣)가 온전하다. 갑묘(甲卯)는 동방(東方)의 목(木)이 되니 수룡(水龍) 영기(領氣)가 동방(東方)에 들어가 갑묘목(甲卯木)을 생(生)한다. 이는 감룡(坎龍) 행체(行體)에 목룡(木龍) 입국(入局)이니 수목상생(水木相生)하여 수기(秀氣)가 출(出)한다. 이것은 왕룡(旺龍)이 승생기(乘生氣)하여 결국(結局) 체제(體製)함을 말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감룡(坎龍)이 서태(西兌)로부터 출신(出身)하고 진룡(震龍)이 북방(北方)으로부터 출신(出身)하면 모두 귀기(鬼氣) 극설(剋泄)을 범하지 않으니 영(靈)을 모르고 수(秀)기를 모아 주밀(周密) 완고(完固)하다. 만약 입수일절(入首一節)이 다시 관살(關殺)을 불혼(不混)하여 가령 감룡(坎龍)이 단행(單行)하고 묘룡(卯龍)이 단행(單行)하여 인(寅)을 함께 하지 않으며 인임해(寅壬亥)가 상간(相間)하면 수목(水木)의 기(氣)가 청순(淸純)하니 부귀쌍전(富貴雙全)한다.

[삼양(三陽)이 교태(交泰)하면 진성(震星)이 정상(呈祥)하고 사복(四伏)이 생진(生噴)하면 천강(天罡)이 식기(蝕氣)한다.]

병오정(丙午丁)은 삼양(三陽)의 지(地)가 된다. 기(氣)가 남이(南離)에 속하여 진간(震艮) 이방(二方)으로부터 기조(起祖)하면 염정(廉貞) 탐랑(貪狼)의 기(氣)가 남이(南離)에 추지(趨至)하여 화신(火神)이 더욱 밝고 또 빼어나다. 이것은 장생(長生) 발족(發足)하여 왕방(旺方) 입수(入首)의 의미다. 그러나 화염(火炎)은 성(性)이 열(烈)하고 또 동방(東方)으로부터 행룡(行龍)하면 맹위(猛威)의 성(性)으로 회록(回祿)의 재앙이 됨이 두렵다. 하천이 감방(坎方)에 있고 산수(山水)의 상제(相

制)가 있으면 바야흐로 묘(妙)하다. 혹 좌(坐)가 수혈(水穴)이 여도 가(可)하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사복(四伏)이 된다. 대개 사금(四金)의 지(地)는 오룡(五龍)이 두려워하는 바이다. 천강(天罡)이 임한 자리는 귀인(貴人)이 무립(無立)한 향(鄉)이 된다. 그러므로 천강(天罡) 식기(蝕氣)라고 한다. 용(龍)의 입수(入首)가 만약 진술축미(辰戌丑未)를 범하면 사복(四伏) 생진(生嗔)이라 하여 곧 그것은 재해(災害)다. 양공(陽公)이 이르기를 먼저 금룡(金龍)의 동부동(動不動)을 보라고 하였으니 곧 그 뜻이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오룡(午龍)이 쌍산(雙山) 삼합(三合)을 따라 술향(戌向)이나 혹은 간향(艮向)을 한 것은 대부분 발복(發福)을 못하는데 화당(火黨)을 도와 도리어 재앙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화혈(火穴)을 좌(坐)하면 살(殺)이 도국(到局)하니 반드시 회록(回祿)이 생긴다. 납갑(納甲)을 따라 임향(壬向)을 한 것은 극히 묘(妙)하다. 만약 손신(巽辛) 이룡(二龍)의 입수(入首)이면 진술(辰戌)을 꺼리므로 입혈(立穴)하기 어려우니 소망(少亡) 고과(孤寡)가 출(出)하고 자손(子孫) 절사(絶嗣)한다. 간혹 축미(丑未) 이룡(二龍)이 정계(丁癸)로 행(行)한 것은 약통(略通)하여도 그 정락(正落)한 것은 피하여야 한다.

서시(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그 일절(一節)이 상절(上節)에 합(合)하면 입수(入首)가 희(喜)하고 내룡(來龍)과 용조(龍祖)가 상생(相生)하여 길(吉)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령 내룡(來龍)이 입수(入首)를 생(生)함을 논하면 목기(木氣) 입수(入首)한 것은 내룡(來龍)이 북방(北方)으로부터 발조(發祖)하면 기쁘다. 화기(火氣)로 입수(入首)한 것은 내룡(來龍)이 동방(東方)으로부터 발조(發祖)하면 기쁘다. 토기(土氣)로 입

수(入首)하면 내룡(來龍)이 남방(南方)으로부터 발조(發祖)하면 기쁘다. 금기(金氣)로 입수(入首)한 것은 내룡(來龍)이 곤간사방(坤艮巳方)으로부터 발조(發祖)하면 기쁘다. 수기(水氣)로 입수(入首)한 것은 내룡(來龍)이 서방(西方)으로부터 발조(發祖)하면 기쁘다. 이것은 양룡(陽龍)은 생(生)으로부터 왕(旺)을 향한다는 설(說)이다. 가령 입수(入首)가 후룡(後龍)을 생(生)함을 논하면 내룡(來龍)이 토기(土氣)로 작조(作祖)하고 남방(南方) 화기(火氣)로 역행(逆行)하여 결국(結局)한다. 화룡(火龍)으로 기조(起祖)하고 역행(逆行)하여 목기(木氣) 입수(入首)로 돌아 결국(結局)한다. 목룡(木龍)으로 기조(起祖)하고 역행(逆行)하여 북방(北方) 수기(水氣)로 돌아 결국(結局)한다. 금룡(金龍)으로 기조(起祖)하고 간병사방(艮丙巳方)으로 박환(剝換)하여 결국(結局)한다. 수룡(水龍)으로 기조(起祖)하고 역행(逆行)하여 서방(西方) 금기(金氣)로 돌아 결국(結局)한다. 이것은 음룡(陰龍)은 왕(旺)으로부터 생(生)을 향하는 설(說)이다.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기(氣)는 정오행(正五行)을 따라 논한다. 오기(五氣)를 불구(不拘)하고 입수(入首)는 모두 진술축미(辰戌丑未) 회금(回金)의 기(氣)를 꺼린다. 적으면 피할 수가 있지만 많으면 결지(結地)를 못한다. 비록 혹 결지(結地)하여도 복력(福力)을 감(減)한다. 기(氣)를 살피는 자는 모름지기 세밀하게 살펴야 하고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

[제화지(諸火地)에 있으면 그 시(屍)가 자분(自焚)하고 목(木)이 금향(金鄉)에 들면 절명(絶命)과 같다.]

태금(兌金) 행룡(行龍)이 오병(午丙)을 추향(趨向)하여 입혈(立穴)하면 이는 금(金)이 화지(火地)에 임(臨)하여 화극금(火

剋金)으로 그 시(屍)가 자분(自焚)한다. 만약 돌아서 정룡(丁龍) 입수(入首)하면 음양(陰陽) 상추(相趨)가 되고 사궁(巳宮) 입수(入首)하면 왕룡(旺龍) 추생(趨生)이니 모두 꺼리지 않는다. 갑묘(甲卯) 목룡(木龍)이 행(行)하여 태궁(兌宮) 경유방(庚酉方)상에 도두(到頭)하면 목(木)이 금향(金鄉)에 입(入)하여 수제(受制) 절명(絕命)하니 혈(穴)을 이루지 못한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이 구절은 모두 용(龍)이 수극지(受剋地)에 행(行)하는 것은 대부분 혈(穴)을 맺지 못함을 말한다. 하나의 금목(金木)을 예(例)로 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수룡(水龍)이 토향(土鄉)에 들어 결국(結局)하고 화룡(火龍)이 수향(水鄉)에 들어 결국(結局)하며 토룡(土龍)이 목국(木局)에 들어 결국(結局)하면 아울러 허가(虛假)가 많고 맺지 못한다. 예(例)는 금목(金木)과 서로 같다.

[화룡(火龍)은 태경(兌庚)을 보기가 두렵고 북진(北辰)을 만나면 자폐(自廢)한다. 동진(東震)은 화겁(火劫)을 만남이 근심이고 서태(西兌)를 보면 상혼(傷魂)한다.]

병오(丙午) 행룡(行龍)이 서태(西兌)를 향(向)하면 화(火)는 금기(金氣)에 설박(泄剝)되고 해임(亥壬)의 지(地)에 굴러 이르면 화기(火氣)가 폐절(廢絕)되어 남음이 없다. 갑묘(甲卯) 행룡(行龍)이 병오(丙午)를 향(向)하면 목생화(木生火)하여 기탈(氣脫)하고 다시 금향(金鄉)에 입(入)하여 신유(申酉)에 입수(入首)하면 목(木)은 신(申)에 절(絕)하니 혼기(魂氣)가 모두 상(傷)한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이 구절상의 두 문구는 내룡(來龍)이 아극지(我剋地)로 행(行)함을 꺼리니 용기(龍氣)

가 이미 설박(泄剝)을 받았는데 다시 극아방(剋我方)에 돌아 이르면 그 기(氣)는 폐절(廢絶)되어 남김이 없으니 혈(穴)을 못 맺는다. 하나의 화룡(火龍)을 예(例)로 들었다. 그 나머지는 토룡(土龍)이 북감(北坎)에 행(行)하고 동(東)으로 돌아서 결국(結局)하고 금룡(金龍)이 동진(東震)으로 행(行)하고 남(南)으로 굴러서 결국(結局)하며 목룡(木龍)이 토위(土位)로 행(行)하고 서(西)로 굴러서 결국(結局)하고 수룡(水龍)이 남이(南離)로 행(行)하고 토기(土氣)로 굴러 결국(結局)하는 예(例)이다. 아울러 화룡(火龍)이 태경(兌庚)을 보기가 두렵고 북진(北辰)을 만나면 자폐(自廢)한다는 것과 서로 같다. 두 구절에서 말한 용(龍)이 아생지(我生地)에 행(行)하면 곧 정주(停住)하여 결국(結局)하고 다시 달리 행(行)하지 않음을 말한다. 바로 체전(體全)의 상(象)을 만들면 영기(領氣)의 신(神)에 어찌 불길(不吉)함이 있겠는가. 꺼리는 것은 아생지(我生地)에 행(行)하고 다시 극아방(剋我方)으로 돌아 행하면 이미 설기된 기(氣)가 다시 극제(剋制)를 당하여 수상(受傷)하면 혈(穴)을 맺지 못한다. 하나의 목룡(木龍)으로 예(例)를 들었다. 그 나머지는 수룡(水龍)이 동진(東震)으로 행(行)하여서 토기(土氣)로 굴러 결국(結局)하고 화룡(火龍)이 토위(土位)로 행하여서 북(北)으로 굴러 결국(結局)하며 토룡(土龍)이 서태(西兌)로 행(行)하여서 동(東)으로 굴러 결국(結局)하고 금룡(金龍)이 북(北)으로 행(行)하여서 남(南)으로 굴러 결국(結局)하는 예(例)이다. 아울러 동진(東震)이 화겁(火劫)을 만남을 근심하고 서태(西兌)를 보면 혼(魂)이 상(傷)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양룡(陽龍)은 좌선(左旋)하니 생(生)으로부터 왕(王)을 향하고 음룡(陰龍)은 우귀(右歸)하니 왕(旺)으로부터

생(生)을 향한다.]

양룡(陽龍)은 생방(生方)으로부터 왕방(旺方)으로 좌선(左旋)이 되니 양공(楊公)이 이른바 양(陽)은 좌변(左邊)으로부터 둥글게 돈다는 것이다. 음룡(陰龍)은 왕방(旺方)으로부터 생방(生方)으로 우귀(右歸)가 되니 양공(楊公)이 이른바 음(陰)은 우(右)로부터 선전(旋轉)하여 상통(相通)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생왕(生旺)의 본기(本氣)를 얻음을 요(要)하고 귀겁(鬼劫) 극설(剋泄)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생룡(生龍)은 아름다움이 된다. 만약 극겁(剋劫)을 범하면 체제(體製)를 못 이룬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양룡(陽龍)은 좌선(左旋)하여 본생(本生)상으로부터 장생(長生)을 일으켜 순행(順行)한다고 하였다. 가령 수(水)상으로 생(生)은 신(申)에 있고 목욕(沐浴)은 유(酉) 관(冠)은 술(戌) 임관(臨官)은 해(亥)의 유형이다. 음룡(陰龍)은 우귀(右歸)로 사위(死位)상으로부터 장생(長生)을 일으켜 역행(逆行)한다. 가령 수기(水氣)는 묘(卯)에서 생(生)하여 목욕(沐浴)은 인(寅) 관대(冠帶)는 축(丑) 임관(臨官)은 자(子) 제왕(帝旺)은 해(亥)의 유형이다.

[내(來)하여 진기(進氣)를 타면 가장 기쁘고 휴수(休囚)에 함입(陷入)하면 꺼린다.]

이것은 상언(上言)을 결(結)하는 것으로 용맥(龍脉)이 생방(生方)으로부터 왕방(旺方)에 입(入)하거나 혹은 왕방(旺方)에서 생방(生方)에 입(入)하면 모두 진기(進氣)가 된다. 만약 생왕(生旺) 이방(二方)이 더불어 행(行)하여 사절지(死絕地)에

이르러 입수(入首) 결국(結局)한 것은 모두 휴수(休囚)에 빠져 든다. 용체(龍體)가 비록 빼어나 결혈(結穴)하였어도 반드시 진(眞)이 아니다.

[도두(到頭)가 수사(囚謝)하나 왕수(旺水)가 모이면 재록(財祿)이 더욱 마땅하고 입수(入首)가 쇠미(衰微)하나 생신(生神)이 모이면 인정(人丁)을 구원할 수 있다.]

용내(龍來)하여 입수(入首)의 기(氣)가 휴수(休囚)한테 수(水)가 혹 관왕(官旺)을 얻어 수(水)가 명당(明堂)에 모이면 용(龍)을 구(求)할 수 있다. 혈(穴)이 비록 흉(凶)하여도 외기(外氣)가 그것을 보(補)하면 또한 능히 발재(發財)한다. 기(氣)가 장생(長生)의 수기(水氣)를 얻어 국전(局前)에 흘러 이르면 내기(內氣)가 비록 폐(廢)하나 외기(外氣)가 부절(不絕)하니 또 능히 인정(人丁)이 흥왕(興旺)하여 결국 절사(絶死)에 이르지 않는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내룡(來龍)은 입수(入首)와 함께 생극(生剋)을 취하여 논한다. 가령 입수(入首)가 내룡(來龍)의 극(剋)을 받거나 혹은 입수(入首)가 내조룡(來祖龍)을 극모(剋務)하면 내기(內氣)가 이미 설박(泄剝)을 받았으니 모두 그것을 일러 도두(到頭) 수사(囚謝)라 하여 입수(入首)가 쇠미(衰微)한 것이다. 다만 국내(局內)에 일궁(一宮)의 제왕수(帝旺水)가 있어 내(來)함을 얻으면 오히려 발재(發財)할 수 있고 혹은 일궁(一宮)의 장생수(長生水)가 내(來)함을 얻어도 인정(人丁)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내기(內氣)가 비록 수사(囚謝) 쇠미(衰微)하여도 외기(外氣)에서 도움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例)로 가령 금룡(金龍)이 목기(木氣)로

돌아 결국(結局)하고 사유수(巳酉水)가 있어 조(潮)하면 금향(金向)을 세워서 금기(金氣)를 돕는다. 목(木)이 금(金)으로 전(轉)하여 결(結)하면 해묘수(亥卯水)를 거두어 목기(木氣)를 돕는다. 목룡(木龍)이 토기(土氣)로 전(轉)하여 결국(結局)하고 해묘수(亥卯水)가 있어 조(潮)하면 목향(木向)을 세워서 목기(木氣)를 모은다. 가령 토(土)가 목(木)으로 전(轉)하여 결(結)하면 사오수(巳午水)를 거두어 토기(土氣)를 돕는다. 수룡(水龍)이 화기(火氣)로 전(轉)하여 결국(結局)하고 신자수(申子水)가 있어 조(潮)하면 수향(水向)을 세워서 수룡(水龍)을 모은다. 가령 화(火)가 수(水)로 전(轉)하여 결(結)하면 인오수(寅午水)를 거두어서 화기(火氣)를 모은다. 화룡(火龍)이 금기(金氣)로 전(轉)하여 결국(結局)하고 인오수(寅午水)가 있어 조(潮)하면 화향(火向)을 세워서 화국(火局)을 모은다. 가령 금(金)이 화(火)로 전(轉)하여 결(結)하면 사유수(巳酉水)를 거두어 금기(金氣)를 모은다. 토룡(土龍)이 수기(水氣)로 전(轉)하여 결국(結局)하고 사오수(巳午水)가 있어 조(潮)하면 화향(火向)을 세워서 토기(土氣)를 돕는다. 혹 수(水)가 토(土)로 전(轉)하면 의당 신자수(申子水)가 길(吉)하니 모두 거둔다. 용가(龍家)에 유기(有氣)한 길수(吉水)는 온전히 향상(向上)의 소식(消息) 제화(制化)에 있다. 이것이 양공(陽公)이 사람들을 위하여 구빈(救貧) 왕정(旺丁)하는 묘술(妙術)이다. 밖으로 혹 입수(入首)에 거둘 수 있는 길수(吉水)가 있으면 내룡(來龍)을 버리고 입수(入首)를 헤아려 취한다. 예(例)는 아울러 이것에 의하여 헤아린다.

[귀(貴)한 바는 쌍흥병지(雙興並至)인데 양패중봉(兩敗重逢)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생왕(生旺)의 용(龍)을 얻고 또 생왕(生旺) 수신(水神)의 도국(到局)을 보면 이것을 일러 쌍흥병지(雙興並至)라 하니 부귀(富貴)가 먼원(綿遠)하고 발복(發福)이 연장(延長)하며 인정(人丁)과 재록(財祿) 둘다 흠이 없다. 만약 용혈(龍穴)이 휴수(休囚)되고 수신(水神)이 조국(朝局)하여 또 수사(囚謝)되면 이것을 일러 양패중봉(兩敗重逢)이라 하여 반드시 패절(敗絕)을 봄에 의심이 없다.

[생기(生氣)가 단(短)하고 사기(死氣)가 장(長)하면 흉다(凶多) 길소(吉少)하다. 사기(死氣)가 단(短)하고 생기(生氣)가 장(長)하면 복중(福重) 화경(禍輕)하다.]

내(來)한 용신(龍身)의 생왕기(生旺氣)가 장(長)하여 입궁(入宮)하고 사절기(死絕氣)가 단(短)하면 처음 천(扞)할 때에 반드시 재앙이 생기게 되고 용보(龍步) 행운(行運)이 생왕처(生旺處)에 도달하게 되면 곧 능히 발복(發福)한다. 그러므로 길(吉)함이 많고 흉(凶)함이 적다. 용신(龍身)이 사절기(死絕氣)가 길고 입수(入首)의 생왕기(生旺氣)가 짧으면 초장(初葬)에 비록 길(吉)하나 용운(龍運) 보지(步至)할 때에 반드시 큰 재앙이 생겨 흉(凶)함이 많고 길(吉)함이 적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이 구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향상(向上) 삼합(三合)으로 추길피흉(趨吉避凶)하게 하는 묘법(妙法)이다. 그 예(例)는 가령 금목(金木) 상극(相剋)에 금다(金多) 목소(木少)이면 목(木)은 사기(死氣)가 되고 금(金)은 생기(生氣)가 되니 금(金)을 따라 입향(立向)하면 금(金)의 생기(生氣)는 길고 목(木)의 사기(死氣)는 짧다. 그러므로 복(福)은 중(重)하고 화(禍)는 경(輕)하다. 만약 잘못하여 목국(木局)

을 따라 입향(立向)하면 운(運)이 목기(木氣)로 행하여 겨우 한번 발복할 수 있으나 금운(金運)으로 박도(剝到)하면 모두 목(木)이 사기(死氣)이니 이는 사기(死氣)가 길고 생기(生氣)가 짧다. 그러므로 흉(凶)함은 많고 길(吉)함은 적다. 만약 목(木)이 많고 금(金)이 적으면 고금(孤金)이 중목(衆木)을 극(剋)할 수 없으니 목기(木氣)가 많아서 도리어 생(生)이 되고 금(金)은 목(木)에 설기(泄氣)되어 도리어 사(死)가 된다. 취용(取用)을 잘하는 자는 금(金)을 버리고 목(木)을 따라 입향(立向)한다. 이는 목(木)의 생기(生氣)는 길고 금(金)의 사기(死氣)는 짧다. 그러므로 복(福)도 중(重)하고 화(禍)도 항상 경(輕)하다. 기취(棄取)를 잘못하는 자는 잘못하여 금국(金局)을 따라 입향(立向)하면 운(運)이 금기(金氣)로 행(行)하면 겨우 잠시 발복하나 목운(木運)으로 박도(剝到)하면 금(金)은 목(木)으로 설기되어 기(氣)가 사(死)한다. 이 또한 사기(死氣)는 길고 생기(生氣)는 짧으니 흉(凶)함은 항상 많고 길(吉)함은 항상 적다. 대체로 상극(相剋)을 논하면 극승자(剋勝者)는 생기(生氣)가 되고 극(剋)을 받는 것은 사기(死氣)가 된다. 다과(多寡)를 논하면 많은 것은 기(氣)가 왕(旺)하여 생(生)이고 적은 것은 기(氣)가 쇠(衰)하여 사(死)이다. 생(生)은 취(取)하고 사(死)는 버린다. 모두 향상(向上) 소식(消息) 제화(制化)에 있으면 선(善)이 된다. 금목(金木)으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목토(木土) 상극(相剋)과 토수(土水) 상극(相剋) 및 수화(水火) 상극(相剋) 그리고 화금(火金) 상극(相剋)의 유형이다. 이른바 입향(立向) 기취(棄取) 소식(消息)의 법(法)이다. 예(例)는 아울러 그와 같다.

[고조(顧祖) 회룡(回龍)은 역세(逆勢)가 중(重)한데 거정(舉

鼎)에 상(傷)을 만나고 겁(劫)을 겪으면 진기(進氣)가 경(輕)하여 홍모(鴻毛)같다.]

회두(回頭)하여 고조(顧祖)하면 비록 반곡(盤曲)하여 가애(可愛)하나 세력(勢力)이 만약 거순재(舉舜宰)하여 중(重)하고 내력(來歷)의 지(地)에 만약 귀기(鬼氣)를 만나 분겁(分劫)하여 입수처(入首處)에 이르면 영령(英靈)이 모산(耗散)되어 홍모(鴻毛)같이 경(輕)하다. 반룡(盤龍)의 지(地)는 복력(福力)이 도리어 경(輕)함을 말한다. 보는 사람은 고조(顧祖)하여서 대지(大地)가 된다고 가리키면 안된다. 고조(顧祖) 회룡(回龍)의 지(地)는 수(水)가 현무(玄武)를 두름을 가장 요(要)하니 기력(氣力)이 모인다. 그렇지 않으면 후기(後氣)가 탈거(脫去)하여 도리어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목룡(木龍)이 이(離)로 전(轉)하면 이미 화귀(火歸)에 설기되었고 태(兌)에서 다시 금(金)에 전(戰)하니 경력(經歷)에 다소(多少) 극모(剋耗)된다. 그러므로 내룡(來龍)의 세(勢)가 중(重)하나 입수(入首)의 기(氣)가 경(輕)하다고 한다. 비록 부귀(富貴)를 발(發)하여도 어찌 능히 장구하겠는가.

[그러므로 임(壬)이 계(癸)로 박(剝)하고 계(癸)가 임(壬)으로 박(剝)하면 수룡(水龍)이 호용(互用)하여 자순(自純)하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임계(壬癸) 모두 수신(水神)에 속한다. 또 둘은 정양(淨陽)으로 부잡(不雜)하다. 그러므로 임계(壬癸)가 호용(互用)하여 그 기(氣)는 자연히 순(純)하다. 구주(舊註)에 흠명(欠明)하여 이제 잘못을 바르게 고친다.

[정(丁)이 병(丙)으로 바뀌고 병(丙)이 정(丁)으로 바뀌면 화기(火氣)가 상수(相須)하여 꺼리지 않는다.]

병정(丙丁) 모두 화신(火神)에 속한다. 정룡(丁龍)이 병(丙)으로 바뀌고 병룡(丙龍)이 정(丁)으로 바뀌면 일가(一家)의 기(氣)가 된다. 또 이기(理氣)의 정음정양(淨陰淨陽)으로 병정(丙丁)은 또 함께 음(陰)에 속한다. 그러므로 둘이 전환(轉換)하면 모두 길(吉)하다.

[해룡(亥龍)은 건임(乾壬)이 잡(雜)됨을 꺼리고 일로(一路)로 통(通)함을 허용한다. 손지(巽地)는 진사(辰巳)를 겸(兼)함을 두려워하고 단지 단행(單行)을 좋아한다. 곧게 받으면 흠이 없고 굽어 오면 흠이 있다.]

건(乾)과 해(亥)는 동궁(同宮)이나 건(乾)은 양(陽)이고 해(亥)는 음(陰)이다. 임(壬)과 해(亥)가 교계(交界)하면 해(亥)는 음(陰)이고 임(壬)은 양(陽)으로 이기(二氣)는 본래 상통(相通)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기(亥氣)가 건임(乾壬)을 범한 것은 반드시 절(絶)한다. 단지 직수(直受)하여야 하고 곡절(曲折)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일로(一路)만 허용(許通)한다. 가령 건임(乾壬)을 띠고 와서 입혈(立穴)하여 그 것을 범하면 안 된다. 모름지기 그 범하는 것을 피(避)하여 해(亥)상으로 애귀(挨歸)하여야 한다. 손룡(巽龍)과 진사(辰巳)가 동행(同行)하여도 그렇다. 사기(巳氣)를 범하면 반드시 다 절(絶)하지는 않으나 진기(辰氣)를 침범하면 사람에 혈유(子遺)가 없다.

[인갑간(寅甲艮)은 나란히 이르는 것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유경신(酉庚辛)은 쌍행(雙行)할 수 있다.]

간룡(艮龍)은 육수(六秀)의 존귀함이 되니 그것을 얻으면 관귀(官貴)가 극히 빠르다. 그러나 인갑(寅甲)과 동계(同界)하고 그 출신(出身) 입수(入首)가 만약 털 끝 만큼의 착오가 있다면 복구(福咎)는 돈이(頓異)하다. 만약 축룡(丑龍)을 범하여 동행(同行)하면 비록 불길(不吉)하게 되나 음양(陰陽) 일체(一體)를 잃지 않아 오히려 재혈(裁穴)할 수 있으니 인갑(寅甲)이 조금이라도 범하면 안 된다. 유(酉)와 경신(庚辛) 모두 금기(金氣) 일가(一家)가 되어 이미 청(淸)하고 또 같은 음기(陰氣)이다. 그러므로 이룡(二龍) 쌍행(雙行)이 축(丑)으로 바뀌어 입국(入局)하여도 대지(大地)를 이룬다. 인간(寅艮)이 흠이 많은 것과 견주지 못한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이 구절은 위의 임박계(壬剝癸) 사절(四節)과 합(合)한다. 오행(五行)으로 그 생극제화(生剋制化)를 취하고 겸하여 정음정양(淨陰淨陽)을 합하여 그 순박(純駁) 청탁(淸濁)을 논한다. 가령 임계(壬癸)는 그 수기(水氣)로 순(純)하고 또 정양(淨陽)으로 부잡(不雜)하다. 병정(丙丁)은 그 화기(火氣)로 순(純)하고 경유신(庚酉辛)은 그 금기(金氣)로 순(純)하며 또 정음(淨陰)으로 부잡(不雜)하다. 이는 그래서 취한다. 만약 해건(亥乾) 금수(金水)라면 비록 상생(相生)이고 임해(壬亥)가 비록 수기(水氣)를 같이 얻었으며 사진(巳辰)이 비록 화토(火土) 상생(相生)하였어도 이는 음양 박잡(陰陽駁雜)이다. 그러므로 취하지 않는다. 어찌 하물며 손진(巽辰)과 인갑간(寅甲艮)이 기(氣)를 논하겠는가. 이미 수토(水土)가 상극(相剋)이고 음양(陰陽)을 논하면 또 박잡(駁雜)이니 그것은 감히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나

머지도 이와 같이 헤아린다.

[건곤(乾坤) 이위(二位)가 도두(到頭)하면 비록 발복(發福)하더라도 결국 패절(敗絕)한다.]

건곤(乾坤)은 노항(老亢)하여 서북(西北) 서남(西南)에 퇴거(退居)하여서 그 생기(生氣)를 다한다. 그러므로 용(龍)이 건곤(乾坤)으로부터 입수(入首)한 것은 사관(砂關) 수수(水秀)하여 외기(外氣)가 청령(淸靈)하면 또한 능히 발복한다. 그러나 노음(老陰) 노양(老陽)은 결국 생식(生息)이 없고 패절(敗絕)로 귀(歸)하니 또한 그 이치가 반드시 그렇다. 그러므로 후천괘(後天卦)는 건곤(乾坤)이 서북(西北) 서남(西南)에 거처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진술(辰戌) 양룡(兩龍)의 입수(入首)는 비록 이달(利達)하여도 대대로 고한(孤寒)을 받는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사금지(四金地)가 된다. 그러나 귀우(鬼牛) 이기(二氣)는 비록 열(烈)하나 항루(亢婁)의 악(惡)이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진술(辰戌)은 축미(丑未)를 얻어 귀(貴)를 취한다. 진술(辰戌)은 천을(天乙)이 임(臨)하지 않고 항루(亢婁)는 해(害)가 되어 능히 사람들을 절사(絶嗣)하게 한다. 이 진술(辰戌) 이룡(二龍)은 비록 발복하는 것도 사수(砂水)의 복(福)을 얻은 것이고 자손(子孫)이 대대로 고한(孤寒)하다. 건곤(乾坤) 양룡(兩龍)의 해(害)와 다름이 없다. 건(乾)의 흉(凶)함은 더욱 심하고 곤(坤)은 능히 발재(發財)하나 단지 출인(出人)이 요수(夭壽)하고 과모(寡母)가 방(房)에 앉아

있다. 진술(辰戌)도 심히 흉악(凶惡)하고 축미(丑未) 또한 그 다음이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이 구절은 위의 구절에 합(合)한다. 오행(五行) 생극(生剋)을 논하지 않고 음양(陰陽) 순잡(純雜)을 불론하며 모두 이십사산(二十四山)으로부터 그 왕상(旺相)한 것을 취하면 길룡(吉龍)이 되고 고허(孤虛)한 것은 흉룡(凶龍)이 된다. 그러므로 건곤(乾坤) 노항(老亢)하고 고허(孤虛)하여 허(虛)한 바이므로 취하지 않는다. 진술(辰戌)도 고허(孤虛)하고 또 사금(四金)을 범하므로 아울러 쇠(衰)한다.

[그러므로 변방(辨方) 정위(定位)는 이십사자(二十四字)의 흥쇠(興衰)를 연구한다.]

오행(五行)의 기(氣)에 토(土)는 수(水)를 따라 사유(四維)에 기(寄)한다. 동(東)은 목(木), 서(西)는 금(金), 남(南)은 화(火) 북(北)은 수(水)로 각기 방위(方位)가 있고 그 생(生)과 왕(旺)은 아울러 십이지진(十二支辰)중에 있으며 사유(四維) 팔간(八干)으로 배(配)한다. 가령 수토(水土)는 신(申)에 생(生)하고 자(子)에 왕(旺)하는 유형이다. 이십사위(二十四位)상으로부터 연구하면 그 흥쇠(興衰) 휴폐(休廢) 득실(得失)의 이치를 안다. 생각건대 입혈(立穴) 심룡(審龍)의 법(法)은 수(水)로써 소납(消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혈(立穴) 조영(朝迎)은 칠십이룡(七十二龍)의 관살(關殺)을 살핀다.]

십이지진(十二支辰)에 혼천갑자(渾天甲子)로 각기 배(配)하

고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가 소속된
 납음은 가령 갑자(甲子) 을축(乙丑)은 금(金)이고 병인(丙寅)
 정묘(丁卯)는 화(火)인 유형이고 더불어 갑을손병정곤경신건
 임계간(甲乙巽丙丁坤庚辛乾壬癸艮)의 사유팔간(四維八干)의
 구갑공망(龜甲空亡)까지 함께 칠십이룡(七十二龍)이다. 내룡
 (來龍) 입혈(立穴)의 관살(關殺)을 살펴서 그 침입한 것을 피
 (避)하고 그 기(起)한 것을 희(喜)한다. 다시 육십룡(六十龍)으
 로 격반(格盤)에 균분(均分)하여서 좌혈(坐穴)의 관살(關殺)을
 분별한다. 가령 계룡(癸龍)이 임자(壬子) 을축(乙丑)사이의 공
 망(空亡)에 해당하면 마땅히 피(避)한다. 을축룡(乙丑龍)이 정
 묘(丁卯)에 좌(坐)하면 이는 금룡(金龍)이 화혈(火穴)에 좌(坐)
 한 것이다. 화혈(火穴)이 수향(水向)을 받으면 향극혈(向剋穴)
 이 되어 귀기(鬼氣)가 혈(穴)을 침범하니 법은 응당 피해야
 한다. 달리 가령 삼백육십오도(三百六十五度) 천산갑자(穿山
 甲子) 투지혼천(透地渾天)의 살(殺)이라면 학자(學者) 또한 의
 당 강구(講求)하여야 한다.

[용(龍)이 공망(空亡)에 떨어지면 모름지기 피기(避忌)에 밝
 아야 한다. 향(向)이 극제(剋制)된다면 의당 추이(推移)에 통
 달해야 한다.]

용(龍)이 공망(空亡)에 떨어짐은 칠십이룡(七十二龍)의 설
 (說)에 구갑공망(龜甲空亡)을 꺼리는 법이다. 가령 향제(向制)
 향생(向生)의 비결에 이르면 양공(楊公)은 현공오행(玄空五行)
 을 용(用)하여서 소식(消息)하고 이십사산(二十四山)의 팔수
 (八水) 사금(四金) 오행(五行)의 생극(生剋)을 취(取)하여서 피
 기(避忌)의 방(方)을 정한다. 이것이 일법(一法)이다. 또 봉침

(縫針)을 용(用)하여 혼천(渾天) 육십룡(六十龍)의 오행(五行)을 취(取)하여서 소식(消息)함이 있다. 이것 또한 일법(一法)이다. 또 천간(穿山) 투지(透地)에 삼백육십오도(三百六十五度)의 오행(五行)을 용(用)하여서 소식(消息)함이 있다. 이것 또한 일법(一法)이다. 입법(立法)이 다단(多端)하여 이(理)가 일제(一齊)하기 어렵다. 가령 손룡(巽龍) 도두(到頭)에 유(酉)가 살요(殺曜)가 되니 그 방위에 사(砂)가 있어 와서 응(應)하거나 혹은 수(水)가 귀당(歸堂)하면 이름 하여 악살(惡殺)이 되어 향수(向首)도 의당 꺼린다. 만약 쌍산오행(雙山五行)을 용(用)하여 삼합(三合)으로 논하면 생룡(生龍)이 조왕(朝旺)하여서 도리어 그 화(禍)를 받고 또 하물며 손룡(巽龍)에 유수(酉水)가 도달하고 비록 유(酉)를 향(向)하지 않아도 또 해(害)가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향(向)할 수 있겠는가. 홀로 손룡(巽龍) 유수(酉水)와 삼합(三合)은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히 그것을 거론할 뿐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감룡(坎龍)에 진수(辰水)를 꺼리고 곤룡(坤龍)에 묘수(卯水)를 꺼리며 진룡(震龍)에 신수(申水)를 꺼리고 손룡(巽龍)에 유수(酉水)를 꺼리며 건룡(乾龍)에 오수(午水)를 꺼리고 태룡(兌龍)에 사수(巳水)를 꺼리며 간룡(艮龍)에 인수(寅水)를 꺼리고 이룡(離龍)에 해수(亥水)를 꺼린다. 향(向)도 서로 같다. 서로 피하여 꺼리는 것은 왜 그런가. 달리 알지 못함은 감수(坎水)는 진토(辰土)의 극(剋)을 받고 곤토(坤土)는 묘목(卯木)의 극을 받으며 진목(震木)은 신금(申金)의 극을 받고 손목(巽木)은 유금(酉金)의 극을 받으며 건금(乾金)은 오화(午火)의 극을 받고 태금(兌金)은 사화(巳火)의 극을 받으며 간토(艮土)는 인목(寅木)의 극을 받고 이화(離火)는 해수(亥水)의 극을 받는다. 이것은 이름 하여 팔요살

(八曜殺)이다. 비록 진룡(眞龍) 길지(吉地)라도 그것을 범하면 재앙을 부름이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팔괘(八卦)의 형해(刑害)는 이와 같다.

[오직 밝게 깨달아 어둡지 않아야 깨달아서 신(神)에 통(通)한다.]

이십사산(二十四山)의 흥쇠(興衰)와 칠십이룡(七十二龍)의 관살(關殺)과 구갑(龜甲)의 공망(空亡)및 요기(曜氣)의 침릉(侵凌)은 오직 밝게 깨달은 자만이 능히 그것을 살필 수 있게 되어 어둡지 않으니 혹 피하고 혹은 꺼린다. 마음에 깨달아 그 신묘(神妙)함에 통(通)한 연후에 능히 진선진미(盡善盡美)하고 탈조화개천명(奪造化改天命)하여 인빈(人貧)을 구제(救濟)한다.

심룡편(審龍篇) 제3(第三)

[선성(先聖)의 유언(遺言)을 자세히 보면 바야흐로 심룡(尋龍)의 요결(要訣)을 안다.]

[사행수보(砂行水輔)는 부르고 따르는 부부(夫婦)의 정(情)과 연(聯)한다.]

경(經)에 이르기를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이 경계하면 멈춘다. 외기(外氣)가 내기(內氣)를 멈추게 하는 바이다, 기(氣)는 수(水)의 모(母)가 되고 수(水)는 기(氣)의 자(子)가 된다. 수(水)가 행(行)하면 기(氣)가 행(行)하고 수(水)가 멈추면 기

(氣)는 멈춘다. 수(水)가 밖에서 경계하면 기(氣)는 속에서 멈춘다. 그러므로 용(龍)이 행(行)하면 수(水)가 따라서 행(行)한다. 마치 부부(夫婦)가 정(情)을 서로 따르고 뜻을 합하여 따르듯이 또한 자연의 이치다.

[수요(水遶) 사회(砂回)는 배(拜)하고 무(舞)함이 군신(君臣)의 상(象)과 같다.]

[용(龍)이 멈춘 곳은 사방의 사(砂)가 자연히 머리를 돌려 하나하나 국(局)을 돌아본다. 사(砂)가 돌면 자연히 수(水)는 자연히 국외(局外)를 환요(環遶)한다. 교류(交流)하여 도당(到堂)하여 유유(悠悠) 양양(洋洋)하게 멈추고 움직이지 않으며 모여서 흘러 흩어지지 않으면 마치 절하듯 하고 춤추듯 함이 신하가 임금의 보는 것 같이 엄숙하게 받들고 공경하여 굴복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사두(砂頭)가 회복(回伏) 반서(盤舒)하여 마치 배무(拜舞)의 상(象)과 같다. 가령 수(水)의 내거(來去)가 굴곡(屈曲) 지현(之玄)하는 것도 만약 춤추듯 모여 쌓이고 흐르지 않으면 또한 배(拜)와 같다. 또 이르기를 그 정(靜)함은 배(拜)와 같고 그 동(動)함은 무(舞)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룡(眞龍)이 처음 발족(發足)할 때는 만마(萬馬)가 달리는 세(勢)와 같다.]

대체로 진룡(眞龍)이 행(行)하면 사(砂)가 따르고 수가 보(輔)하여 마치 만마(萬馬)가 달릴 때의 세(勢)와 같아 막을 수

없다.

[사(砂)가 물결이 솟는 것 같고 수(水)가 물고기가 만나는 것 같이 떼지어 안고 밖을 향하면 바로 내(來)하는 자취임을 누가 알겠는가.]

진룡(眞龍)이 출신(出身)하면 그 보내고 따르는 사(砂)가 협보(夾輔) 추옹(推擁)한다. 마치 물결이 솟은 듯 중첩되어 순수(順水)하여 추창(趨蹌)하고 회두(回頭) 반배(反背)의 세(勢)가 없고 수(水)는 사(砂)를 따라 나간다. 마치 물고기의 비늘이 혹 나뉘고 혹은 합하며 혹은 합하였다가 다시 나뉘어 마치 비늘이 만나는 것 같다. 사(砂)를 따라 행(行)하여 도도(滔滔)하게 밖을 향하고 쌓이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 그 진룡(眞龍) 출신(出身)의 세(勢)가 이와 같은 형체이니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요즘의 술사(術師)는 사두(砂頭)가 방정(方正)한 것을 한번 보면 곧 지점(指點)하여 말하기를 어떤 용(龍) 어떤 혈(穴)이라고 한다. 용(龍)은 진체(眞體)가 있으면 출신(出身) 발족(發足)은 머물고 머물지 않음이 있고 정룡(正龍) 방룡(傍龍)이 있으며 진기(眞氣) 위기(僞氣)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砂)를 바라보고 점혈(點穴)함은 잘못이다.

[수(水)가 횡궁(橫弓)같고 사(砂)가 늑마(勒馬)같으며 군(軍)이 진치고 창(戟)이 늘어서면 멈추어 뽑아낸 자취임을 누가 알겠는가.]

진룡(眞龍)이 도두(到頭)하면 보내고 따르는 옆의 사(砂)들이 하나하나 머리를 돌려 서로 돌아 보는 것이 마치 늑마(勒

馬)같고 사수(四水)가 교류(交流)하여 과당(過堂) 횡취(橫聚)하고 환포(環抱)하여 궁(弓) 같이 안(案)이 응한다. 용호(龍虎)가 옆으로 벌려서 마치 극(戟)같고 둔복(屯伏)한 것이 군대와 같다. 이러한 형세가 있으면 바로 진룡(眞龍)이 멈추고 뽑아내어 가지 않으니 결지(結地)한다. 요즘의 술사(術師)는 사두(砂頭) 수면(水面)의 방정(方正)함을 한번 보면 수(水)의 합류(合流) 교회(交會)를 불문(不問)하고 마침내 점혈(點穴)하니 또한 사람들을 잘못되게 한다. 대체로 진룡(眞龍)의 결혈(結穴)은 장류(長流) 대수(大水)의 옆에 있지 않고 또한 대수(大水)의 문(門)에 나오지 않으며 대부분 양쪽 물이 끼고 흐르는 가운데에 맺는데 옆에는 호송사(護送砂)가 있어 보내고 따라서 온다. 또 입수처(入首處)에 이르면 못 사(砂)들이 국(局)을 돌아 보고 혹 전개(展開)하여 안(案)을 만들거나 혹은 전(纏)하거나 요(繞)하여 밖에서 막고 뒤에서 감싸 안으니 반드시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 머리를 들어 얼굴을 드러내면 진기(眞氣)를 누설하기 때문이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호룡(好龍)은 도리어 규중녀(閨中女)라 했는데 장막(帳幕)이 몸을 감추어 형(形)을 드러내지 않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용(龍)이 머물지 않을 때에는 그 오는 것이 마치 쫓는 것 같다. 용(龍)이 이미 머물렀을 때에는 그 멈춘 것이 엮드린 것 같다. 왼쪽 사(砂)가 오른쪽으로 귀(歸)하고 오른쪽 사(砂)는 왼쪽으로 지나간다. 중수(衆水)가 조당(朝堂)하고 군룡(群龍)이 발에 이른다.]

진룡(眞龍)이 머물지 않으면 그 세(勢)가 빨리 달려 행(行)하고 멈춤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머물게 되면 그 세(勢)

는 옆드려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왼쪽 사(砂)는 당(堂)에 이르러 오른쪽을 향하고 혹 오른쪽 사(砂)는 당(堂)을 지나 왼쪽을 향한다. 사방이 명당(明堂)을 환포(環抱)하고 그 보내고 따르는 사(砂)는 발에 이르러 향하여 받들고 호위한다. 이와 같으면 바로 진룡(眞龍)이 머물러 쉬는 세(勢)이다.

[주기(注氣) 응신(凝神)이면 비록 불러도 오지 않고 전후(前後)로 관쇄(關鎖)되어 장차 어기고 가지 않는다.]

사(砂)가 돌아보고 수(水)가 향하여 오면 기(氣)가 모이고 행(行)하지 않으면 신(神)이 응결되고 흩어지지 않으며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그 머무름이 옆드린 것 같다는 것은 좌우(左右)로 관란(關欄)되고 전후(前後)로 옹호(擁護)가 주밀(周密)하여 불러도 오지 않고 어기고 가지 않는다. 참된 입수(入首)의 세(勢)는 이와 같다.

[그러므로 수교(水交) 사회(砂會)의 방(方)을 알면 진룡(眞龍) 입수(入首)의 지(地)를 본다.]

수(水)가 국전(局前)에 교(交)하고 사(砂)가 좌우(左右)에 온전하면 이는 용세(龍勢)가 쉬고 머무르는 곳이며 심룡(尋龍) 점혈(點穴)은 반드시 그 국(局)의 전후좌우(前後左右)의 세(勢)가 어떠한지를 본다. 그런 뒤에 그 체제(體制)의 미악(美惡)을 의논하면 바로 그 형상의 길흉(吉凶) 휴구(休咎)의 자취를 얻을 수 있다.

[세(勢)가 혹 연연(涓涓)하고 정(情)이 부해(赴海)같으며 아

압(鴉鴨)이 날르는 형상이면 하늘 끝까지 멀리 본다.]

연연(涓涓) 부해(赴海)는 수(水)가 거(去)하여 모이지 않음을 말한다. 아비안영(鴉飛雁影)은 산(山)이 거(去)하여 돌아 보지 않음을 말한다. 이 네 구절은 용(龍)이 행(行)하여 머물지 않는 세(勢)로 간문(干文)에 이른 바와 같다.

[유신(流神)이 환산(渙散)하여 귀(歸)하지 않으면 용(龍)은 오히려 거(去)하고 머물지 않는다.]

용(龍)의 거류(去留)는 수(水)의 행지(行止)를 본다. 수(水)가 행(行)하면 용(龍)이 행(行)하고 수(水)가 모이면 용(龍)이 머문다. 그러므로 수신(水神)이 흩어지고 거두지 못하면 용(龍)이 오히려 행(行)하고 그 머물러 쉬는 것을 보지 못한다.

[미원(微垣) 성산(星散)하고 불고(不顧)하면 기(氣)는 오히려 행(行)하고 거두지 못한다.]

용기(龍氣)가 응결되어 머물면 결의 사(砂)가 읍복(揖伏) 전관(展關)한 뒤에 볼 수 있다. 만약 미원(微垣)이 곁에 벌리고 군사(群砂)가 밖을 향하여 당국(當局)을 돌아 보지 않으면 기(氣)는 오히려 행(行)함을 알고 그 수습(收拾)을 보지 못한다.

[비록 혹 개문(開門)하고 입(立)하여도 모름지기 풍익(風翼)저린(渚鱗)을 알아야 한다.]

용(龍)이 행(行)하여 분지(分枝)하고 기맥(氣脉)이 거(去)하

여 거두지 못하는 중에 사두(砂頭)에 문면(門面)을 분포(分布)하여 흡사 혈장(穴場)에 지점(指點)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행룡(行龍)상에 분지(分枝) 결혈(結穴)에 불과할 뿐이고 기(氣)가 모인 대지(大地)가 아니다. 가령 풍림(風林)속에 잠자는 새가 어찌 날개를 편히 쉴 수 있겠으며 물가의 물고기가 어찌 비늘을 놓아 두겠는가. 비록 혹 발복하여도 장구하지 못하다.

[축수(蓄水)하여 관(關)이 되면 또한 참요(斬腰) 절기(截氣)한다.]

진룡(眞龍)의 출신(出身) 중간(中間)에 혹 수취처(水聚處)를 얻어 분두(分頭) 입면(立面)하거나 혹은 지수(枝水) 삽견(插肩)하고 파복(破腹)하여 진두면(眞頭面)을 개(開)하면 이러한 혈장(穴場)도 용요(龍腰)를 참절(斬截)하여 취기(取氣) 입혈(立穴)하는 법이다. 결국 정룡(正龍)이 스스로 멈추어 기(氣)가 쌓인 자리가 아니다. 이러한 형세 같으면 반드시 목력(目力)의 공(功)을 얻어야 한다. 심사(心思)가 깊은 자는 능히 작용(作用)을 잘하여 그 법을 잃지 않고 복(福)을 얻을 수 있다.

[장사(長砂)가 전석(展席)같으면 지류(枝流)에서 일절(一節)을 취(取)한다.]

장사(長砂)가 직출(直出)하여 물을 따라 나가서 마치 자리를 편 것 같고 두계(兜界) 수습(收拾)이 없으면 입혈(立穴)할 수 없다. 중간(中間)에 지수(枝水)가 삽파(插破)하여 그 복(腹)이 굽으면 그 기(氣)가 입국(入局)한 것을 취하는 것도 절법(截法)

法)이다.

[대괴(大塊) 포전(鋪氈)은 배합(配合)에 지순(至純)함을 구(求)한다.]

대괴(大塊) 사두(砂頭)가 묘망(渺茫)하게 내(來)하여 마치 포전(鋪氈)의 형상 같으면 반드시 도두(到頭)로 하여금 수교(水交) 사회(砂會)와 음양배합(陰陽配合)을 얻게 해야 한다. 그런 뒤에 진혈(眞穴)을 융결(融結)한다. 아니면 일편(一片)의 만피(蠻皮)이니 어느 곳에서 기(氣)를 증험하겠는가.

[현기(玄機)에 참투(參透)하면 조화(造化)를 만회(挽回)할 수 있다. 고선(古先)의 비결(秘訣)은 어찌 비인(非人)에게 도(度)를 가며 허용하겠는가.]

진룡(眞龍) 입혈(立穴)의 법은 기교(機巧) 현미(玄微)하면 천지(天地) 자연(自然)의 기(氣)를 능히 만회(挽回)할 수 있으니 흉(凶)한 것을 돌려 길(吉)함이 되게 할 수 있다. 술(術)이 깊지 못한 자는 그 심오함을 참투(參透)할 수 없다. 그 심오한 이치를 깨달은 자는 족히 조화(造化)를 참찬(參贊)하여서 생인(生人)에 입명(立命)하여 조빈모부(朝貧暮富)하게 한다. 고인(古人)은 천기(天機)의 비밀을 누설함이 두려워 말하지 않았다.

심혈편(審穴篇) 제4(第四)

[용(龍)은 지(地)로부터 기(起)하여 길흉(吉凶)이 있고 수(水)는 천(天)으로부터 내(來)하여 청탁(淸濁)이 있다.]

용(龍)은 출신(出身)하여 모름지기 십이지진(十二支辰)의 방(方)에 있다. 대개 용(龍)은 음기(陰氣)에 속하여 십이지진상(十二支辰象)인데 지(地)는 음(陰)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지상(地支上)으로 행(行)하는 용(龍)의 출신(出身) 입수(入首) 또한 길흉(吉凶)의 차이가 있다. 수신(水神)의 내거(來去)는 의당 팔간(八干) 사유(四維)상에 있다. 대개 수(水)는 양기(陽氣)에 속하여 천간상(天干象)인데 천(天)은 양(陽)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간(天干)의 수(水) 또한 청탁(淸濁)의 다름이 있다. 이에 옛날 양씨(楊氏)가 말한 바 만수(萬水)는 다 천상(天上)을 따라 거(去)하고 군룡(群龍)은 모름지기 지중(地中)을 향하여 행(行)하여서 천지(天地)가 나뉜다. 그리고 길흉(吉凶)을 말하지 않았는데 대개 그것은 비밀로 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기(氣)는 지중(地中)을 행(行)하여 지기(地氣)를 취하고 수(水)는 땅 밖을 흘러 천기(天氣)를 취한다. 그러므로 용(龍)은 음(陰)을 따르고 수(水)는 양(陽)을 따른다. 양씨(楊氏)는 사람들을 위하여 화(禍)를 돌려 복(福)이 되게 하고 법을 세워 사람들에게 보이고 말하기를 만수(萬水)는 다 천상(天上)을 따라 나가고 군룡(群龍)은 모름지기 지중(地中)을 향하여 행(行)한다는 것은 취국(就局) 취재(取裁)는 외기(外氣)로써 입향(立向)하기 때문이다. 수(水)가 천간(天干)에 들게 발(撥)하고 용(龍)이 지지(地支)에 들게 이(移)하여서 천청(天淸) 지탁(地濁)의 상(象)을 나눈다. 외기(外氣)를 소섭(召攝)하고 납(納)하여 국중(局中)에 취(就)하여 이화위복(移禍爲福)하는 권법(權法)이다. 그러므로 심룡부(尋龍賦) 종편(終篇)

에 비지(秘旨)는 한마디도 없고 내룡(來龍)의 귀천(貴賤)과 길흉(吉凶)의 구별을 언급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절(二節) 삼절(三節)은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전후(前後) 팔척(八尺)은 잡(雜)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좌향(坐向)을 불문(不問)하고 내산(來山)의 사기(死氣)에 이르면 도리어 허한(虛閑)하다고 했다. 이것을 보면 양공(楊公)은 외기(外氣)의 내거(來去)를 취용(取用)하여 입향(立向)한 것을 알 수 있고 수산(收山)하여서 생왕휴수(生旺休囚)의 기(氣) 여하(如何)를 승(乘)한다. 이것은 대개 이화전복(移禍轉福)의 미권(微權)이며 그 심룡(尋龍) 귀천(貴賤)의 법을 문선(文仙) 강동제인(江東諸人)에게 묵수(默授)하였으며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는 저서(著書)를 남겼다. 여러 고성(古聖)의 용혈사수(龍穴砂水)를 상고하면 단지 고허(孤虛)를 피(避)하고 생왕(生旺)을 추(趨)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르고 말하기를 용(龍)은 지지(地支)가 마땅하고 수(水)는 천간(天干)이라 한다. 좌금선인(左衿仙人)은 홀로 양공(楊公)의 뜻을 보고 글에 비밀로 하였으나 그것을 발(發)하여 말하기를 용(龍)은 지(地)를 따라 기(起)하고 길흉(吉凶)이 있으며 수(水)는 천(天)으로부터 내(來)하고 청탁(淸濁)이 있다고 하였는데 홀로 보니 용(龍)이 지지(地支)를 따랐는데 다 길(吉)하지 않고 수(水)가 천간(天干)으로부터 왔는데 다 청(淸)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심룡법(尋龍法)이 오로지 지지(地支)를 취함은 부당(不當)하고 수(水) 또한 천간(天干)을 다 따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함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정령(精靈)은 육수(六秀)의 방(方)에 모이고 영수(英粹)는 천문(天門) 상(上)에서 나온다.]

간병손신태정(艮丙巽辛兌丁)은 육수(六秀)의 위(位)가 된다. 천시원(天市垣)은 간(艮)에 있고 태미원(太微垣) 천귀성(天貴星)은 병(丙)에 있어서 천하(天下)의 녹(祿)을 주관한다. 천을(天乙)은 신(辛)에 있고 태을(太乙)은 손(巽)에 있어서 천하의 복(福)을 주관한다. 소미(少微)는 태(兌)에 있고 수성(壽星)은 정(丁)에 있어서 천하의 수(壽)를 주관한다. 복록수(福祿壽) 삼자(三子)는 홍범(洪範)에서 오복(五福)의 최고로 삼는다. 홍범(洪範)의 수(數)는 위로 천(天)에 응(應)한다. 그러므로 그 방(方)의 기(氣)는 청귀(淸貴) 순미(純美)하고 용체(龍體)가 수려(秀麗)하다. 만약 진(震)이면 뇌문(雷門)이 되어 천하의 위병(威柄)을 주관하고 경(庚)은 위무(威武)가 되어 사방의 권형(權衡)으로 만물(萬物)의 숙령(肅令)을 주관하므로 그 방(方)은 이름하여 장성(將星)이 되고 또한 귀룡(貴龍)이다. 다만 손신태정(巽辛艮)은 문장(文章)의 부(府)가 되고 태병정(兌丙丁)은 사적(司籍)의 지(地)가 된다. 그러므로 육수룡(六秀龍)은 문장(文章)의 사(士)를 다출(多出)하고 간병(艮丙)은 부귀쌍전(富貴雙全)한다. 또 손신태정(巽辛)은 청귀(淸貴)의 추요(樞要)가 됨을 알지 못한다. 묘경(卯庚)은 출인(出人)이 모략(謀略)이 있다. 해(亥)는 자미원(紫微垣) 천황(天皇)의 제좌(帝座)가 되고 그 귀(貴)는 더욱 높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영수(英粹)는 천문(天門)에서 난다고 한다. 만약 사룡(巳龍)이면 또한 스스로 발귀(發貴)하나 특히 크게 현달하지 못하고 육수(六秀)만 못하다. 팔장(八將)인 해룡(亥龍)은 아름답고 축미(丑未) 이룡(二龍)은 귀우(鬼牛)의 기(氣)로 비록 미수(微秀)가 있어도 결국 또한 패절(敗絕)한다. 십이음룡(十二陰龍)은 축미사(丑未巳)를 버리고 취하지 않는다. 대개 이러하다. 양룡(陽龍)이 작혈(作穴)한다면 가령 인신(寅申)도 능히 발복(發福)하고 진술(辰戌)

도 능히 발재(發財)하나 좌금선인(左衿仙人)이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진(眞)이 아니고 고허(孤虛)하여서 버렸다. 인신(寅申)은 풍마(風魔)의 살풍(殺風)이 되어 능히 절물(折物)한다. 하물며 기(氣)가 풍(風)을 얻으면 흩어진다. 비록 발복(發福)하여도 그것이 고과(孤寡) 풍질(瘋疾)이라면 어찌하나 진술(辰戌)은 발재(發財)에 멸문(滅門) 절사(絶嗣)하니 또한 참을 수 없는 바이다. 만약 감이(坎離) 이산(二山)이라면 비록 양룡(陽龍)이 되어도 음양(陰陽) 정위(正位)다. 건(乾)은 서북(西北)으로 나가고 이(離)가 그것을 계(繼)하고 곤(坤)은 서남(西南)으로 나가고 감(坎)이 그것을 계(繼)한다. 비록 교극(交極)이라 하나 기(氣)는 다 폐(廢)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룡(二龍)도 능히 발복(發福)한다. 다만 갑자기 발(發)하고 갑자기 폐(廢)하여 두렵게 될 뿐이다. 곤(坤)이라면 또한 하후(下後)에 대발(大發)하는 것이 있는데 오래 되면 또한 대폐(大廢)한다. 그러므로 지리가(地理家)는 음(陰)을 귀(貴)히 여기고 양(陽)을 천(賤)하게 본다. 또 양룡(陽龍)은 성기(性氣)가 완약(緩弱)하고 역미(力微)하여 경(輕)하다. 음룡(陰龍)은 웅(雄)하고 역후(力厚)하여 중(重)하다. 이 음양(陰陽)이 화복(禍福) 응험(應驗)을 달리함이 이와 같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양산(陽山) 행룡(行龍)의 그 체세(體勢)가 수이(秀異) 특달(特達)하고 입수(入首)가 활후(濶厚) 방정(方正)하며 좌우(左右)가 주밀(周密)하고 삼길육수방(三吉六秀方)에 사수(砂水)가 조응(朝應)하여 존엄(尊嚴)하면 또한 지점(指點)할 수 있다. 하나는 외기(外氣)의 이(利)를 거두고 하나는 본생(本生)의 길(吉)함을 거두니 또한 능히 발부귀(發富貴)하고 왕인정(旺人丁)한다. 삼사십년(三四十年) 후(後)에 반드시 길지(吉地)를 달리 구(求)하여서 그것을 대신한다. 그렇

지 않으면 역퇴(力退) 복쇠(福衰)하고 인정(人丁)이 필절(必絶)한다. 진술(辰戌) 이룡(二龍)이라면 하장(下葬)이 마땅하지 못하다.

[진경(震庚)이 모이면 무(武)가 빛나는데 또한 경중(輕重)이 있다.]

진경(震庚) 이룡(二龍)은 무(武)를 주관한다는 말은 전편(前篇)에서 보았다. 그러나 진(震)은 뇌문(雷門)이 되고 천정괘(天定卦)로 염정성(廉貞星)이다. 그러므로 위(威)가 있어 대장(大將)이 출(出)하고 변경(邊境)을 진압(鎮壓)하는 권세가 있다. 만약 경방(庚方)이라도 수장(帥將)의 직(職)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경중(輕重)이 나뉜다. 만약 경룡(庚龍)에 건좌손향(乾坐巽向)이면 문무쌍전(文武雙全)하고 진룡(震龍)에 을좌신향(乙坐辛向)이고 혹 경신(庚辛) 이방(二方)의 산수(山水)가 서로 응(應)하면 또한 소년과갑(少年科甲)하고 병권(兵權)의 직(職)을 장악한다.

[감이(坎離)가 교(交)하여 극(極)하면 어찌 후박(厚薄)이 없겠는가.]

감이(坎離)가 비록 교극(交極)하나 기(氣)가 다 폐(廢)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발부귀(發富貴)함이 있는 것이나 자오임계(子午壬癸)는 모두 양룡(陽龍)이다. 귀인(貴人)이 청기(淸奇)하면 관현(官顯)한다. 임계(壬癸)는 대략 유구(悠久)한 것 같으나 감(坎)은 쉽게 퇴(退)한다. 이(離)는 화성(火性)이 되어 급속하게 발부귀(發富貴)하나 그 퇴(退)함이 신속하다. 모두 반

드시 그렇게 응(應)한다. 달리 가령 곤룡(坤龍)이라면 발달(發達)이 감이(坎離)보다 더욱 속(速)하다. 다만 감이(坎離) 이룡(二龍)은 인재(人才)가 있으나 곤(坤)은 노음(老陰)이 되어 반드시 고과(孤寡)가 출(出)한다. 그러므로 양룡(陽龍)이 곤신(坤申)이라면 좌금선인(左衿仙人)은 용(用)하지 않는 것이다.

[계룡(癸龍)은 감기(坎氣)를 승(乘)여 쓰임이 있고 곤모(坤母)는 묘하여 서쪽에 끼었으니 순(純)하지 않다.]

계(癸)는 본래 양산(陽山)으로 감자(坎子)의 정기(正氣)를 얻으므로 쓰임이 있다. 다시 감좌(坎坐) 향이(向離)하여도 이롭다. 곤(坤) 또한 양산(陽山)이고 태미원(太微垣) 소속이 된다. 그러므로 양(陽)이라서 폐(廢)하지는 않는다. 곤룡(坤龍)은 항음(亢陰)으로 신미(申未)의 사이에 있다. 조금이라도 곡절(曲折)이 있으면 불순(不純)하다. 그러므로 미순(未純)이라 한다.

[대체로 음양(陰陽)은 노항(老亢)이 있고 사묘(四墓)는 장금(藏金)하며 인신(寅申)은 풍마(風魔)의 반열에 붙고 사신(巳申)은 이사(二四)의 치우침에 해당한다.]

가령 건(乾)은 항양(亢陽)이 되고 곤(坤)은 노음(老陰)이 된다. 노양(老陽) 노음(老陰)은 물(物)을 생(生)할 수 없다. 그러므로 퇴처(退處)로 불용(不用)한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항루우괴(亢婁牛鬼) 사금(四金) 암살(暗殺)이 장(藏)한다. 인신(寅申)은 뇌신(雷神) 풍목(風木)으로 진(震) 위(威)가 산기(散氣)한다. 하물며 화(火)의 생(生)은 인(寅)에 있고 풍(風)은 목(木)에 생(生)한다. 오행(五行)은 오직 화성(火性)이 혹렬(酷

烈)하고 목성(木性)은 쉽게 불탄다. 풍(風)은 능히 산기(散氣)하고 절물(折物)한다. 사신(巳申)은 이사(二四)의 치우침에 해당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은 낙서(洛書)로부터 취(取)하여 왔다. 대체로 낙서(洛書)의 수(數) 이사(二四)는 견(肩)이 되고 신(申)은 이(二)의 치우침에 해당하며 사(巳)는 사(四)의 치우침에 해당한다. 이는 기(氣)의 정(正)을 얻지 못하고 기(氣)의 편(偏)을 품(稟)한 것이다. 이 사신(巳申)의 용(龍)은 좌금(左衿)이 그래서 취(取)하지 않는다.

[내려온 생기(生氣)가 머물러 쌓이면 비록 성태(成胎)의 상(象)이 있어도 궁양(窮陽) 박체(剝體)는 결국 고허(孤虛)의 허물을 밝는다.]

위의 말은 사묘(四墓)와 건곤(乾坤) 그리고 인신(寅申) 사신(巳申)의 여러 산(山)은 비록 내(來)하여 생기(生氣)의 힘을 승(乘)하고 입수처(入首處)에 또 사수(四獸)를 얻어 뿔뿔이 모이고 사수(砂水)가 모여 당(堂)에 멈추며 유정(有情)하여 흡사 성태(成胎) 결혈(結穴)하면 또한 능히 발부귀(發富貴)가 일어난다. 그러나 결국 이는 양룡(陽龍)으로 기(氣)가 흩어지고 고허(孤虛)의 허물을 범하여 쉽게 흥(興)하고 쉽게 쇠(衰)할 뿐 아니라 그것은 인정(人丁)에 불리(不利)하여 형화(刑禍) 재질(災疾)은 반드시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룡(巳龍)은 본래 음(陰)에 속하나 양산(陽山)의 속에서 건주는 것은 사룡(巳龍)의 혈(穴)의 재앙이 양산(陽山)과 같기 때문이다. 또 이르기를 육수(六秀)의 속에 오직 사해(巳亥)가 최고가 되니 사(巳) 또한 길룡(吉龍)이다. 좌금선인(左衿仙人)이 사(巳)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흥폐(興廢)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고 그 재(才)

와 덕(德)을 버린 것이 아니다. 축미(丑未) 이산(二山)과 한가지다. 그러므로 하문(下文)에 운운(云云)한다.

[그러므로 지리가(地理家)는 음룡(陰龍)을 귀(貴)하게 여기어 왕상(旺相)을 취(取)한다. 비록 축미사(丑未巳)가 더욱 버리는 바가 되지만 양룡(陽龍)을 천(賤)하게 여기어 고허(孤虛)를 피한다. 가령 인갑신(寅甲申)도 용납(容納)하기 어렵다.]

결토문(結土文)에 지리가(地理家)는 음룡(陰龍)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왕상(旺相)의 기(氣)를 취한다. 그러나 기(氣)가 비록 왕상(旺相)하나 덕(德)이 부족하면 또한 아름답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축미사(丑未巳)가 비록 음산(陰山)이나 더욱 버리는 바가 된다. 비록 귀룡(貴龍)이나 음(陰)을 다 취하지는 않는다. 양룡(陽龍)이 천(賤)하다는 것은 고허(孤虛)의 기(氣)이기 때문이다. 용기(龍氣)가 비록 고허(孤虛)를 범하여도 덕(德)이 있으면 용(用)할 수 있다. 취(取)하지 않는게 아니다. 가령 감이(坎離) 이룡(二龍)의 발귀(發貴)가 그것이다. 만약 이미 양룡(陽龍)이나 수기(秀氣)이고 또 능히 순후(純厚)하지 않으면 쉽게 흥(興)하고 쉽게 쇠(衰)한다. 또 계화절인(啓禍絶人)하니 인갑신(寅甲申) 삼룡(三龍)이 간여하면 발재(發財)가 극속(極速)하니 의당 만약 취(取)한다면 형화(刑禍) 절정(絶丁)한다. 그러므로 용(用)할 수 없다.

[감이(坎離)를 용(用)하면 일절(一節)의 장(長)을 구(求)하고 축미(丑未)를 피(避)하여 사금(四金)의 기(氣)를 폐(廢)한다.]

감이(坎離)는 이양룡(二陽龍)이다. 그것을 취용(取用)하는 것

은 감이(坎離)가 태양(太陽) 태음(太陰)의 지(地)이기 때문이다. 화남(火南) 수북(水北)은 기제(既濟)의 미(美)가 있으니 거기에 하장(下葬)하면 부귀현달(富貴顯達)하고 인재양왕(人財兩旺)한다. 그러므로 또한 그것을 취한다. 만약 축미(丑未)라면 비록 음산(陰山)이라도 결국 암금(暗金)이 되어 상(傷)하는 바로 불용(不用)한다.

[비록 용(龍)은 길흉(吉凶)의 다름이 없다고 해도 또한 오직 기(氣)는 청탁(淸濁)의 다름이 있다. 청(淸)은 귀(貴)를 주관하고 탁(濁)은 천(賤)을 주관함이 상리(常理)이다. 양(陽)은 반드시 흉(凶)하고 음(陰)은 반드시 길(吉)하다. 기(氣)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십사룡(二十四龍)은 길흉(吉凶)의 차이가 없는 곳이다. 상고하고 조사하면 오직 기(氣)에 음양(陰陽) 청탁(淸濁)의 구별이 있다. 그러므로 귀천(貴賤)과 길흉(吉凶)이 거기에 응(應)할 뿐이다.

[그러므로 삼길육수(三吉六秀)는 부귀(富貴)의 추기(樞機)를 주관하고 음양(陰陽) 품배(品配)하여 작용(作用)의 현오(玄奧)가 된다.]

삼길(三吉)은 옛날에는 탐거무(貪巨武)로 하였다. 그러나 구성(九星)의 탐거무(貪巨武)는 천정괘(天定卦)가 있어 취용(取用)한 것이다. 장생(長生) 제왕(帝旺)을 취배(取配)한 것이 있고 삼잡(三匝)을 취용(取用)한 것이 있으며 좌방(坐方)을 취용한 것이 있으니 취용(取用)에 일정한 견해가 없다. 그러므로

그 삼길(三吉)을 말한 것은 구성(九星)의 탐거무(貪巨武)를 말한 것이 아니다. 옥척경(玉尺經)중에 구성(九星)을 언급한 한마디도 없으며 그 삼길(三吉)은 구성(九星)상으로 취함이 없다. 그것은 대개 해(亥)와 경(庚) 진(震)의 삼룡(三龍)이 삼길(三吉)이 됨을 말한 것뿐이다. 삼길(三吉) 육수(六秀)등의 용(龍)은 수기(秀氣)를 모아서 부귀(富貴)의 추기(樞機)가 된다. 그리고 작용(作用)의 향지(向指)는 요컨대 음양(陰陽) 상화(相和)를 얻으면 귀(貴)하게 될 수 있다. 가령 간(艮)이 병(丙)을 보고 태(兌)가 정(丁)을 보며 손(巽)이 신(辛)을 보는 유형으로 음양(陰陽)의 만남이 된다. 경(經)에 이르기를 음양(陰陽)이 상견(相見)하면 복록(福祿)이 영정(永禎)하고 음양(陰陽)이 상괴(相乖)하면 화구(禍咎)가 종문(踵門)한다고 했다. 대체로 이렇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간병손신태정(艮丙巽辛兌丁)은 그 패기오행(卦氣五行)을 용(用)하여서 내산(來山)의 길(吉)함을 거두고 정음정양(淨陰淨陽)으로 납기(納氣)의 수(秀)를 거둔다. 가령 손룡(巽龍)이 신(辛)상에 사수(砂水)가 수리(秀利)하면 신(辛)으로 그것을 거둠을 말한다. 그러나 용(龍)에 사측(斜側)의 차이가 있고 수신(水神)에 내거(來去)의 차이가 있으면 납갑(納甲)도 다 합하지 못함이 있다. 요컨대 거기에 구집(拘執)함이 마땅하지 않다. 또 삼합오행(三合五行)이 있는데 가령 인오술(寅午戌) 간병신(艮丙辛)의 유형이 일기(一氣) 상견(相見)의 뜻을 취(取)하여서 사수(砂水) 생왕휴폐(生旺休廢)의 정(情)을 밝히고 본룡(本龍)의 수(囚)로 돌아가 거둔다. 그러나 수신(水神)과 사(砂)는 또 용가(龍家)의 기(氣) 생왕(生旺)에 다 합할 수 없다. 내(來)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휴수(休囚)로 거(去)하고 함(陷)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높으면 또 삼합오

행(三合五行)을 용(用)하여 향상(向上)으로 그것을 거둔다. 그것을 일러 향가오행(向家五行)이라 한다. 산음오행(山音五行)은 삼합(三合)의 상경(常經)이다. 양공(楊公)은 취용(取用)하여서 용혈(龍穴)의 귀천(貴賤)을 정한다. 향상오행(向上五行)은 양공(楊公)이 취용(取用)하여서 사수(砂水)의 길흉(吉凶)을 피(避)한다. 삼합법(三合法)은 사람에게 있으니 응당 활동(活動)하여 용(用)하고 사법(死法)에 편집(偏執)하면 부당(不當)하다. 지금의 술가(術家)가 괘기(卦氣)를 용(用)하여 취용(取用)하는 것은 납갑(納甲)에 집착하고 변통을 모른다. 비록 흉살(凶殺)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바가 있으니 삼합(三合)을 용(用)하여 향(向)을 취(取)하는 것은 삼합(三合)에 집착하여 변화하지 못한다. 비록 수신(水神)이 반역(反逆)하여도 그것을 피(避)할 줄 모른다. 산형지세(山形地勢)를 따라 입향(立向)함이 있는데 진룡(眞龍)이 있으면 반드시 진안(眞案) 진수(眞水)의 곳이 있다고 말한다. 단지 안(案)이 문(門)에 응(應)하여 방정(方正)함을 취하며 사수(砂水) 용향(龍向)의 합법(合法)여부(與否)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 용사(庸師)의 식견(識見)이 어찌하여 어리석단 말인가.

[이(離)는 임계(壬癸)를 향하고 계(癸)는 남이(南離)를 향한다.]

이납임(離納壬)이니 임향(壬向)을 용(用)하여 병혈(丙穴)에 좌(坐)하면 이는 괘기(卦氣)이다. 그러나 좌정(坐丁) 향계(向癸)하여도 감이(坎離) 상견(相見)이 됨을 잃지 않으며 이산(離山)은 정양(淨陽)의 기(氣)로 또한 계향(癸向)으로 거둔다. 계산(癸山)은 오향(午向)을 용(用)하면 계(癸)는 감(坎)에 배(配)

하여 감계(坎癸)가 동방(同方)이며 이(離)와 상대(相對)하여 또한 감이(坎離) 수화기제(水火既濟)의 의미가 됨을 잃지 않으니 이향(離向)으로 계기(癸氣)를 거두어 귀(貴)를 취(取)한다.

[감(坎)이 정곤(丁坤)을 얻으면 발귀(發貴)하고 병(丙)은 신간(辛艮)을 만나서 영(靈)을 모은다.]

감(坎)은 본래 납계(納癸)한다. 계(癸)와 감(坎)은 동방(同方)이다. 그러므로 계좌(癸坐)를 취(取)하여서 정기(丁氣)를 거두어 감(坎)에 들어도 정기(正氣)다. 감(坎)에 좌(坐)하여 곤(坤)을 차배(借配)하면 감수(坎水)의 장생(長生)은 곤신방(坤申方)에 있기 때문이다. 병간(丙艮)은 본래 동일(同一)한 기(氣)로 생왕(生旺) 상관(相關)한 정배(正配)다. 신(辛)은 술궁(戌宮)에 있다. 삼합(三合) 유배(類配)도 족(足)하여서 영(靈)을 모은다.

[경(庚)은 간진(艮震)이 마땅하고 곤(坤)은 계(癸)를 만나 교(交)한다.]

경(庚)은 진(震)을 희(喜)하고 혈(穴)은 유(酉) 일기(一氣)에 좌(坐)한다. 간(艮)을 차배(借配)하여도 경(庚)이 희(喜)하는 바이니 부귀(富貴)가 병지(並至)한다. 곤(坤)은 본래 을(乙)을 납(納)하나 을향(乙向)을 하지 않는 것은 묘(卯)의 요살(曜殺)과 가깝기 때문이다. 계(癸)를 차배(借配)하여 정(丁)에 좌(坐)하여도 발대귀(發大貴)한다.

[간신해(艮辛亥)는 정룡(丁龍)이 낙허(樂許)하고 병손계(丙巽

癸)는 해기(亥氣)의 필종(必從)이 된다.]

정산행룡(丁山行龍)의 정배(正配)는 유(酉)에 있다. 그러나 유(酉)와 정(丁)은 사궁(四宮)이 서로 떨어져 있다. 비록 괘기(卦氣)가 초합(肖合)하나 세(勢)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태(兌)를 버리고 간(艮)을 쫓는 것은 간(艮) 또한 태(兌)가 희(喜)하기 때문이다. 신(辛)과 해(亥) 이방(二方)은 정(丁)이 미(未)에 있고 해(亥)가 본음(本音)이 되기 때문이다. 태(兌)는 손(巽)이 싫어하는 바가 되나 손(巽)의 신(辛)을 빌려서 배(配)가 된다. 그 미워하는 바를 버리고 그 좋아하는 바를 따르니 정(情)이 불합(不合)함이 없다. 해룡(亥龍)은 본래 미(未)와 배(配)하나 진술축미(辰戌丑未) 사금(四金)의 살(殺)은 모두 교(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未)를 버리고 병(丙)을 취함이 정(正)이 되고 손계(巽癸)는 그 삼합(三合)을 차(借)함이 된다. 모두 능히 귀(貴)하게 된다. 계(癸)를 용(用)함은 향(向)은 할 수 없고 계(癸)에 좌(坐)하고 정(丁)을 향(向)함이 옳다.

[태정(兌丁)은 본래 정배(正配)가 되고 해간(亥艮)을 보면 부귀(富貴)가 더욱 기(奇)하다.]

태정(兌丁)이 상견(相見)하면 태(兌)는 정(丁)을 향(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酉)와 정(丁)은 사궁(四宮)이 상간(相間)하니 체세(體勢)가 기사(欹斜)하고 기관(氣貫)이 불순(不順)하면 또한 길(吉)하게 되지 않는다. 해간(亥艮)을 차배(借配)하면 부귀(富貴)가 수이(殊異)하다. 삼합(三合) 계(癸)를 따라도가(可)하다. 다만 손(巽)은 태(兌)가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좌금선(左衿仙)은 손(巽)을 취하지 않는다. 사(巳)는

태룡(兌龍)에 요기(曜氣) 침해(侵害)를 범하기 때문이다.

[진경(震庚)은 마치 부부(夫婦)같다. 신해(辛亥)를 보면 문무(文武)가 쌍전(雙全)한다.]

진(震)과 경(庚)은 괘기(卦氣)가 상견(相見)하여 배합(配合)이니 따르는 곳을 향지(向指)하면 반드시 대귀(大貴)를 발(發)한다. 만약 신해(辛亥)라면 문무(文武) 상승(相承)하여 병현(並顯)한다. 진경(震庚)은 무(武)를 주관하고 신해(辛亥)는 문장(文章)의 응(應)함을 주관한다. 해(亥)는 선문(先文)하고 후무(後武)한다. 신(辛)은 문무(文武) 전재(全才)한다.

[손(巽)이 신(辛)을 보고 신(辛)이 손(巽)을 보면 둘은 승(承)하여 묘(妙)하게 용(用)한다.]

손신(巽辛)이 상견(相見)하여 호용(互用) 작향(作向)하면 대귀(大貴)하여 소년(少年) 과제(科第)하고 문한(文翰) 청기(淸奇)함을 주관하니 어찌 그리 묘(妙)한가. 그러나 신룡(辛龍)이 묘(卯)에 배(配)하여도 선문(先文) 후무(後武)함을 주관한다. 해(亥)를 차배(借配)하여도 문한(文翰) 관작(官爵)을 주관한다. 만약 손룡(巽龍)에 신(辛)이면 대귀(大貴)하나 간해(艮亥) 이향(二向)을 차배(借配)하면 복력(福力)이 곧 경(輕)하여 비록 귀(貴)하나 불현(不顯)한다.

[간생임(艮生壬)하고 임생병(壬生丙)하면 진실로 상길(上吉)이 된다.]

간(艮)이 신경(辛庚)을 용(用)하면 더욱 귀(貴)하다. 정태(丁兌)를 취(取)하면 또한 마땅하다. 간산(艮山)은 병(丙)을 납괘(納卦)하니 예전에 임산(壬山) 병향(丙向)을 한 것은 대길(大吉)의 조짐으로 극히 부귀(富貴)한 향(向)이다. 그러나 신향(辛向)을 용(用)하면 명치호관(名馳毫管)한다. 경향(庚向)을 용(用)하면 재략(才畧)이 과인(過人)한다. 정향(丁向)을 용(用)하면 녹(祿)과 수(壽)가 가지런하다. 태향(兌向)을 용(用)하면 또 복(福)이 있다. 이 모두 극히全美함이 된다. 간산(艮山)은 또 병신(丙辛)을 집착하여 정하게 되면 부당(不當)하다.

[천시(天市)가 경(庚)을 보면 재(才)가 문무(文武)를 감당하고 소남(少男)이 손(巽)을 만나면 복수(福壽)가 온전하기 어렵다.]

천시(天市) 간산(艮山)이 경향(庚向)을 하면 간(艮)은 본래 생기(生氣) 탐랑(貪狼)의 자리로 생(生)을 주관하나 살(殺)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향(庚向)을 하면 경(庚)은 위담(威胆)이 되어 무략(武畧)이 있음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문무(文武)의 재(才)와 부귀(富貴)를 주관한다. 간(艮)은 소남(少男)이 되고 손(巽)은 간(艮)이 꺼리는 바가 된다. 대개 간토(艮土)는 동남(東南)에서 함(陷)한다. 만약 손향(巽向)을 용(用)하면 비록 발부(發富)를 주관하나 출인(出人)이 무수(無壽)한다. 오직 중방(中房)이 발(發)하고 여인(女人)이 현미(賢美)한데 장녀(長女)가 손(巽)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로 괘기(卦氣)가 마땅한 바로 음양(陰陽)의 상견(相見)이 된다.]

이상 취혈(取穴) 입향(立向)은 아울러 괘기(卦氣)를 따라 작용(作用)한다. 그러나 법에 합(合)하지 않음이 있으니 하나에 집착하여 취재(取裁)하여 용(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산하(各山下)에 다시 차배(借配)의 의미를 취(取)하면 또한 모두 용가(龍家) 본음(本音)과 정성(情性) 일기(一氣)가 상합(相合)하여 그것을 용(用)한다. 가령 사수(砂水)의 길흉(吉凶)이 다르면 의당 정배(正配)를 버리고 차배방(借配方)을 용(用)하여 향상(向上) 소식(消息)에 힘써서 용향(龍向)이 사수(砂水)와 더불어 품정(品定)하여 왕상휴수(旺相休囚)의 마땅함을 얻게 한다. 그리고 편폐(偏廢) 영고(榮枯)를 잃지 않게 하면 묘(妙)함이 된다. 괘기(卦氣)를 용(用)하여 생(生)을 못하면 쌍산(雙山) 삼합오행(三合五行)을 용(用)하여 본산(本山)의 음(音)을 거둔다. 본산(本山)의 음(音)이 합(合)하지 못하면 쌍산(雙山)을 용(用)하여 향상(向上)의 음(音)을 거두고 삼합법(三合法)을 상호(相互) 짐작(斟酌)하면 거의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만약 산(山)에 모산(某山)은 반드시 모(某) 괘기납갑(卦氣納甲)을 얻어 작향(作向)하는 것이라면 진실로 옳은 이치가 아니다. 모(某) 산룡(山龍)은 반드시 모(某) 삼합(三合)을 얻어 작향(作向)하는 것 또한 통변(通變)을 못하니 반드시 용기(龍氣)와 당기(堂氣) 사수(砂水)가 상응(相應)함을 널리 본 뒤에 입향(立向)을 의논하여 가리켜서 모산(某山)의 길(吉)함을 거두고 모산(某山)의 흉(凶)함을 출(出)하면 마야흐로 그 법을 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권(前卷)을 본다.

[용(龍)이 혹은 신살(神殺)이 섞이어 한결같지 않고 사수(砂水)가 숨고 나타나 가지런하지 않으면 예(例)는 납갑(納甲)에 집착하기 어렵고 법(法)은 변통(變通)보다 묘(妙)함이 없다.]

황천(黃泉) 요기(曜氣)는 모두 신살(神殺)이 되어 전후좌우에 섞이어 한결 같지 않게 된다. 사수(砂水)가 전후좌우에 내거(來去)하여 은현(隱見)하니 가지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룡(尋龍)은 용이(容易)하나 입향(立向)은 극히 어렵다. 향지(向指) 일차(一差)는 만산(萬山)의 격(隔)함과 같다. 귀(貴)한 바는 지자(智者)는 활법(活法)에 있고 자기의 사사로움에 집착함이 없다. 만약 괘기(卦氣)에 구애되고 신살(神煞)이 있는 곳을 모르며 쌍산(雙山)에 집착하여 사수(砂水)의 내거(來去)를 모르고 살(煞)을 범(犯)하여 이와 같이 향(向)을 의논하면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지 않음이 드물다. 옛말에 이르기를 오히려 인가(人家)에 천룡(千龍)을 찾아 주는 것은 인간(人間)에 일향(一向)을 세워주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대개 향(向)은 사람에게 재앙이 됨이 심대(甚大)하기 때문이다. 세술(世術)이 쌍산(雙山) 괘기(卦氣)의 법을 용(用)하여 조금이라도 불합(不合)함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산(移山) 색수(塞水)하게 하여서 억지로 이룬다. 입향(立向)은 사수(砂水)를 따르는 것을 모르니 사수(砂水)를 고쳐서 입향(立向)을 따르고자 한다. 이는 지극히 어리석고 또한 심하다. 선성(先聖)이 이르기를 어리석고 스스로 옛 것을 쓰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그 몸에 미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길룡(吉龍)이 있으면 반드시 길수(吉水)가 있어 서로 돕는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되어 막히면 혹은 사람들을 위하여 개착(開鑿) 전색(塡塞)되어도 법에 합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용체(龍體)가 진정(眞正)하면 또 하는 수 없이 개착(開鑿) 전재(剪裁)하여서 취향(就向)한다. 또한 크게 순(純)하고 작은 허물에 불과한 것은 바야흐로 가(可)하다. 이와 같이 만약 대세(大勢)가 불합(不合)하면 또한 응당

그것을 버린다. 만약 용(龍)은 진정(眞正)으로 오나 입수(入首) 체제(體制)가 혹 수습(收拾)에 흠이 있으면 또 하는 수 없이 재전(裁剪)한다. 경(經)에 이르기를 용(龍)이 부족(不足)하여 배(培)하여야 마땅하면 배(培)하고 호(虎)가 여유가 있어 재(裁)하여야 마땅하면 재(裁)한다고 했다. 이 또한 재성(裁成) 보상(輔相)의 마땅함이다. 역(易)에 이르기를 천지(天地)의 도(道)를 재성(裁成)하고 천지(天地)의 의(宜)를 보상(輔相)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천기(天機)의 비밀을 누설할까 두려워 석옥(石屋)의 그윽한 곳에 수함(收函)하니 조화(造化)가 개통(開通)하면 신문(神文)은 자연히 나타난다.]

이 글은 신문통기집(神文通機集)이라 이름한다. 대개 진화산(陳華山)이 지은 것이고 좌금선사(左衿先師)가 그것을 얻었는데 천기(天機)의 비밀을 누설할까 두려워 처주(處州)의 석옥(石屋)터에 수습(收拾)하였다. 스스로 취(取)한 섬주선사(陝州旋師)가 그 글을 얻어서 보니 진지리가(眞地理家)의 기술(奇術)이었다. 좌금선사(左衿先師)의 뜻을 본받았기 때문에 천기(天機)를 누설하지 않으려고 다시 모르는 곳에 감추었다. 또 그 후일(後日)에 천기(天機)를 누설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심사편(審砂篇) 제오(第五)

[사(砂)는 생사(生死)를 밝히고 맥(脉)은 음양(陰陽)을 분별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용(龍)이 생방(生方)으로부터 발원(發源)하여 사지(死地)로 입수(入首)한 것은 이름하여 생룡사혈(生龍死穴)이라 하는데 거기에 하장(下葬)하면 반드시 절(絶)한다. 가령 해방(亥方) 발족(發足)은 본래 목기(木氣) 행룡(行龍)으로 오신유지(午申酉地)에 이르러 입수(入首) 결국(結局)하면 목(木)은 오(午)에 사(死)하고 신(申)에 절(絶)이며 미(未)에 묘(墓)가 되니 생룡사혈(生龍死穴)이라 이름하여 길지(吉地)가 아니다. 또 가령 해룡(亥龍) 기맥(氣脉)이 동남(東南)을 향하여 손사(巽巳) 입수(入首)하고 서남(西南) 동북(東北)의 각(角)에서 혈(穴)을 취(取)한 것 또한 그 생룡(生龍) 발족(發足)하고 사혈(死穴)에 하장(下葬)함이다. 대개 해(亥)가 동남(東南)으로 귀(歸)하면 서남(西南) 동북(東北)은 해기(亥氣)가 불관(不貫)하여 사절지(死絶地)가 된다. 이 법(法)은 정묘(精妙)하다. 시사(時師)가 알지 못하고 사절(死絶)은 향(向)하여 점지(點指)하는 것은 그 빈절(貧絶)의 재앙이 곧 이른다. 용맥(龍脉)의 내(來)함은 음(陰)이 있고 양(陽)이 있다. 양(陽)은 좌(左)로부터 들고 음(陰)은 우(右)로부터 돈다. 그 사절(死絶)을 피(避)하고 그 왕생(旺生)을 향하면 용기(龍氣)가 청화(淸和)하고 결혈(結穴)이 수려(秀麗)하다. 그러므로 우(右)에서 좌(左)로 돌아 입수(入首)한 것은 양룡(陽龍)이 되고 좌(左)에서 우(右)로 돌아 입수(入首)한 것은 음룡(陰龍)이 된다. 음양(陰陽) 이기(二氣) 모두 생왕(生旺)을 얻고 사절(死絶)을 범하지 않는 것이 길(吉)하다. 가령 갑묘(甲卯) 입수(入首)는 목기(木氣)다. 오(午)로 부터 손(巽)에 이르는 것은 음목(陰木)이 되고 건해(乾亥)로 부터 임자(壬子) 계축(癸丑)으로 이르는 것은 양목(陽木)이 된다. 음목(陰木)은 오(午)에서 생(生)하고 양목(陽木)은 해(亥)에서 생(生)한다. 모두 생기(生氣)를 얻어 출신

(出身)한다. 만약 태곤(兌坤) 이방(二方)을 범하여 출신(出身)하면 용(龍)의 발원(發源)이 이미 선절(先絶)하였다. 비록 사수(砂水)가 국(局)을 얻어 호탁(護托)이 완고(完固)하여도 결국 발복을 못한다.

[수(水)가 성문(城門)에 발(發)하고 흐르면 출입(出入)을 자세히 한다.]

용(龍)에는 수(水)가 따른다. 그러므로 수(水)가 발원(發源)하는 지(地)가 곧 용신(龍神)이 출신(出身)하는 지(地)이다. 혹 동쪽을 향하고 혹은 서쪽을 향하면 반드시 그 출(出)하는 곳의 방(方)을 자세히 본다. 만약 유신(流神)이 인간(寅艮)에 출(出)하면 용(龍)은 곤태(坤兌)로부터 내(來)함을 안다. 용(龍)이 곤태(坤兌)로부터 벗어나 내(來)하면 수신(水神)은 반드시 인간(寅艮)을 따라 출(出)함을 안다. 간(艮)으로 진실로 수구(水口)가 된 것은 반드시 태룡(兌龍)이 정서(正西)에 태(胎)를 이룬다. 손룡(巽龍)은 동남(東南)에서 생식(生息)한다. 그러므로 곽씨(郭氏)가 이르기를 입산(入山)하면 수구(水口)를 보고 등혈(登穴)하면 명당(明堂)을 본다고 하였으니 곧 이런 의미다.

[용(龍)이 행(行)하면 내력(來歷)의 인(因)을 살핀다.]

용체(龍體)가 도두(到頭)하여 입구처(入口處)에 귀수(歸收)하면 반드시 그 본룡(本龍)의 내(來)함을 상고한다. 요컨대 어디로부터 발족(發足)하고 경력(經歷)은 어느 방(方)인지를 알아야 한다. 가령 동북(東北) 도두(到頭)에 간인방(艮寅方)을 향

(向)하면 그 용(龍)은 반드시 태궁(兌宮)으로부터 출신(出身)하면 진룡(眞龍)이 된다. 곤신(坤申)과 태(兌)로부터 온 것도 길(吉)하다. 만약 임자(壬子) 계축(癸丑)으로부터 오면 반드시 감상(坎上)에 좌수(左水)가 있어서 좌보(佐輔) 협류(夾流)하여 곤신(坤申)에서 회합(會合)하여 수(水)가 인간(寅艮)을 향(向)하여 나가면 바야흐로 적합하다. 또 가령 손사(巽巳) 출신(出身)에 곤신수(坤申水)가 좌도(左倒)하고 다시 을진수(乙辰水)가 좌보(左輔) 협류(夾流)하여 곤신(坤申)에서 회합(會合)하고 수(水)가 인간(寅艮)을 향(向)하여 나가면 바야흐로 적합하다. 만약 이궁(離宮) 낙두(落頭)하면 수(水)는 반드시 곤신상(坤申上)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龍)이 행(行)한 내력(來歷)의 인(因)은 모름지기 유신상(流神上)으로부터 소식(消息)하면 비로소 그 정(情)을 얻을 수 있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평과지(平坡地)는 천리(千里)에 진룡(眞龍)이 없고 일정(一定)한 혈(穴)이 없으며 사람들도 일정(一定)한 견해가 없다. 가령 일편방사(一片方砂)가 사방팔면(四方八面)에 수습(修習)이 없으면 혈(穴)을 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용형(龍形) 내력(來歷)의 인(因)을 능히 살피면 진실로 밝게 절실함을 본다. 곤신(坤申) 행룡(行龍)에 속하여 출체(出體)하면 혈정(穴情)을 아는 것은 용맥(龍脉)이 동북(東北)을 향하고 곤태(坤兌)의 기(氣)를 승(乘)하여 융결(融結)한다. 손사(巽巳) 행룡(行龍)이 발원(發源)하면 혈정(穴情)을 아는 것은 용맥(龍脉)이 서북(西北)으로 귀(歸)한다.

[영신(迎神)은 분합(分合)의 자(自)를 정(定)한다.]

영신(迎神)은 당국(堂局)에 조회(朝會)하는 수(水)이다. 수

(水)가 내(來)하여 도당(到堂)하면 반드시 발원처(發源處)가 있다. 어느 방(方)에서 분류(分流)하여 내(來)하고 또 어느 방(方)에 회류(會流)하여 거(去)하는지 유신(流神) 분합(分合)의 정(情)을 알면 용맥(龍脉)의 진위(眞僞)가 자연히 나타난다. 만약 수래(水來) 도당(到堂)하여 왼쪽에서 분류(分流)하여 전후(前後)로 교행(交行)하고 오른쪽에는 그 양파(兩派)를 합(合)하여 협류(夾流)함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횡거(橫去)하거나 혹은 직래(直來)하고 앞에 두수(兜收)가 없고 뒤에는 회요(回遶)가 없는 것은 그 용(龍)이 오히려 머물지 못하는 상이다. 비록 사두(砂頭)가 유정(有情)하고 방정(方正)하며 단원(端員)하여도 혈(穴)을 맺지 못한다. 직접 수사(水砂)가 교회(交會)하는 곳에 이르러 용맥(龍脉)은 비로소 모이고 진혈(眞穴)을 융결(融結)한다.

[그러므로 오행(五行)은 팔방(八方)에 품배(品配)하고 만상(萬象)은 다 사세(四勢)에 귀(歸)한다.]

건곤감이간진손태(乾坤坎離艮震巽兌) 팔방(八方)은 각기 나뉘어 오행(五行)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에 예속된다. 정오행(正五行)은 건금(乾金) 감수(坎水) 이화(離火) 태금(兌金) 손진목(巽震木) 간곤토(艮坤土)로 만세(萬世)에 바뀔 수 없는 정기(定氣)다. 그러나 생왕사절(生旺死絕)의 기(氣)로 정(定)하면 목(木)의 생(生)은 해(亥)에 있고 건(乾)을 배(配)하며 금(金)의 생(生)은 사(巳)에 있고 손(巽)을 배(配)하며 수토(水土)의 생(生)은 신(申)에 있고 곤(坤)을 배(配)하며 화(火)의 생(生)은 인(寅)에 있고 간(艮)을 배(配)한다. 갑경병임(甲庚丙壬)은 자오

묘유(子午卯酉)에 짝지어서 오행(五行) 제왕(帝旺)의 향(鄉)의 된다. 이 오행(五行)이 팔방(八方)에 품배(品配)하는 것은 대개 천지(天地) 자연(自然)의 기(氣)가 운행(運行)하여 쉬지 않고 만물(萬物)을 화생(化生)하고 인위(人爲)로 얻어서 품배(品配) 견합(牽合)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인신사해(寅申巳亥)라면 오기(五氣) 발생(發生)의 시작으로 용가(龍家)의 사세(四勢)와 만물(萬物)의 근기(根基)가 된다. 오행(五行)의 왕기(旺氣)는 반드시 인신사해(寅申巳亥)로 부터 발생(發生)하고 충성(充盛)하여 왕(旺)에 이른다. 태금(兌金)의 기(氣)가 그 시생(始生)이 사(巳)에 있는 것과 같다. 청낭경(靑囊經)에 이르기를 지(地)에는 사세(四勢)가 있고 기(氣)는 팔방(八方)을 행(行)한다. 사세(四勢)가 용(龍)에 행(行)하면 팔방(八方)이 시생(施生)한다. 바로 이것을 말한다.

[형(形)을 따라 체(體)를 살피고 상(象)을 보아 용(龍)을 살핀다.]

지(地)의 세(勢)를 따라서 그 용(龍)의 체(體)를 살피고 사(砂)의 상(象)을 보고 그 용(龍)의 기(氣)를 살핀다. 상(象)은 기(氣)로써 형(形)하고 형(形)은 이(理)로써 변(變)하는 것이다. 가령 목(木)의 형(形)은 반드시 직(直)하고 용(聳)한다. 화(火)의 형(形)은 반드시 첨(尖)하고 측(側)한다. 금(金)의 형(形)은 반드시 정원(頂員)하고 각활(脚濶)하다. 토(土)의 형(形)은 반드시 방정(方正)하고 존(尊)하다. 수(水)의 형(形)은 반드시 곡절(曲折)하고 동(動)한다. 그러므로 그 곧고 솟은 것을 보면 그것이 목(木)이 됨을 알고 뽕족하고 기운 것을 보면 그것이 화(火)가 됨을 알며 머리가 둥글고 다리가 넓은 것을

보면 그것이 금(金)이 됨을 안다. 그 수토(水土) 또한 그렇다. 가령 금(金)의 형(形)은 둥글고 넓은 것인데 도 응당 그 용(龍)이 어느 방(方)으로부터 내(來)하는지를 살핀다. 가령 태방(兌方) 발족(發足)하면 금형(金形)이 왕기(旺氣)를 승(乘)하니 진금룡(眞金龍)이 출(出)한다. 만약 이방(離方)으로부터 오면 그 출신(出身)은 이미 화제(火制)를 입는다. 비록 혈(穴)을 맺어도 구원(久遠)하지 못한다. 나머지 용(龍) 모두 이와 같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용(龍)이 형(形)이 있는 것은 기(氣)가 모여서 이룬 것이다. 상(象)이 있는 것은 형(形)이 촉류(觸類)하여 취(取)한 것이다. 가령 토형(土形)은 방(方)하여 옥궤(玉几) 어병(御屏) 금궤(金櫃) 천마(天馬)의 상(象)과 같다. 금형(金形)은 원(員)하여 복종(覆鐘) 복부(覆釜) 반월(半月) 아미(蛾眉)의 유형이다. 목형(木形)은 직(直)하여 옥척(玉尺) 횡금(橫琴) 전축(展軸)의 상(象)이다. 수형(水形)은 곡(曲)하여 생사(生蛇) 무봉(舞鳳) 군대(裙帶) 기번(旂旛)의 상(象)이다. 가령 사상(獅象)의 유형과 금어(金魚)의 굴(屈)은 오기(五氣)의 유행(流行)이 아닌 게 없고 각기 당연한 법칙이 있다. 가령 염동(焰動)에서 화형(火形)을 취(取)하고 포절(包節)에서 목형(木形)을 취했으며 개구(開口)에서 금형(金形)을 취하고 곡절(曲折)에서 수형(水形)을 취하였으며 고각(觚角)에서 토형(土形)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서 취중(取中)하면 그 혈정(穴情)의 진(眞)을 얻는다.

[기(氣)가 좌우(左右)에 장(藏)하면 귀겁(鬼功)의 교횡(交橫)에 분설(分泄)을 기(忌)한다.]

용체(龍體)가 형(形)을 이루고 수신(水神)이 교합(交合)하여 그 지(地)가 비록 이미 혈(穴)을 맺어서 기(氣)가 완고(完固)하여도 복력(福力)의 경중(輕重)은 또 좌우(左右)의 호사(護砂)나 혹은 환포(環抱) 유정(有情)하고 수성(水城) 견고(堅固)함에 있다. 다시 동서(東西)로 직찬(直竄)하지 않고 사중(四重) 오중(五重)으로 절절(節節)이 포과(包裹)한 것은 바야흐로 아름답다. 혹 본신(本身)이 분지(分枝)하여 향전(向前)에 환포(環抱) 고당(顧堂)하면 더욱 묘(妙)하다. 만약 좌우(左右)의 사두(砂頭)가 동서(東西)로 비찬(飛竄)하거나 혹은 본체(本體)에서 추출(抽出)되어 나를 따르는 것이 있으면 요내(腰內)로부터 견주(肩肘)사이에 좌우(左右)로 잡아 끌어 동서(東西)로 도망간 것을 말하는데 귀겁(鬼劫)이라 이름하여 능히 용기(龍氣)의 영령(英靈)을 나눈다. 가령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비록 수교(水交) 사회(砂會)하여도 또한 혈(穴)을 이루지 못한다.

[맥(脉)이 전후(前後)에 승(承)하면 좌응(坐應)의 아래에 흘러져 투루(透漏)할까 두렵다.]

용(龍)이 행(行)하여 입수(入首) 결혈(結穴)하면 반드시 앞에는 안사(案砂)가 있고 뒤에는 좌탁(坐托)이 있어야 기맥(氣脉)이 중방(重方)을 따라 수축(收蓄)이 있다. 만약 좌탁(坐托)에 사(砂)가 없거나 혹은 사(砂)가 있어도 정(頂)이 부서지며 앞에는 응(應)이 있으나 사기(斜欹) 반조(反跳) 불배(不拜)하고 당(堂)이 평정(平正)하지 못하거나 혹은 수래(水來)하여 사사(斜射)한 것은 그 기(氣)가 투루(透漏)하고 모이지 않는다.

[탕(蕩)하여 별배(鰲背)같고 출(出)하여 구두(龜頭)같으면 산

만(散漫)하여 거두기 어려울까 염려 된다. 원(圓)하여 금반(金盤)같고 평(平)하여 양장(仰掌)같으면 고저(高低)를 알고 정(定)하여 취(取)한다.]

평과(平坡)의 용(龍)에 사두(砂頭)가 관대(寬大)하고 가운데가 높으며 사벽(四벽)이 반드시 저(低)하여 별배(鰲背)같이 사원(砂員)하고 사원(四圓) 첨로(尖露)하여 구두(龜頭)같은 것은 용기(龍氣)가 모이지 않는다. 이는 천(扞)할 수 없다. 거기에 천(扞)하면 화절(禍絶)한다. 원(圓)하여 금반(金盤)같이 변폭(邊幅)이 높고 가운데가 저(低)하여 평(平)하여 양장(仰掌)같고 앞은 낮고 뒤는 높다. 이런 형체(形體)를 이루고 만약 용기(龍氣)가 분명히 적실하여 내력(來歷)을 알면 마야흐로 하수(下手)할 수 있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별배(鰲背)의 사(砂)는 각(角)이 불가(不可)하여 기(氣)가 흩어져 거두기 어렵다. 구두(龜頭)는 사두(砂頭)가 더욱 영(靈)하여 기(氣)가 장축(藏蓄)을 못한다. 둘 모두 혈(穴)을 맺지 못한다. 금반하엽(金盤荷葉)은 옆은 높고 가운데는 낮아 수(水)가 가운데에 있으니 또한 반드시 출처(出處)가 있어 점혈(點穴)은 응당 양월형(仰月形)같다. 각(角)두수(兜收)를 보아 가운데를 취(取)한다. 양장(仰掌) 평과(平坡)은 반드시 장와(掌窩)가 있으니 와혈(窩穴)을 알아 취하여 정한다. 양공(楊公)의 정와(掌窩)를 안다는 말은 바로 이 법(法)이다.

[사정(四正) 사유(四維)의 거래(去來)로 인(因)하여 지분(枝分) 지합(枝合)의 취향(聚向)을 구(究)한다.]

자오묘유(子午卯酉) 사정(四正)의 방(方)에 수(水)가 교류(交流)하면 인신사해(寅申巳亥)가 실지(實地)가 된다. 또 그 수(水)의 출입(出入)을 보아서 향(向)을 살핀다. 용(龍)의 결혈(結穴)이 사생지(四生地)인 것은 대부분 생룡(生龍)으로 부터 발(發)하여 왕혈(旺穴)을 승(乘)한다. 인신사해(寅申巳亥) 사유(四維)의 방(方)에 수(水)가 교류(交流)하면 그 자오묘유(子午卯酉)가 식지(寔地)가 된다. 사정(四正)의 지(地)인 것은 대부분 왕룡(旺龍)으로부터 역행(逆行)하여 혈(穴)을 생성(生成)한다. 또 모름지기 수신(水神)으로 분별하고 그 수분(水分) 수합(水合)과 지수(枝水)의 출입(出入)을 보면 마야흐로 나타난다. 만약 수(水)가 분지(分枝)하지 못하고 소분(小分) 소합(小合)을 작(作)하면 기(氣)가 관(寬)하여 불청(不清)한 것 또한 맺지 못한다.

[중횡(縱橫)으로 직(織)하는 것 같으면 권련(眷戀)의 정(情)을 알고 회택(滙澤)하여 호(湖) 같으면 조종(朝宗)의 세(勢)를 분별한다.]

입수(入首) 결혈처(結穴處)의 전후좌우(前後左右)에 만약 수(水)가 삼횡사직(三橫四直)으로 굴곡(屈曲) 교류(交流)하여 비단을 짜는 것 같으면 이는 사(砂)가 수(水)를 연(戀)하고 수(水)가 사(砂)를 연(戀)하여 부처(夫妻)가 상견(相見)하여 보내는 것을 참지 못함과 같다. 중수(衆水)가 도당(到堂)하고 흑좌우(左右)로 향(向)하여 취회(聚滙)하여 호(湖)같으면 수교(水交) 사회(砂會)함을 안다. 그러나 또 요컨대 수신(水神)이 어느 방(方)을 향하여 나가고 조회(朝會)하거나 혹은 대강(大江)으로 나가거나 혹은 대호(大湖)로 나가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변방(辨方) 정위(定位)하여서 용혈(龍穴)의 미악(美惡)을 밝힌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수래(水來) 도당(到堂)하여 모이면 반드시 설(泄)이 있으니 수(水)의 모인 곳을 보면 용맥(龍脉)의 행지(行止)와 수(水)의 모인 곳인 곳을 보면 용맥(龍脉)의 행지(行止)와 수(水)의 모인 곳을 볼 수 있으니 결혈(結穴)의 의착(倚著)을 볼 수 있다. 용(龍)의 결혈(結穴)은 반드시 수신(水神)이 흘러가는 일변(一邊)을 향(向)한다. 대개 수신(水神)이 합류(合流)하여 가는 지(地)는 자웅(雌雄)이 교구(交媾)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혈(穴)은 반드시 기귀(倚貴)하다.

[구곡(九曲)으로 명당(明堂)에 들면 석숭(石崇)같이 부귀(富貴)하고 일홍(一泓)이 화살을 쏘는 것 같으면 백도(伯道)같이 고한(孤寒)하다.]

수(水)가 굽으면 재록(財祿)이 모이고 굴절(屈折)하여 명당(明堂)에 조입(朝入)하면 부귀쌍전(富貴雙全)한다. 수(水)가 화살을 쏘는 것 같이 곧게 명당(明堂)을 나가면 빈천(貧賤)할 뿐 아니라 또 고절(孤絕) 요망(夭亡)한다.

[그러므로 유신(流神)이 합법(合法)한 것은 용체(龍體)가 바야흐로 진(眞)이다.]

이는 상문(上文)을 총결(總結)하여 수(水)의 내거(來去)가 합법(合法)하면 용맥(龍脉) 결혈(結穴)이 바야흐로 진정(眞正)을 나타내고 허가(虛假)가 없음을 말한다. 만약 사두(砂頭)가 단정하고 응탁(應托)이 존엄(尊嚴)하며 좌우(左右) 호종(護從)이

용잡(用匝)하면 비록 용맥(龍脉)이 가관(可觀)이라 하나 수신(水神) 거래(去來)가 하나라도 법에 불합(不合)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허가(虛假)가 된다.

[대구(戴九) 이일(履一)이면 천지(天地)之中에 수(數)가 존귀하게 거(居)하고 봉무(鳳舞) 용비(龍飛)하면 건손(乾巽)의 음양(陰陽)이 교태(交泰)한다.]

일(一)은 양(陽)의 시(始)를 나타내고 구(九)는 양(陽)의 극(極)이다. 오(五)는 양(陽)의 중(中)이고 토(土)에 속하며 용체(龍體)가 방정(方正)하여 중(中)에 거(居)하고 좌하(坐下)에 장사(長砂)가 면(面)을 열게 되며 횡수(橫水) 사도(四道)와 직수(直水) 사도(四道)에 통(通)한다. 구방(九方)에 사(砂)를 나열하고 천지의 정기(正氣)를 얻는다. 양강(陽剛) 중정(中正)은 제왕(帝王) 건극(建極)의 지(地)가 되어 명왕(明王)을 산(産)하고 현상(賢相)을 육(育)하니 보통으로 견줄 수 있는 지(地)가 아니다. 이는 대개 감이(坎離)가 교구(交媾)하고 진태(震兌)가 합기(合氣)하여 이룬 것이다. 만약 해(亥)가 생(生)한 행룡(行龍)이 천문(天門)으로부터 출(出)하여 날 듯이 용약(踊躍)하고 손상(巽上)의 행룡(行龍)이 지호(地戶)로부터 나와 춤추듯 사(砂)를 영양(迎揚)하면 해사(亥巳)가 교합(交合)하고 조대(朝對)가 유정(有情)하며 좌우(左右) 송종(送從)이 합법(合法)이면 건양(乾陽)과 손음(巽陰)의 이기(二氣)가 교태(交泰)하고 합하여 받아서 널리 베풀며 펼치니 명왕(名王) 성제(聖帝)가 민(民)의 지(地)에 임(臨)하여 현재(賢才)를 모으고 문무(文武)를 모으게 된다. 이 지(地)는 원래 쉽게 얻지 못한다. 대구(戴九) 이일(履一)은 자오(子午)를 말한다.

[비록 삼관(三關) 삼협(三峽)의 낙(落)이 있어도 좌견(左牽) 우설(右설)의 비(非)를 더욱 방(防)해야 한다.]

용맥(龍脉)이 출신(出身)하여 앞에 관쇄(關鎖)가 없으면 행(行)하나 머물지 않는다. 기(氣)가 토(土)를 따라 행(行)하는데 사(砂)가 전협(轉峽)을 못하면 기(氣)가 흩어지고 거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룡(生龍) 진지(眞地)의 입수(入首) 도두(到頭) 좌우(左右)에는 반드시 호송(護送)이 있어 사두(砂頭)가 앞을 향(向)하고 그 가운데를 공신(拱辰)한다. 천전(穿田) 도수(渡水) 처(處)에 이르면 그 나온 몸이 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하여 도두(到頭)의 좌우(左右)에 동서(東西)로 환포(環抱)함이 절하듯 춤추듯 하면 기장(氣藏)이 완고(完固)하고 누설(漏洩)이 없으니 진실로 대지(大地)다. 용(龍)의 입수(入首)중에 혹 장사(長砂)가 되어 삼리(三里) 사리(四里)를 곡절(曲折)하여 내(來)하면 자연히 관협(關峽)이 있어 기(氣)가 곡각(曲角)에 조애(阻碍)될까 두렵다. 다시 절처(折處)에 분설(分洩)이 두려운데 입수(入首)의 기(氣)가 도리어 경(輕)하면 결혈(結穴) 또한 박(薄)하다. 그러므로 곡절(曲折)사이에 지수(枝水)가 있어 경계지어 보내고 기(氣)가 맥(脉)을 따라 행(行)하게 하고 도두(到頭)에 막아 거두면 바야흐로 진(眞)이다. 또 진사(眞砂)가 있어 행룡(行龍)이 삼사리(三四里) 오륙리(五六里)에 수면(水面)을 따라 출(出)한 것을 방사(方砂)가 있어 가운데에 거(居)한다. 삼오백묘(三五百畝) 칠팔백묘(七八百畝)에 지(地)를 이룬 것은 용맥(龍脉)의 내력(來歷)이 진실로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에 있음을 상고할 수 있으며 영기(英氣)가 모인 곳은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변별(辨別)은 반드시 요고(腰股)의 아래에 미수(微水)가 있어 천파(穿破)하여 관기(關氣) 절맥(節

脉)하고 도협(渡峽)이 좌(左)에 있고 우(右)에 있게 하여 곡절(曲折) 활동(活動)하여 온 입수처(入首處)에 혹 좌우(左右) 견박수(肩膊水)가 삽계(插界)함이 명백하면 그 기(氣)는 마야흐로 모인다. 그렇지 않으면 용맥(龍脉)이 비록 내(來)하여도 기(氣)가 흩어지고 거두지 못하여 지점(指點)하기 어렵다. 삼리(三里) 사리(四里)의 내룡(來龍)이 혹 곡절(曲折)한 장사(長砂)를 이루거나 혹은 직목(直木) 장사(長砂) 도두(到頭)가 되면 그 중에 요(腰)와 견주(肩肘)의 아래에 만약 여사(餘砂)가 있어 분비(分臂)하여 출(出)하면 모름지기 향전(向前)에 본신(本身)의 호종(護從)을 만들어 배무(拜舞)하여 조당(朝堂)하면 마야흐로 가(可)하다. 만약 동견서설(東牽西설)하여 각자 본사(本砂)에 분도(分逃)하고 대략 정의(情意)가 없는 것은 도리어 내(來)하여 나의 기(氣)를 분설(分洩)하니 이른바 영령(英靈)을 비산(飛散)한다는 것이 이 것이다.

[생룡(生龍)이 발족(發足)하면 천강(天罡)을 범하지 말고 왕처(旺處)의 출신(出身)은 사절(死絶)을 만나지 마라.]

인신사해(寅申巳亥)는 장생(長生)이 되고 축진술미(丑辰戌未)는 천강(天罡)이 된다. 대개 천강(天罡)이 임(臨)하는 자리는 녹마(祿馬)가 이르지 않고 귀인(貴人)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룡(生龍) 출신(出身)이 진술축미(辰戌丑未) 천강(天罡)을 떠고 온 것은 모두 다른 자리만 못하다. 가령 인간룡(寅艮龍) 출맥(出脉) 돌아서 축미(丑未)를 지나 행(行)하면 이는 천강(天罡)을 범한다. 자오묘유(子午卯酉)는 제왕(帝旺)이 되고 인신사해(寅申巳亥)는 사절(死絶)이 된다. 왕룡(旺龍) 출신(出身)이 인신사해(寅申巳亥)로 돈 것은 또한 결지(結地)를

못한다. 가령 묘목룡(卯木龍)이 돌아서 오미산방(午未山方) 입수(入首)에 이르면 이는 목(木)의 사(死)는 오(午)에 있고 절(絶)은 신(申)에 있으니 묘룡(卯龍)이 사절(死絶)을 받는다. 이것은 천지(天地) 음양(陰陽)의 묘리(妙理)이고 오행(五行)의 진기(眞機)이며 지리가(地理家)가 그 도(道)에 불명(不明)하면 용혈(龍穴)의 생망휴수(生亡休囚) 또한 알지 못하니 어찌 길흉(吉凶) 휴구(休咎)의 지(地)를 증험하겠는가.

서씨(徐氏)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인간룡(寅艮龍)이 돌아 축(丑)을 지나 행(行)하고 손사룡(巽巳龍)이 돌아 진(辰)을 지나 행(行)하며 곤신룡(坤申龍)이 돌아 미(未)를 지나 행(行)하고 건해룡(乾亥龍)이 돌아 술(戌)을 지나면 이 모두 생룡(生龍)이 천강(天罡)을 범하게 된다. 갑묘행룡(甲卯行龍)이 돌아 오미신방(午未申方)에 결국(結局)하고 병오룡(丙午龍)이 돌아 유술해방(酉戌亥方)을 지나 결국(結局)하며 경유룡(庚酉龍)이 돌아 자축인방(子丑寅方)에 결국(結局)하고 임자룡(壬子龍)이 돌아 묘진사방(卯辰巳方)에 결국(結局)하면 이 모두 왕(旺)이 사절(死絶)을 만남이 된다.

[용대(用大) 종소(從小)하면 상운봉월(祥雲捧月)이고 소(小)로써 대(大)를 보(輔)하면 군안빈홍(群雁賓鴻)이다.]

군사(群砂)가 모두 크면 작은 것이 존귀하게 된다. 용(龍)이 내(來)하여 도두(到頭)하고 삼사묘(三四畝)의 지면(地面)을 결성(結成)하여 혹 원(員)하고 혹은 방(方)하면 옆에 대사(大砂)가 있어 겹겹으로 사귀어 두루고 절절(節節) 포승(包承)하여 마치 상운봉월(祥雲捧月)의 형상같다. 군사(群砂)가 모두 작으면 그 큰 것을 취(取)한다. 용(龍)이 내(來)하여 입수(入首)하

고 일이백묘(一二白畝)의 지면(地面)을 결성(結成)하여 혹 원(員)하고 혹은 방(方)하면 옆으로 소사(小砂)가 나열되어 성(星)같고 월(月)같다. 팔과 어깨에 날개를 열어 나르는 듯 춤추는 듯 하면 가장 사랑스럽다. 사두(砂頭)가 향내(向內)하고 조당(朝堂) 고국(顧局)하여 마치 군안(群雁) 빈홍(賓鴻)의 형세와 같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결혈(結穴)의 용(龍)이 특대(特大)하고 중사(衆砂)가 특소(特小)한 것은 반드시 소사(小砂)의 밖에 또 대사(大砂)가 있어 혹 장(長)하고 혹은 방(方)하여 좌우전후(左右前後)의 밖에 관란(關闌)하고 포승(包承)한다. 군사(群砂)가 내(內)에 있으면 국내(局內)의 사수(砂水)는 귀속(歸束)이 불치(不致)하고 산란(散亂) 분류(分流)하여 누설(漏泄)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砂)가 비록 정제(整齊)하여도 수(水)가 흩어져 능히 당국(堂局)의 기(氣)를 설기시킨다. 그 결혈(結穴) 또한 아름답지 못하다. 만약 중사(中砂)가 세소(細小)하고 호사(護砂)가 큰 것은 그 수(水)가 자연히 막아 거둠이 있어 비록 본신(本身)이 전미(轉微)하여도 그 힘은 도리어 중(重)하다.

[조출세(粗出細)하고 세출조(細出粗)하면 형(形)이 학슬(鶴膝)같고 횡취곡(橫取曲)하고 곡취횡(曲取橫)하면 노(蓂)함이 노화(蘆花)같다.]

조(粗)한 중에 세(細)가 나오고 세(細)한데서 조(粗)가 나오면 형(形)이 마치 학슬(鶴膝)같다. 삼관(三關) 사쇄(四鎖)로 입로(入路)하여 내(來)한 것은 그 기(氣)가 청기(淸奇)하다. 횡(橫)으로 내(來)하여 곡(曲)으로 전(展)하고 곡(曲)으로 내(來)하여 횡(橫)으로 전(展)하여 삼절(三折) 사노(四裊)하면 형(形)

이 흡사 노화(蘆花)같이 입로(入路)하여 이른 것은 그 맥(脉)이 활동(活動)하면 용맥(龍脉)이 진(眞)이고 혈정(穴情)이 선(善)하며 복력(福力)이 크니 부귀가 원(遠)하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삼관(三關) 사세(四鎖)는 흡사 단부단(斷不斷)하여 학슬(鶴膝)과 같다. 삼절(三折) 사노(四裊)는 흡사 내불래(來不來)하여 노화(蘆花)같다. 이것은 내정(來情)의 선(善)함과 용맥(龍脉)의 활(活)함과 기행(氣行)의 청(淸)함을 말한다. 모두 여기서 볼 수 있다. 좌금선사(左衿先師)는 홀로 그것을 취(取)하여 묘발(妙發)하였다. 양(楊) 증(曾)이 도달하지 못한 곳이다.

[목(木)이 충천(衝天)하고 포절(包節)하면 생처(生處)가 바야흐로 체제(體制)를 이룬다.]

목성형(木星形)은 장직(長直)하고 수(瘦)하다. 만약 포절(包節)이 없으면 사목(死木)이 되어 용처(用處)가 없으니 반드시 수합금(水合襟)을 얻고 좌우(左右)로 계수(界水)가 있어 견박(肩膊)의 내(內)에 삽입(插入)하여 문면(門面)에 계출(界出)하여야 바야흐로 체제(體制)를 이룬다.

[화(火)는 염상(焰上)하는데 염기(焰起)하면 동처(動處)에 정미(精微)함이 나타난다.]

화성(火星)이 형(形)을 이루면 두첨(頭尖)하고 각활(脚濶)하다. 만약 화염(火燄)이 부동(不動)하면 이름하여 조천화(照天火)인데 용처(用處)가 없으니 반드시 첨사(尖斜)가 향(向)하는 곳을 얻어 계수(界水)가 일변(一邊)으로 삽과(插過)하여 첨두

(尖頭)가 귀당(歸堂)하게 하여야 마야흐로 입혈(立穴)할 수 있다.

[면(面)이 방정(方正)하고 대(大)하면 괘각(掛角)에 정(情)이 유(留)한다.]

토성(土星)은 방정(方正)하여 그 정(情)이 각(角)에 있어 계수(界水)가 기(氣)를 거둔다. 그러므로 유정(留情) 괘각(掛角)이라 한다. 만약 금순(金唇)을 토출(吐出)하면 생기(生氣)가 완전하다. 요공(寥公)이 말한 토각류금(土角流金)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토(土)는 오기(五氣)의 존중(尊中)에 입(立)하여 불기(不倚)하니 그 정성(正性)이다. 옆으로 계수(界水)가 분(分)하면 입혈(立穴)은 중(中)에 있고 자오묘유(子午卯酉) 사정(四正)의 기(氣)를 통수(通受)하니 감이진태(坎離震兌)의 국(局)이 되어 더욱 묘(妙)하다. 다만 국(局) 정심(正心)에서 혈(穴)을 취(取)하면 마땅하지 않다. 속(俗)에 이르기를 중궁지(中宮地)는 유(謬)가 심하다 했다. 오직 제황(帝皇)의 도(都)가 이와 같이 있다. 이와 같이 취용(取用)하는 것은택중(宅中)을 취(取)하여서 천하(天下)를 다스리고 좌감(坐坎)면이(面離)의 뜻이며 일월(日月) 묘유(卯酉)의 문(門)을 열고 사해(四海)가 문명(文明)하다.

[각활(脚濶)하고 두원(頭圓)하면 개금(開金) 취혈(取穴)한다.]

금성(金星)의 형체(形體)는 각(脚)이 넓고 두(頭)가 둥그니

모름지기 개구(開口) 취혈(取穴)한다. 그러나 좌식(坐寔)을 요(要)한다. 만약 좌하(坐下)가 불식(不寔)하면 이름하여 현종금(懸鐘金)이라 한다. 그 기(氣)는 변(邊)에 있으니 마치 종(鍾)의 소리가 응함은 변(邊)에 있는 것과 같다.

[비록 사통(四通) 팔달(八達)의 구(區)라도 반드시 복원(伏元) 귀기(歸氣)의 소(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상문(上文)을 모두 말한 것이다. 사수(砂水)가 비록 사통팔달(四通八達)로 분지(分枝) 산포(散布)하여 거(去)하나 그 도두(到頭)는 반드시 수습처(收拾處)가 있어야 복원(伏元) 귀기(歸氣)의 근(根)이 된다.

녀씨(賴氏)가 이르기를 용체(龍體) 도두(到頭)가 동서(東西) 전후(前後) 옆에 지각(枝脚)을 나누어 사통팔달(四通八達)하여 거(去)하여 수습(收拾)이 어려울 것 같으나 입수처(入首處)에 이르러 그 중사(衆砂)가 분출(分出)한 것은 모두 요컨대 하나 하나 회두(回頭) 고공(顧拱)하거나 혹은 용호(龍虎)가 좌우(左右)로 포귀(抱歸)하게 되거나 혹은 안사(案砂)가 부복(俯伏)하여 앞에 있게 되거나 혹은 난사(攔砂)가 수구(水口)를 회색(回塞)하게 되어야 한다. 그 처음이 비록 사통팔달(四通八達)이라도 만약 본방(本方)과 무정(無情)하면 도두(到頭) 결혈처(結穴處)에 이르러 하나하나 헛되이 거두지 않고 용신(用神)을 만들면 복강(伏降)의 기(氣)가 되고 당국(堂局)에 귀속(歸束)된다. 중수(衆水)가 회류(會流)하여 도당(到堂)함이 전후(前後)에 있거나 혹은 좌(左)에 혹은 우(右)에 있고 동천(東穿) 서도(西渡)하며 남래(南來) 북거(北去)하여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수습(收拾)된 곳이 없는 것 같으나 그 모두 맺어 가는

곳에 중수(衆水)가 무리로 모여 합류(合流)하고 혹 문(門)의 구(口)에 중사(重砂)가 아래에 관색(關塞)한 것이 그 합(合)은 보이나 그 거(去)함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 또한 복원(伏元) 귀기(歸氣)의 근(根)으로 신기(神氣)가 있고 융결(融結) 혈정(穴情)이 비로소 크다.

[내기(來氣)가 단(短)하면 모름지기 요절(腰截)을 방(防)해야 하고 진기(進氣)가 장(長)하면 직충(直衝)이 더욱 두렵다.]

사두(砂頭)가 단절(頭折)된 곳은 좌후(坐後)에 횡수(橫水)가 있어 끊으면 안 된다. 머문 내맥(來脉)은 기(氣)를 곡절(曲折)하게 한다. 대개 맥(脉)이 단(短)하여 곡절(曲折)하면 기(氣)는 도리어 급질(急疾)하여 불화(不和)한다. 그러므로 사(砂)가 단절(短折)한 것은 요절(腰截) 곡절(曲折)함을 두려워한다. 사두(砂頭)가 내(來)하여 만약 삼사리(三四里) 혹은 오륙리(五六里)로 장(長)한 것은 중간에 곡절(曲折) 전관(轉關) 박환(博換) 과협(過峽)이 혹 삼중(三重) 사중(四重)을 얻어야 한다. 가령 해기(亥氣)가 간(艮)에 들고 간기(艮氣)가 해(亥)로 돌아 오고 해룡(亥龍)이 진(震)에 들고 진기(震氣)가 해(亥)로 돌아 오면 직충(直衝)이 아니다. 그러나 해룡(亥龍)이 간(艮)으로 향하고 간상(艮上)에 또 고취(鼓吹) 두격(兜激)을 얻어 해(亥)로 돌면 간궁(艮宮)은 산류(散流)하여 각기 문면(門面)을 세워 서 그 영령(英靈)을 분설(分洩)하게 되지 않고 다시 해(亥)로 돌아 거(去)하게 하니 묘(妙)하다. 만약 간궁(艮宮)에 수(水)를 막아 거둠이 없이 그것을 맡기고 스스로 거(去)하여 각기 당국(堂局)을 세우면 그것은 해(亥)가 간(艮)에 들어 화국(火局)으로 결혈(結穴)한다. 해(亥)가 묘(卯)에 들고 묘궁(卯宮)에 수

(水)의 두격(兜激)이 없고 임의로 스스로 거(去)하여 묘상(卯上)에 당국(堂局)을 이루면 이는 해(亥)가 묘(卯)에 들어 왕방(旺方) 목국(木局)으로 결혈(結穴)한다. 만약 간(艮)을 얻어 해(亥)로 들고 해(亥)가 간(艮)에 들며 간(艮)은 또 해(亥)에 들면 일관(一關) 삼출(三出)이니 본룡(本龍) 출신(出身)의 결지(結地)를 만든다. 이로써 해룡(亥龍)이 해혈(亥穴)에 드니 발복(發福)이 먼원(綿遠)하고 부귀쌍전(富貴雙全)하며 백자천손(百子千孫)이고 끝이 없다. 경(經)에 이르기를 용(龍)이 내(來)하여 용(龍)의 내기(來氣)를 벗어나지 않고 삼협(三峽) 삼관(三關)하여 원복원(元復元)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다.

[그러므로 박환(博換) 전관(轉關)은 용(龍)이 행(行)하는 체세(體勢)의 진(眞)이며 좌관(左關) 우계(右界)는 입수(入首) 성태(成胎)의 요(要)가 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위의 두 문구는 상문(上文)을 결(結)한다. 용행(龍行) 체세(體勢)는 모름지기 박환(博換)의 의(意)를 요(要)한다. 아래의 두 문구는 입수(入首) 결혈(結穴)의 체단(體段)을 발명(發明)한다. 대체로 사두(砂頭)가 도국(到局)하여 장차 결혈처(結穴處)에 만약 두평(頭平) 액활(額濶)하고 혹 좌박(左薄) 우후(右厚)하거나 혹은 좌후(左厚) 우박(右薄)하여 맥기(脉氣)가 충(衝)하여 도두(到頭)에 이르러 동(東)에 있고 서(西)에 있거나 혹은 좌우(左右)에 있어 일변(一邊)에 의(倚)하면 어떻게 그 기(氣)를 막아 거두어 혈(穴)을 취(取)하겠는가. 그러므로 용맥(龍脉) 입수(入首)는 반드시 지수(枝水) 관계(關界)를 얻어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바야흐로 혈체(穴體)를 이룬다. 관(關)이라는 것은 그 기(氣)를 관

(關)하여 달아나지 않게 하고 계(界)라는 것은 그 기(氣)를 계(界)하여 취국(就局)한다. 관수(關水)는 장(長)하고 곡(曲)하며 계수(界水)는 단(短)하고 직(直)하다.

[일편(一片) 만피(蠻皮)에는 장차 어찌 증(證)을 취(取)하고 운상(雲翔) 무주(霧走)에는 어느 곳에 두수(兜收)하는가.]

이 말은 도두(到頭) 입혈처(立穴處)의 좌우(左右)에 관계수(關界水)가 없이 단지 일편(一片) 만피(蠻皮)로 그 기(氣)가 모이고 모이지 않는 증거가 없으며 비록 멈추어도 또 그 귀향(歸向)의 정국(定局)을 분별할 수 없음을 말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평양지(平洋地)와 산룡국(山龍局)은 기(氣)를 취하고 혈(穴)을 증험하기가 가장 어렵다. 대개 산룡(山龍) 낙두(落頭)에는 대소(大小)의 분수(分水)가 있어서 그 입수(入首)의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다. 대소(大小)의 합수(合水)가 있으면 그 기(氣)가 멈춘 정현(精玄)을 상고할 수 있다. 개자(个字)는 출맥(出脉)의 유(由)를 정하고 구침(毬簷)은 주결(住結)의 근(根)을 상세히 한다. 선익(蟬翼)은 그 곁에서 계(界)하고 덕수(德水)가 그 곁에서 음(蔭)한다. 용준(龍蹲) 호거(虎踞)하고 안(案)이 면당(面堂)을 버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증거를 취하여 밝게 가리킬 수 있다. 만약 그 평사(平砂) 일편(一片)이 불양(不仰) 불부(不俯)하고 만약 관계(關界)가 없다면 어떻게 증거를 취하겠는가. 용행(龍行) 체세(體勢)가 운비(雲飛) 무주(霧走)한다면 비록 관협(關峽)이 있어도 앞에 사두(砂頭) 회포(回抱)가 없고 또 좌우(左右)에 수래(水來) 교합(交合)을 얻지 못하면 용맥(龍脉)에 수습처(收拾處)가 나타나지 않으니 맥(脉)이 이미 거두지 못하였으면 기(氣)는 반드시

시 모이지 않는다.

심향체용편 납수소수(審向體用篇納水迨水)

[산(山)은 체(體)가 되고 수(水)는 용(用)이 되어 일기(一氣)가 이루어진다. 용(用)은 양(陽)에 속(屬)하고 체(體)는 음(陰)에 속하여 동정(動靜)이 나타난다.]

오행(五行)의 기(氣)는 지중(地中)을 행(行)하니 산(山)이 있으면 기(氣)가 있으며 산(山)은 토(土)의 맥락(脉絡)이다. 쌓여서 산(山)을 이루면 오기(五氣)가 승(升)하여 체(體)를 이룬다. 그러므로 산(山)은 기(氣)의 체(體)라고 한다. 기(氣)가 행(行)하면 수(水)가 따른다. 그러므로 수(水)는 반드시 토(土)를 따르며 출맥(出脉)은 수(水)를 따라 멈추고 수(水)는 맥(脉)을 따라 행(行)한다. 그러므로 수(水)는 기(氣)의 용(用)이다. 토(土)는 정(靜)하여 부동(不動)하니 음(陰)에 속하고 수(水)는 동(動)하여 유통(流通)하니 양(陽)에 속한다. 동(動)은 용(用)이 되고 정(靜)은 체(體)가 된다. 이 음양의 구별과 체용(體用)의 나뉘는 거기서 볼 수 있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산(山)은 체(體)가 되므로 이가(理家)는 반드시 먼저 용체(龍體)의 내(來)함을 취(取)하여서 그 기(氣)의 모인 곳을 본다. 더불어 그 도두처(到頭處)에는 그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을 살펴서 그 용(龍)이 멈춘 곳을 살핀다. 용맥(龍脉)이 이르고 수(水)가 오지 않으면 체(體)는 있으나 용(用)이 없으니 진룡(眞龍)이 아니다. 지리가(地理家)는 높은 것으로 음(陰)을 삼고 낮은 것으로 양(陽)을 삼으며 준

뽕(峻逼)은 음(陰)이 되고 평탄(平坦)은 양(陽)이 되며 복(覆)은 음(陰)이 되고 앙(仰)은 양(陽)이 되며 첨(尖)이 있으면 음(陰)이 되고 와(窩)가 있으면 양(陽)이 된다. 이로써 정(靜)은 음(陰)이 되고 동(動)은 양(陽)이 되는 것으로 수(水)의 체질(體質)과 정성(情性)을 말한다.

[그러므로 음양(陰陽) 품배(品配)에 생왕(生旺)을 얻으면 부귀쌍전(富貴雙全)한다.]

산(山)은 음(陰)이 되고 수(水)는 양(陽)이 되며 산수(山水)로 오행(五行)의 기(氣)를 정한다. 팔방(八方) 십이궁(十二宮)의 생왕휴수(生旺休囚)를 보면 산수(山水)는 각기 생왕방(生旺方)이 있고 또 각각 사절처(死絶處)가 있다. 생왕(生旺)에 합한 것은 길(吉)하고 사절(死絶)에 합한 것은 흉(凶)하다. 가령 해방(亥方)은 목(木)의 장생지(長生地)가 된다. 진궁(震宮)인 갑묘을룡(甲卯乙龍)은 해(亥)에 생(生)하고 묘(卯)에 왕(旺)하며 오(午)에 사(死)하고 신(申)에 절(絶)한다. 가령 인방(寅方)은 화(火)의 장생지(長生地)가 된다. 이궁(離宮)인 병오정룡(丙午丁龍)은 인(寅)에 생(生)하고 오(午)에 왕(旺)하며 유(酉)에 사(死)하고 해(亥)에 절(絶)한다. 가령 사방(巳方)은 금(金)의 장생지(長生地)가 된다. 태궁(兌宮)인 경유신룡(庚酉辛龍)은 사(巳)에 생(生)하고 유(酉)에 왕(旺)하며 자(子)에 사(死)하고 인(寅)에 절(絶)한다. 가령 신방(申方)은 수토(水土)의 장생지(長生地)가 된다. 감궁(坎宮)인 임자계룡(壬子癸龍)은 신(申)에 생(生)하고 자(子)에 왕(旺)하며 묘(卯)에 사(死)하고 사(巳)에 절(絶)한다. 각기 생왕(生旺)의 기(氣)를 얻은 것은 부귀상전(富貴雙全)이 반드시 응(應)한다. 사절(死絶)의

기(氣)를 탄 것은 패절(敗絶)하니 또 어찌 의심하겠는가.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산수(山水)는 본래 생왕휴수(生旺休水)가 없는데 용체(龍體)가 출신(出身)한 곳과 입수방(入首方)을 보기 때문에 오기(五氣)가 각기 따른다. 장생위(長生位)상에서 그것을 헤아리면 비로소 모방(某方)에 생(生)이 있고 모방(某方)에 사(死)가 있음이 나타난다. 도두(到頭)로 혹 생(生)으로 와서 왕(旺)에 들고 왕위(旺位)가 생(生)으로 향한 것은 길(吉)하여 불리(不利)함이 없다. 그러나 또 응당 그 좌혈(坐穴) 입향(立向)의 법(法)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한다. 본시(本是) 생왕산룡(生旺山龍)인데 수신(水神)이 사절방(死絶方)으로 발귀(撥歸)하면 비록 왕방(旺方) 생방(生方) 출신(出身) 도두(到頭)라도 또한 길(吉)하게 되지 않는다. 이 이치는 현묘(玄妙)하고 또 현묘하니 증(曾) 양(楊)이 그것을 깊이 깨달았고 좌금선사(左衿先師)가 그것을 진실로 발(發)하여 후세에 몽매함을 막게 되었다. 그 공(功)이 또한 크구나.

[체용(體用)은 일원(一原)으로 삼합(三合)을 만나면 영령(英靈)이 순수(純粹)하다.]

산수(山水)는 본래 같은 일원(一原)이다. 함께 생왕(生旺)의 기(氣)를 얻고 좌향(坐向)의 아래서 그 기(氣)를 거두고자 하면 삼합(三合)의 법(法)으로 상세히 한다. 목룡(木龍)은 건갑정(建甲丁) 해묘미(亥卯未)로 하고 화룡(火龍)은 간병신(艮丙辛) 인오술(寅午戌)로 하며 수토룡(水土龍)은 곤임을(坤壬乙) 신자진(申子辰)으로 하고 금룡(金龍)은 손경계(巽庚癸) 사유축(巳酉丑)으로 한다. 가령 산수(山水)가 출신(出身)하여 해(亥) 상으로부터 내(來)하여 계축(癸丑)을 승(乘)하고 정미(丁未)를

향(向)하면 이는 해(亥)에서 목기(木氣)를 거둔다. 갑묘(甲卯) 출신(出身)이 계축(癸丑)에 좌(坐)하고 정미(丁未)를 향(向)하면 이는 묘(卯)에서 목기(木氣)를 거둔다. 인(寅)상으로부터 내(來)하여 을진(乙辰)에 좌(坐)하고 신술(辛戌)을 향(向)하면 이는 인(寅)에서 화기(火氣)를 거둔다. 병오(丙午) 출신(出身)이 을진(乙辰)에 좌(坐)하여 신술(辛戌)을 향(向)하면 이는 오(午)에서 화기(火氣)를 거둔다. 사(巳)상으로부터 내(來)하여 정미(丁未)에 좌(坐)하고 계축(癸丑)을 향(向)하면 이는 사(巳)에서 금기(金氣)를 거둔다. 경유(庚酉) 출신(出身)이 정미(丁未)에 좌(坐)하여 계축(癸丑)을 향(向)하면 이는 유(酉)에서 금기(金氣)를 거둔다. 신(申)상으로부터 내(來)하여 신술(辛戌)에 좌(坐)하고 을진(乙辰)을 향(向)하면 이는 신(申)에서 수기(水氣)를 거둔다. 임자(壬子) 출신(出身)이 신술(辛戌)에 좌(坐)하여 을진(乙辰)을 향(向)하면 이는 자(子)에서 수기(水氣)를 거둔다. 각기 생왕위(生旺位)를 얻고 사절방(死絶方)에 들지 않으면 그 영령(英靈) 수기(秀氣)가 어찌 순수(純粹)하지 않겠는가. 양공(楊公)이 이르기를 삼합연주귀무가(三合聯珠貴無價)라 함은 곧 이 법이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건갑정(建甲丁) 손경계(巽庚癸) 간병신(艮丙辛) 곤임을(坤壬乙)은 양산(陽山) 행룡(行龍)을 거두어 천기(天氣)를 따른다. 천(天)은 양(陽)에 속한다. 인오술(寅午戌) 사유축(巳酉丑) 해묘미(亥卯未) 신자진(申子辰)은 음산(陰山) 행룡(行龍)을 거두고 지기(地氣)를 따른다. 지(地)는 음(陰)에 속한다. 용맥(龍脉)이 청기(淸奇)하고 삼방(三方)의 사(砂)가 귀(貴)하면 용맥(龍脉)을 지지(地支)에서 거둔다. 수신(水神) 출입(出入)이 합격(合格)하고 용맥(龍脉)이 삼방사(三方砂)와 청(淸)하지 못하면 귀(貴)가 없다. 다만 천간(天干)에

서 수신(水神)을 거두고 용(龍)을 거두어 합국(合局)한 것은 인정(人丁)이 생왕(生旺)하고 수(水)를 거두어 합국(合局)한 것은 재록(財祿)이 왕(旺)함을 주관한다. 용(龍)과 수(水) 모두 합국(合局)하고 좌향(坐向)의 아래로 돌아가 거두면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겸하여 용(用)하고 쌍쌍(雙雙)으로 좌향(坐向)한다. 수신(水神)이 청(淸)하고 용기(龍氣)가 잡(雜)되면 천간(天干)을 많이 쓰고 지지(地支)는 적다. 수(水)가 청(淸)하지 못하고 용기(龍氣)가 진(眞)이면 지지(地支)를 많이 용(用)하고 천간(天干)은 적다. 이것이 고인(古人)이 향(向)을 용(用)하고 좌(坐)를 취(取)하는 현묘하고 심오한 것이며 시사(時師)가 전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매번 이 법을 용(用)하면 응험(應驗)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용혈(龍穴)의 선악(善惡)은 수(水)를 따르니 마치 여인(女人)의 귀천(貴賤)이 부(夫)를 따름과 같다.]

용혈(龍穴)은 본래 선악(善惡)이 없고 오직 수(水)로써 길흉(吉凶)을 삼는다. 수(水)의 거래(去來)가 합법(合法)하면 사(砂)의 길흉(吉凶)은 바야흐로 나타난다. 만약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이 합법하지 못하면 묘(妙)하여 비록 용봉(龍鳳)등의 형(形)이나 꽃이 핀 가지 같이 아름다워도 또한 바로 취(取)하기에 부족하다. 마치 여인(女人)은 본래 귀천(貴賤)이 없으나 그 귀하고 천함은 오직 부(夫)의 귀천을 보아서 귀천을 삼는다. 부(夫)가 귀한데 처(妻)가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택지(擇地)는 수(水)를 아는 것으로 묘용(妙用)을 삼는다. 대개 사(砂)에 길흉이 있다는 것은 기(氣)로써 말하지 않고 형(形)으로서 말한다. 가령 원정(員正) 단방(端方) 곡굴

(曲屈) 활동(活動)하면 길(吉)함이 되고 첨사(尖斜) 파쇄(破碎) 기측(欹側) 주찬(走竄)하면 흉(凶)함이 된다. 곡절(曲折) 지현(之玄) 전요(纏遶) 회환(回環)하면 길(吉)함이 되고 전할(箭割) 천사(穿射) 사비(斜飛) 경질(傾跌)하면 흉(凶)함이 된다. 이 모두 산수(山水)의 형상(形狀)을 가리켜서 길흉을 삼는 것이다. 만약 기(氣)로써 논하면 어찌 미악(美惡)이 있겠는가. 오직 그 생왕(生旺)을 얻으면 길(吉)하고 휴수(休囚)면 흉(凶)할 뿐이다. 좌금선사(左衿先師)는 항상 말하기를 사(砂)에는 길흉(吉凶)이 없으니 수(水)를 보아서 길흉을 삼는다. 내가 수(水)를 논하여도 또한 길흉이 없으니 향(向)으로 길흉을 삼는다. 대개 사(砂)의 길흉(吉凶)은 수(水)를 따르고 수(水)의 길흉(吉凶)은 향(向)을 따른다. 실로 오행(五行) 생왕사절(生旺死絕)이 주(主)가 된다. 만약 하나라도 불합(不合)하면 사두(砂頭) 수신(水神) 모두 휴수사절(休囚死絕)에 들어 무용(無用)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사(砂)가 비록 길(吉)하나 수(水)가 흉(凶)하면 백악(百惡)이 생기게 되고 혈(穴)이 비록 흉(凶)하나 수(水)가 길(吉)하면 오히려 제상(諸祥)이 모인다.]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이 하나라도 합법(合法)하지 못하면 사(砂)가 비록 순수(純粹) 온량(溫良)하여도 길(吉)함을 생(生)할 수 없고 도리어 백화(白禍)를 불러 그 흉구(凶咎)가 응(應)한다. 오직 수신(水神)상에 이르면 사(砂)의 아름다움은 무험(無驗)하다. 그러므로 혈(穴)이 비록 선(善)함을 못 얻어도 수(水)가 혹 生旺(생왕)의 기(氣)를 얻어 승(乘)하면 입택(立宅) 안분(安墳)은 오히려 능히 길(吉)함을 부르고 상(祥)을 생(生)

하니 인정(人丁)이 왕(旺)하고 재록(財祿)이 발(發)한다. 양공(楊公)이 능히 사람의 빈천(貧賤)을 구원한 것이 어찌 항상 사람들에게 달리 선지(善地)를 찾아서 사람들의 가난을 구원 하겠는가. 경(經)에 이르기를 절수(絶水)는 있으나 절지(絶地)는 없고 절향(絶向)은 있으나 절혈(絶穴)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뇌공(賴公)이 이르기를 양균송(楊筠松)의 술(術)은 지(地)를 따라 입향(立向)하고 사수(砂水)의 선악(善惡)과 당국(堂局)의 편정(偏正)을 나누지 않으며 오직 팔방(八方) 생왕휴수(生旺休囚)의 기(氣)에서 족히 취(取)한다. 거둘 수 있는 사(砂)가 있으면 그것을 거두고 취할 수 있는 수(水)가 있으면 그것을 취(取)하여 생왕(生旺)의 향(鄉)을 얻어 승(乘)하게 할 뿐이다. 가령 백룡담(白龍潭)이 인용한 기록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수법(水法)을 취하여 한번 옮기면 화복(禍福)이 곧 다르니 그 현묘(玄妙)함이 이와 같이 있는 것이다.

[좌혈(坐穴)의 길흉(吉凶)을 보고자 하면 모름지기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을 보아야 한다.]

혈(穴)은 길흉(吉凶)이 없고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으로 길흉을 삼는다. 가령 해묘(亥卯) 행룡(行龍)에 목기(木氣)가 입혈(入穴)한 것은 수(水)가 서북(西北) 동북(東北)으로부터 해건(亥乾) 간인(艮寅) 갑묘(甲卯)를 따라 내(來)하고 손이(巽離)로 가서 곤신(坤申)으로 거(去)하면 기(氣)는 수(水)를 따라 행(行)하여 수룡(水龍)의 기(氣)가 바야흐로 청(淸)하다. 그러므로 해묘미(亥卯未) 입국(入局)의 혈(穴)은 반드시 부귀(富貴)가 발(發)하고 인정(人丁)이 왕(旺)한다. 만약 해묘(亥卯)

행룡(行龍)이 목기(木氣)로 입국(入局)하여 각각 법과 같고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이 도리어 동북(東北)을 따라 거(去)하면 관왕(官旺)의 기(氣)가 모이지 않고 해건(亥乾)을 따라 거(去)하면 장생(長生)의 기(氣)가 분설(分泄)된다. 가령 간병(艮丙) 행룡(行龍)이 화기(火氣)로 입혈(入穴)하고 수(水)가 동북(東北) 동남(東南)으로부터 인갑(寅甲) 손사(巽巳) 병오(丙午)를 따라 내(來)하여 곤태(坤兌) 건해(乾亥)를 가서 출(出)하면 기(氣)는 화(火)를 따라 행(行)하고 화룡(火龍)의 기(氣)가 바야흐로 청(淸)하다. 그러므로 간병(艮丙)으로 입국(入局)한 혈(穴)은 반드시 부귀(富貴)가 발(發)하고 인정(人丁)이 왕(旺)하다. 만약 간병(艮丙) 행룡(行龍)이 화기(火氣)로 입국(入局)하여 각각 법(法)과 같고 수신(水神)의 출(出)함이 도리어 동남(東南)을 따라 거(去)하면 관왕(官旺)의 기(氣)가 모이지 않고 간인(艮寅)을 따라서 거(去)하면 장생(長生)의 기(氣)가 누설(漏洩)된다. 가령 사유(巳酉) 행룡(行龍)이 금기(金氣)로 입혈(入穴)하고 수(水)가 동남(東南) 서남(西南)으로부터 손사(巽巳) 곤신(坤申) 경유(庚酉)를 따라 내(來)하여 감계(坎癸) 간인(艮寅)으로 가서 출(出)하면 기(氣)가 금(金)을 따라 행(行)하여 금룡(金龍)의 기(氣)는 바야흐로 청(淸)하다. 그러므로 사유(巳酉)로 입국(入局)한 혈(穴)은 반드시 부귀(富貴)를 발(發)하고 인정(人丁)이 왕(旺)하다. 만약 사유(巳酉) 행룡(行龍)이 금기(金氣)로 입국(入局)하여 각각 법(法)과 같고 수신(水神)의 출(出)함이 도리어 서남(西南)을 따라 거(去)하면 관왕(官旺)의 기(氣)는 모이지 않는다. 동남(東南)을 따라 거(去)하면 장생(長生)의 기(氣)가 파설(破泄)된다. 가령 신자(申子) 행룡(行龍)이 수기(水氣)로 입국(入局)하고 수(水)가 서남(西南) 서북(西北)으로부터 곤신(坤申) 해임(亥壬)을 따라 내(來)

하여 이궁(離宮)으로 가서 출(出)하면 그 기(氣)가 수(水)를 따라 행(行)하여 수룡(水龍)의 기(氣)가 바야흐로 청(淸)하다. 그러므로 신자(申子) 입국(入局)의 혈(穴)은 또한 능히 발복(發福)한다. 만약 신자(申子) 행룡(行龍)에 수(水)가 청(淸)하고 입국(入局)이 법과 같은데 수신(水神)의 출(出)함이 도리어 서북(西北)을 따라 거(去)하면 관왕(官旺)의 기(氣)가 유산(流散)된다. 서남(西南)을 따라 거(去)하면 장생(長生)의 기(氣)가 설(泄)한다. 용(龍)이 비록 진정(眞正)하여도 백복(百福)생기지 않고 중화(衆禍)가 곧 응(應)한다. 이것은 용혈(龍穴)의 길흉(吉凶)은 수(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수(水)의 길흉(吉凶)은 또 향(向)에 있어 그것을 주관한다. 청낭경(靑囊經)에 이르기를 목기(木氣) 행룡(行龍)은 수구(水口)가 서남(西南)을 향하여 거(去)해야 마땅하고 화기(火氣) 행룡(行龍)은 수구(水口)가 서북(西北)을 향하여 거(去)해야 마땅하며 금기(金氣) 행룡(行龍)은 수구(水口)가 동북(東北)을 향(向)하여 거(去)해야 마땅하고 수기(水氣) 행룡(行龍)은 수구(水口)가 동남(東南)을 향(向)하여 거(去)해야 마땅하다. 양공(楊公)이 이르기를 생왕(生旺)의 위(位)는 수(水)가 내(來)하여야 하고 사절(死絶)의 위(位)상으로는 수(水)가 거(去)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로 수(水)로써 주(主)를 삼고 향(向)으로써 존귀함을 삼는다. 사절(死絶) 휴수(休囚)의 수(水)가 조혈(照穴)함을 절대 꺼린다.

[내(來)가 길(吉)하고 거(去)가 흉(凶)하면 피흉(避凶)의 법(法)을 누가 알겠는가. 내(來)가 흉(凶)하고 거(去)가 길(吉)하면 추길(趨吉)의 방(方)을 누가 아는가.]

수(水)의 내거(來去)는 용혈(龍穴)의 길흉(吉凶)에 관계됨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생위(生位)로부터 내(來)하여 왕방(旺方)으로 출(出)하고 혹은 왕위(旺位)로부터 내(來)하여 생방(生方)으로 출(出)하면 모두 내길(來吉) 거흉(去凶)이 된다. 혹은 쇠병사지(衰病死地)로부터 내(來)하고 절방(絶方)으로 출(出)하거나 혹은 목욕태사(沐浴胎死)로부터 내(來)하여 절지(絶地)로 출(出)하면 모두 내흉(來凶) 거길(去吉)이 된다. 흉(凶)한 것은 피(避)할 수 있고 길(吉)한 것은 추(趨)할 수 있다.

[비결(秘訣)은 천금(千金)으로 입신(入神) 정의(精義)한다.]

추길피흉(趨吉避凶)의 비결을 말한다. 점혈(點穴) 정향(定向) 납수(納水) 소수(消水)의 신묘(神妙)하고 현미(玄微)함은 단지 그 관귀(關竅)중에 있다. 사람들에게 가며이 말할 수 없다. 어찌 시사(時師) 속술(俗術)이 깨달아 쉽게 아는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대(對)를 탐(貪)하여 관(官)을 버리면 관(官)이 변하여 귀(鬼)가 된다.]

왕관(旺官) 사수(砂水)는 본래 용혈(龍穴)의 관록(官祿)에 속하여 능히 향(向)으로 본룡(本龍)의 국내(局內)에 거두어 돌아가니 그 발재(發財) 발복(發福)에 사대부(士大夫)는 진직(進職) 가관(加官)하고 서인(庶人)은 흥가(興家) 기수(奇秀)함이 반드시 응(應)한다. 만약 당국(堂局)의 단정(端正)함과 조대(朝對)의 정제(整齊)함을 탐(貪)하여 입향(立向)에 그 법을 한번 잃으면 도리어 관왕방(官旺方)의 사수(砂水)가 사절지(死絶地)로 발출(撥出)하니 본룡(本龍)의 관귀(官貴)가 변화하여 귀살(鬼殺)이 되어서 퇴재(退財) 살인(殺人)에 이르니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형국(形局)을 논(論)하는 것은 잘못이고 생왕(生旺)을 취(取)하는 것은 진(眞)이라 했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사수(砂水)의 낙국(落局)은 모두 개이(改移)함이 없으니 입향(立向)에 그 법을 잃으면 드디어 길흉(吉凶)이 상원(相遠)하게 된다. 그러므로 용혈사수(龍穴砂水)는 본래 길흉(吉凶)이 없고 회린(悔吝) 화구(禍咎)의 다른은 향(向)이 주관한다. 향(向)은 길(吉)로 돌릴 수 있으니 향(向)으로 그것을 추(趨)하여 흉(凶)을 피(避)할 수 있으면 향으로 그것을 피(避)한다. 가령 인묘(寅卯)의 위(位)에 수봉(秀峯)이 삽립(挿立)하고 사오(巳午)의 수(水)가 굽어 둘러 혈(穴)이 만약 화국(火局)을 따라 입향(立向)하면 인묘(寅卯)의 산(山)은 화(火)의 장생(長生)이 되고 사오(巳午)의 수(水)는 화(火)의 임관(臨官) 제왕(帝旺)의 수(水)이다. 어찌 복(福)이 되지 않겠는가. 혹 그렇지 않고 손사(巽巳) 경유(庚酉)를 탐(貪)하여 대(對)를 좋아 하고 당(堂)을 좋아 하여 금향(金向)을 세우면 인묘(寅卯)는 병사지(病死地)이고 사오(巳午)는 절태기(絕胎氣)이니 만국(滿局) 산수(山水)가 변화하여 귀겁(鬼劫)이 되어 곧 대화(大禍)를 본다. 나머지도 셈하여 헤아린다.

[영신(迎神) 배살(背煞)하고 화살(化煞) 생권(生權)한다.]

가령 갑묘(甲卯) 해건(亥乾)의 목기(木氣) 행룡(行龍)에 정미수(丁未水)가 내(來)하여 명당(明堂)에 들고 혹 경신(庚申) 곤유(坤酉) 병오(丙午)의 수(水)가 합류(合流)하여 입국(入局)하여 좌도(左倒)하고 인묘(寅卯) 생왕방(生旺方)으로 유출(流出)하여 거(去)하면 이는 목룡(木龍)의 수(水)가 내거(來去)하니 모두 흉(凶)하다. 출입(出入)이 실도(失度)하고 좌우전후(左右

前後) 만국(滿局)이 살(煞)을 띤다. 해국(亥局)을 따라 입향(立向)하여 만약 갑묘(甲卯) 정미(丁未)를 대(對)하면 인재(人財)가 패절(敗絕)한다. 입향(立向)이 만약 임자(壬子) 을진(乙辰)을 대(對)하면 대패(大敗)하여 재록(財祿)이 곧 고갈된다. 만약 간인(艮寅) 병오(丙午) 신술(辛戌)을 대(對)하면 인정(人丁)이 상(傷)한다. 만약 손사(巽巳) 경유(庚酉) 혹은 계축(癸丑)을 따라 금기(金氣)로 작향(作向)하면 곤신(坤申) 경유(庚酉)의 조수(朝水)는 도리어 관왕(官旺) 진신(進神)이 되고 묘목기(卯木氣)의 살(煞)은 도리어 영신(迎神)이 된다. 왕방(旺方) 거수(去水)는 도리어 진신(進神)이 되고 해기(亥氣)는 도리어 용(龍)의 살(煞)이 출(出)하고 진신(進神)이 이른다. 살(煞)이 변하여 권(權)을 생(生)하니 인정(人丁)과 재백(財帛) 둘이 손상(損傷)하지 않는다. 다만 금기(金氣)를 따라 입향(立向)하면 해묘(亥卯)의 용기(龍氣)가 비록 병(病)을 받아도 또한 대해(大害)는 없고 오히려 능히 소발(小發)하며 인정(人丁)은 오히려 생식(生息)을 얻는다. 가령 손사(巽巳) 경유(庚酉)의 금기(金氣) 행룡(行龍)에 손사(巽巳) 곤신(坤申) 경유(庚酉)의 수(水)가 조(朝)하고 곤신(坤申) 정미(丁未)로 입향(立向)하면 퇴신(退神)이 입국(入局)하여 절사(絕嗣)를 주관한다. 만약 손사(巽巳) 경유(庚酉) 혹은 계축(癸丑) 향(向)은 도리어 생왕(生旺)이 도당(到堂) 유국(流局)하여 간인(艮寅) 계축(癸丑) 방(方)으로 거(去)하면 인정(人丁)의 관작(官爵)이 대발(大發)한다.

뇌공(賴公)이 이르기를 수(水)의 내거(來去)에는 정방(定方)이 없고 수(水)의 길흉(吉凶)도 정위(定位)가 없다. 반드시 모방(某方) 내거(來去)에 속하면 길(吉)하고 모방(某方) 내거(來去)는 흉(凶)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룡(行龍) 입

수(入首)가 어느 오행(五行)을 얻어서 생왕사절(生旺死絕)이 어느 방(方)에 속하면 수신(水神) 출입(出入)이 어느 방위(方位)로 낙(落)함으로 인(因)하여서 길흉(吉凶) 회린(悔吝)이 동(動)함으로 말미암은 바이다. 그러나 그 추길피흉(趨吉避凶)의 법은 역지개혈(易地改穴)할 필요가 없고 본룡(本龍)의 혈(穴) 상에서 입향(立向)하여 생왕방(生旺方)에서 내수(來水)를 거두고 휴수위(休囚位)에서 거수(去水)를 발(撥)하면 곧 영신(迎神) 배살(背煞)이 된다. 그 법(法)과 그 이치는 지극히 정묘(精妙)하여 능히 조빈모부(朝貧暮富)의 술(術)이다. 이것은 양균송(楊筠松)의 깊은 비밀이므로 전(傳)하지 않는 것이다.

[신(神)이 존재하면 귀(鬼)가 몰(沒)하여 부귀(富貴)가 전환(轉圜)같이 속(速)하다.]

사수(砂水)는 자취가 있어 쉽게 본다. 그 생왕사절(生旺死絕)은 각기 방위(方位)가 있다. 입향(立向) 출살(出煞)은 사람이 쉽게 아는 바이다. 오행(五行)의 기(氣)는 지중(地中)에 흐른다. 순(順)하게 출(出)하면 신(神)이 어디에 있고 역(逆)으로 입(入)하면 귀(鬼)가 어디에 있다. 묵묵히 팔방(八方)에 우(寓)한다. 변화(變化)가 불측(不測) 미묘(微妙)하여 보기 어렵다. 작용(作用)은 사수(砂水)의 길흉(吉凶)으로 인할 뿐만 아니라 입향(立向)으로 추피(趨皮)의 법이 된다. 오기(五氣) 생왕(生旺)은 신(神)이고 극설(剋泄)은 귀(鬼)로 이십사산(二十四山) 분금(分金)의 내(內)와 육십룡(六十龍) 분금(分金)의 중(中)에 숨는다. 그 사이에 생왕(生旺) 극설(剋泄)은 더욱 마땅히 살펴야 한다. 신(神)은 존재하고자 하고 귀(鬼)는 몰(沒)하고자 한다. 본기(本氣)를 보화(保和)하고 요정(炁精)을 불벌(不伐)하면

귀복(鬼福)이 자연히 이르러 부귀(富貴)가 사람에 미친다.

[암살(暗煞)이 신(身)을 꺾(逼)하면 빈천(貧賤)이 반장(反掌)같이 쉽다.]

수(水)가 내거(來去)로 부터 생왕휴수(生旺休囚)의 위(位)에 불합(不合)한 것은 명살(明煞)이다. 왕방수(旺方水)가 내(來)하여 비록 길(吉)이 되어도 암살(暗煞)이 그 중에 존재한다. 즉 경(經)에 이르기를 왕방(旺方)이 살(煞)을 띠고 흘러온다는 것이 이 것이다. 가령 수기(水氣)가 진방(震方)에 입(入)한 것은 대살(帶煞)이 지극하다. 휴수(休囚) 방위(方位)의 거수(去水)는 비록 출살(出煞)이라 하나 또한 암살(暗煞)이 수중(水中)에 숨어 있다. 이른바 휴수(休囚) 출살(出煞)이 다하지 못한 것이 그 것이다. 가령 수기(水氣)에 수(水)가 곤(坤)으로 출(出)하면 그 수(水)의 출살(出煞)은 육십분금(六十分金) 납음(納音)에 있다. 암살(暗煞) 또한 그렇다. 더욱 그것을 꺼려야 마땅하다.

[장신합살(藏神合煞)의 미(微)를 살피고 휴수왕상(休囚旺相)의 기(氣)를 살핀다.]

오행(五行) 정령(精靈)의 기(氣)를 거두어 혈중(穴中)에 귀장(歸藏)하고 극설(剋泄)하여서 그 화(和)를 상(傷)함을 범하지 않는다. 금수(金水) 일월(日月)의 영화(英華)를 불러 혈상(穴上)에 임(臨)하게 하여 천장(天將)이 그 밖을 보호하고 삼기(三奇)가 그 태(胎)를 잉(孕)하면 신(神)이 장(藏)하고 흩어지지 않는다. 이십사산(二十四山)에 펼친 것은 명살(明煞)이 되

고 육십분금(六十分金)과 삼백육십오도(三百六十五度)의 가운데에 숨은 것은 암살(暗煞)이 된다. 사수(砂水)의 거래(去來)를 보면 형살(形煞)이 된다. 연월일시(年月日時)를 밝힌 것은 성살(星煞)이 된다. 그러나 이십사산(二十四山)과 육십분금(六十分金) 삼백육십오도(三百六十五度) 내(內)에서 사수(砂水)중에 이른 것은 향상(向上)으로 소식(消息)하여 법도(法度)에 합(合)하고 본기(本氣)의 진(眞)을 상제(傷制)하지 않게 한다. 만약 연월일시(年月日時)중에 성살(星煞)이 있고 성살(星煞)이 없으면 연월일시(年月日時)로 극패(剋敗)하는 사이에 법도(法度)에 합(合)함을 구(求)할 뿐이다. 생왕(生旺)의 기(氣)가 십이방(十二方)에 행(行)하면 장생(長生) 제왕(帝旺)의 위(位)가 연월일시(年月日時)에 운행하는 것이니 오운육기(五運六氣)가 순포(順布)한다. 향상(向上)으로 오기(五氣)의 생왕(生旺)을 살피고 연월(年月)로 기운(氣運)의 유행(流行)을 살펴서 혈중(穴中)에 생기(生氣)를 거두게 하고 휴수극설(休囚剋泄)을 범함을 꺼린다. 이것이 작용(作用)의 선(善)이 된다. 이는 곽씨(郭氏)가 이른바 장승생기(葬乘生氣)의 법(法)이다.

뇌시(賴氏)가 이르기를 신(神)은 장(葬)해야 마땅하고 살(煞)은 합(合)하면 안 된다고 했다. 좌금선사(左衿先師)가 말하기를 합살(合煞)은 삼합살(三合煞)로 제(制)한다고 했다. 가령 목기(木氣)가 살(煞)을 보면 정(丁)으로 제(制)하고 금룡(金龍)이 살(殺)을 보면 귀(鬼)로 합(合)하며 수토기(水土氣)가 살(殺)을 보면 을(乙)로 제(制)하고 화기(火氣)가 살(殺)을 보면 신(辛)으로 제(制)한다. 그러므로 합살(合煞)이라 한다. 내가 연도(燕都)에 있을때 초본(抄本) 옥척경(玉尺經)을 얻었는데 제목에 석함(石函) 옥척경(玉尺經)이라 했다. 거기에는 장신벽살(藏神關殺)이라 했다. 유백온(劉伯溫)선생의 해석이 본경(本

經) 정문(正文)이다. 이제 백온(百溫)선생의 해주(解註) 전질(全帙)을 얻으니 합살(合殺)이라는 의미는 고선인(古先人)이 잘못을 서로 전(傳)한 것으로 인하여 벽(闕)이 명백할 수는 없으나 잘못 고쳐서 합자(合字)가 되었다. 혹자는 의회(意會)하여 그것이 합벽(闔闕)의 합(闔)이 되는데 소리가 같아 잘못 베낀 것 이라 한다. 그러므로 백온(伯溫)으로 말미암아 그 서(書)를 따른다. 잘못된 것으로 잘못 전(傳)한 것이다.

[수수(秀水)가 특조(特朝)하면 귀(貴)를 취(取)하고 추(趨)해야 마땅하면 추(趨)한다.]

간병(艮丙) 태정(兌丁) 손신(巽辛)은 육수수(六秀水)가 된다. 만약 굴절(屈折)하고 특달(特達)하여 본룡(本龍)의 국내(局內)에 조회(朝會)하면 비록 생왕(生旺)에 불합(不合)하고 타방(他方)에 거둘 수 있는 호수(好水)가 없어도 다만 육수(六秀)의 수(水)가 국내(局內)로 거두어 돌아가고 혹은 장생(長生)에 합(合)하거나 혹은 임관(臨官)이나 혹은 제왕(帝旺) 관대(冠帶) 왕방(旺方)이면 모두 가(可)하다. 만약 생왕방(生旺方)에 원래 내수(來水)가 있으면 비록 육수위(六秀位)가 없어도 단지 본방(本方)의 수(水)를 거두면 상길(上吉)이 되며 억지로 육수(六秀)를 견합(牽合)하여 귀당(歸堂)할 필요가 없다. 육수(六秀)를 합득(合得)하면 도리어 본방(本方)의 생왕수(生旺水)를 잃고 사절처(死絕處)로 발귀(撥歸)하니 육수(六秀)의 길(吉)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생왕사절(生旺死絕)의 화(禍)를 받는다. 요금정(寥金精)이 이르기를 오이를 잡아 얻은 아이가 보따리를 잃는다 하여 대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는 비유다. 그러므로 좌금선사(左衿先師)가 이르기를 추(趨)

해야 하면 추(趨)한다 하여 그 경중(輕重)과 득실(得失)을 살펴서 해야 할 뿐이다. 특별히 수(水)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砂)에 이르러서도 의당 합법(合法)해야 한다.

[휴수(休囚) 반역(反逆)하면 재(災)가 생(生)하니 피(避)해야 마땅하면 피(避)한다.]

가령 곤임을(坤壬乙) 신자진(申子辰)의 토룡(土龍) 입수(入首)에는 수(水)가 의당 동남(東南)을 향하여 흘러야 휴수방(休囚方)으로 거(去)하는데 혹 거슬러 역충(逆衝)하여 도당(到堂)하고 생왕(生旺)을 격산(擊散)하면 수토룡(水土龍)은 융합(融合)할 수 없다. 만약 작혈(作穴)하여 거기에 장(葬)하면 곧 화(禍)가 생기게 된다. 입향(立向) 취재(取裁)는 응당 그 반역(反逆)의 악(惡)을 피(避)해야 한다. 간인(艮寅) 병오(丙午) 신술(辛戌) 향(向)을 할 수 있으면 화국(火局)을 용(用)하여 그것을 받으면 바야흐로 가(可)하다. 혹 묘(卯) 정미(丁未) 향(向)을 하면 목국(木局)을 용(用)하여 그것을 납(納)하여도 가(可)하다. 손사(巽巳) 경유(庚酉) 계축(癸丑) 향(向)을 하면 쇠병방(衰病方)도 능히 가버이 발재(發財)하니 금국(金局)을 용(用)하여 그것을 취(就)한다. 대개 화국(火局)은 동남(東南)의 수(水)를 관왕방(官旺方)에서 받아도 능히 재록(財祿)과 관작(官爵)이 흥발(興發)한다. 목국(木局)은 동남(東南)의 수(水)를 녹(祿)에서 거두면 퇴패(退敗)에 이르지 않는다. 금국(金局)은 동남(東南)의 수(水)를 장생방(長生方)에서 거두어도 능히 발(發)하여 인정(人丁)이 왕(旺)하고 소망(少亡) 고과(孤寡) 절멸종예(絶滅宗裔)에 이르지 않는다. 나머지도 계산하여서 해야 된다.

뇌공(賴公)이 이르기를 휴수(休囚)와 제왕(帝旺)의 삼방(三方) 산수(山水)가 모두 내(來)하여 도당(到堂)하면 취재(取裁)가 어렵다. 이치는 마땅히 생방(生方)으로 쇠방(衰方)을 작(作)한다. 생방(生方)과 쇠방(衰方)의 산수(山水)가 모두 내(來)하여 도당(到堂)하면 법(法)은 소식(消息)이 어렵다. 권의(權宜)는 왕방(旺方)으로 쇠방(衰方)을 작(作)하면 쇠방(衰方)이 왕방(旺方)이 된다. 생방(生方)으로 쇠방(衰方)을 작(作)하면 쇠방(衰方)이 생방(生方)이 된다. 또 가령 화국(火局)에 술해(戌亥) 휴수(休囚)와 오정(午丁) 왕방(旺方)이 함께 내(來)하면 혈(穴)은 재처(裁處)가 어렵다. 입향방(立向方)이 곤임을(坤壬乙)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이면 술건(戌乾)은 관록수(官祿水)가 되고 오정(午丁)은 태양수(胎養水)가 된다. 이는 향방(向方)으로 쇠방(衰方)을 작(作)하는 법이다. 또 가령 금국(金局)에 손사(巽巳) 생방(生方)과 신술(辛戌) 쇠방(衰方)이 함께 내(來)하면 점혈(點穴)은 더욱 어렵다. 법(法)은 마땅히 절(絶)에서 수보(數步) 퇴(退)하여 신술(辛戌)의 위(位)에서 경유(庚酉) 왕기(旺氣)를 거두면 신술(辛戌) 쇠방(衰方)이 변화하여 왕방(旺方)이 된다. 그러나 생왕(生旺)의 기(氣)를 재(裁)하여 거둔다. 또한 상전낙후(上前落後)와 애좌애우(挨左挨右)의 묘(妙)함에 있다. 이것은 화복(禍福)의 천기(天機)를 전이(轉移)하니 균송(筠松)이 구인(救人)하는 미술(微術)이다. 시사(時師)는 모른다. 사수(砂水)를 망녕되이 논하면 어찌 잘못이 없겠는가.

[생방(生方)을 사파(射破)하면 향(向)을 소차(少差)하여 취절(就絶)하며 왕위(旺位)를 충상(衝傷)하면 침(針)을 일전(一轉)하여 사(死)를 따른다.]

이 네 가지 구절은 상문(上文)의 추피(趨避) 법(法)으로 화복(禍福)을 전이(轉移)하는 현기(玄機)이다. 좌금선사(左衿先師)가 양균송(楊筠松)의 지의(旨意)를 발(發)하여서 후세(後世) 학술(學術)의 감(鑑)으로 삼았다.

[쌍산(雙山)에 가합(可合)하고 작용(作用)은 연주(聯珠)의 묘(妙)함을 본받는다.]

쌍산(雙山)은 일십이궁(一十二宮)에 궁(宮)마다 이위(二位)로 모두 이십사위(二十四位)다. 팔간(八干) 사유(四維) 십이지(十二支)가 각기 유형으로 합한다. 마치 모자공손(母子公孫) 골육일가(骨肉一家)의 정(情)과 같다. 갑(甲)으로 묘(卯)에 배(配)하여 목기(木氣)를 따른다. 간(艮)으로 인(寅)에 배(配)하여 화기(火氣)를 따른다. 해묘미(亥卯未)로 기(氣)를 합(合)한다. 해묘미(亥卯未)는 건갑정(乾甲丁)에 연(聯)하여 마치 구슬이 연결됨과 같고 삼합(三合)이 거둔다. 정의(情意)가 교합(交合)하여 생왕휴수(生旺休囚)의 방위(方位)와 기(氣)가 화(化)하여 무간(無間)하다. 이것은 구천현녀(九天玄女) 입법(立法)의 본의(本意)다. 경순(景純)이 전(前)에 자세히 주석하였고 균송(筠松)이 후(後)에 발명(發明)하였다. 지리가(地理家)에서 아주 중요한 현기(玄機)이고 만물의 근본이다. 양균송(楊筠松)은 연주경(聯珠經)을 만들어 쌍산오행(雙山五行)의 묘(妙)함을 개명(開明)하여서 수산출살(收山出殺)의 추기(樞機)로 삼았다. 그것은 지극히 신묘(神妙)한 것이 될 것이다.

[괘례(卦例)를 따라야 마땅하고 존귀한 납갑(納甲)의 종(宗)을 추구(推求)한다.]

구천현녀(九天玄女)가 괘기(卦氣)로 팔괘(八卦)를 따라 팔간(八干)을 납(納)하였다. 팔간(八干) 내(內)에 건(乾)은 갑(甲)을 납(納)하고 곤(坤)은 을(乙)을 납(納)하며 이(離)는 임(壬)을 납(納)하고 감(坎)은 계(癸)를 납(納)하며 간(艮)은 병(丙)을 납(納)하고 손(巽)은 신(辛)을 납(納)하며 진(震)은 경(庚)을 납(納)하고 태(兌)는 정(丁)을 납(納)한다. 이는 마치 부처(夫妻)가 상견(相見)하여 정의(情意)를 교계(交契)하고 서로 위배(違背)하지 않는 것이다. 장법(葬法)에 용(用)하여서 입향(立向)한다. 만약 건룡(乾龍) 도두(到頭)에 갑향(甲向)을 작(作)하고 간룡(艮龍) 도두(到頭)에 병향(丙向)을 작(作)하는 것은 일기(一氣)가 상합(相合)하여 길경(吉慶)이 생긴다. 그것을 용(用)하여서 산(山)을 거둔다. 간궁수(艮宮水)가 길(吉)하면 병(丙)으로 그것을 거두고 건궁수(乾宮水)가 길(吉)하면 갑(甲)으로 거두니 건간(乾艮)의 수(水)는 나의 용신(用神)이 되며 길경(吉慶)이 스스로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간건(艮乾)의 수(水)가 비록 길(吉)하나 수체불귀(收掣不歸)하면 오히려 길에서 만난 사람과 같이 나에게 서로 친애(親愛)함이 없다. 그것이 나를 따라서 복(福)이 되고자 하면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가령 건갑정(乾甲丁) 손경계(巽庚癸) 곤임을(坤壬乙) 간병신(艮丙辛) 괘례(卦例) 삼합법(三合法)이 납갑(納甲)을 용(用)하여 입향(立向) 납수(納水)를 헤아리면 심히 그 법을 얻는다. 또 가령 을신정계(乙辛丁癸)는 진술축미(辰戌丑未) 사묘(四墓) 천간(天干)이다. 사묘방수(四墓方水)는 거(去)해야 마땅하다. 용혈(龍穴) 국면(局面)에 들어 나타나 거수(去水)를 마주 향하면 혐오하여 꺼리는 바가 있다. 을신정계(乙辛丁癸)의 사향(四向)은 거수(去水)를 마주 대함을 요(要)하고 좌우(左右)에 자연히 생왕수(生旺水)가 내(來)하여 기(氣)를 받음을 달리 알

지 못한다. 이것이 출살(出煞) 승생(乘生)의 현묘(玄妙)함이다. 범속(凡俗)이 알 수 있겠는가.

[팔살황천(八殺黃泉)이 비록 악요(惡曜)라 하나 만약 생방(生方)에 있으면 예(例)는 동단(同斷)하기 어렵다.]

황천팔살수(黃泉八殺水)는 경정(庚丁)이 곤(坤)을 기(忌)하고 을병(乙丙)이 손(巽)을 방(防)하며 갑계(甲癸)가 간(艮)을 파(怕)하고 신임(辛壬)이 건(乾)을 기(忌)한다. 또 곤향(坤向)에 정경(丁庚) 손(巽)에 을병(乙丙)을 혐(嫌)한다. 또 이르기를 을병(乙丙) 황천(黃泉) 손(巽)이라 하여 막유(莫遊)하는 유형이다. 이런 종류의 수(水)가 만약 생왕방(生旺方)에서 내(來)하여 절태방(絕胎方)으로 거(去)하고 있으면 비록 그 팔살(八殺)이라도 해(害)가 되지 않으니 황천(黃泉)에 구애될 수 없으며 도리어 생왕휴수(生旺休囚) 오행(五行)의 정기(正氣)를 잃는다.

[생혈(生穴)의 수신(水神)이 도좌(倒左)하면 향(向)이 비록 병(病)이라도 해(害)가 없다.]

건해(乾亥) 곤신(坤申) 간인(艮寅) 손사(巽巳)의 용혈(龍穴)은 오행(五行) 사장생(四長生)의 위(位)이다. 수(水)는 의당 대면(對面)하여 추조(趨朝)하고 도우(倒右)하여 거(去)해야 한다. 이제 도리어 도좌(倒左)하면 사절수(死絕水)가 내(來)하여 입국(入局)하고 왕방(旺方)으로 출(出)한다. 좌도(左倒) 수살(水煞)을 출(出)하고자 하면 좌생조사(坐生朝死)가 마땅하니 전(前)에 말한 추피(趨避)의 설(說)이다. 가령 수토룡(水土龍)이

화향(火向)을 세우고 금룡(金龍)이 목향(木向)을 세우며 목룡(木龍)을 금향(金向)을 세우고 화룡(火龍)이 수향(水向)을 세우면 이것은 변국(變局) 납수(納水)의 양법(良法)이 된다. 이에 천지(天地)의 진기(眞機)는 쉽게 말하는 게 아니다.

[왕룡(旺龍)이 좌수(左水)가 우귀(右歸)하면 욕(浴)을 향(向)하여서 어찌 해롭겠는가.]

임자(壬子) 병오(丙午) 갑묘(甲卯) 경유(庚酉)의 내룡(來龍)은 오행(五行) 사제왕(四帝旺)의 위(位)이다. 수(水)는 도좌(倒左)해야 마땅하다. 이제 도리어 도우(倒右)하면 사절수(死絕水)가 내(來)하여 입국(入局)하고 생방(生方)으로 출(出)한다. 도우(倒右) 수살(水殺)을 출(出)하고자 하면 향(向)은 의당 좌쇠조양(坐衰朝養)해야 한다. 가령 수룡(水龍)이 목향(木向)을 세우고 목룡(木龍)이 화향(火向)을 세우며 화룡(火龍)이 금향(金向)을 세우고 금룡(金龍)이 수향(水向)을 세우면 귀신(鬼神)의 정운(精蘊)이 나타난다. 어찌 낭설(浪泄)할 수 있겠는가. 즉 전(前)에 말한 피흉(避凶)의 법이다. 그 도좌(倒左) 도우(倒右)는 등혈(登穴)하여 수(水)를 본다. 마치 사람의 수비(手臂)같이 뒤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수(水)를 알고 입조(立朝)하면 피차(彼此) 길흉(吉凶)의 응(應)함이 있다.]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을 살펴 알고 향(向)을 세운다. 진실로 그 법을 얻으면 도리어 흉(凶)이 길(吉)로 된다. 그 국(局)을 한번 잃으면 길(吉)이 변하여 흉(凶)이 된다. 수신(水神)의

출입(出入)은 본래 길흉(吉凶)과 일정한 응(應)함이 없고 화복(禍福)의 상험(相驗)은 조향(朝向)의 득실(得失)에 매인다. 그와 같이 있으면 작용(作用)의 사이에서 얻을 수 있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길흉(吉凶)의 응(應)함은 입향(立向)의 득실(得失)에 매이는 것이다. 대개 사수(砂水)는 길흉(吉凶)이 없고 그 향(向)이 길흉(吉凶)이 된다. 향(向)에 길흉(吉凶)이 없으면 생왕사수(生旺死囚)로 길상(吉相)이 된다. 기(氣)가 이르고 펼쳐서 신(神)이고 기(氣)가 반(反)하고 귀(歸)하여 귀(鬼)가 된다. 생왕(生旺)의 기(氣)는 신기(神氣)이고 사절(死絕)의 기(氣)는 귀기(鬼氣)이다. 신(神)은 양(陽)에 속하고 귀(鬼)는 음(陰)에 속한다. 양기(陽氣)는 진(進)하여 생장(生長)하고 음기(陰氣)는 반(反)하여 수장(收藏)한다. 그러므로 만물을 발육(發育)하는 것은 신기(神氣)이고 만물을 숙살(肅殺)하는 것은 귀기(鬼氣)이다. 귀신(鬼神)의 기(氣)는 토맥(土脉)의 내(內)에 유행(流行)하고 천지(天地) 간(間)에 두루 충(充)하여 운행(運行)이 끝이 없으니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것이다. 그 기(氣)는 생절사왕(生絕死旺)의 기(氣)이니 음양(陰陽) 귀신(鬼神)의 운(運)이며 길흉(吉凶)의 주(主)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기(神氣)는 길(吉)이 되어서 장양(長養)하고 귀기(鬼氣)는 흉(凶)이 되어서 수장(收藏)한다. 그 천지(天地) 자연(自然)의 운(運)이 음양(陰陽) 일정(一定)의 현기(玄機)가 된다. 그러므로 기(氣)가 이르러 펼쳐서 생(生)이 되고 왕(旺)이 되면 그 방위(方位) 상에는 높고 내(來)하여야 한다. 기(氣)가 반(反)하고 귀(歸)하여 휴(休)가 되고 흉(凶)이 되면 그 방위(方位) 상에는 낮고 거(去)하여야 한다. 높고 내(來)한 것은 신(神)이 되어 기(氣)를 따라 이르고 펼친다. 낮고 거(去)한

것은 귀(鬼)가 되어 기(氣)를 따라 반(反)하고 귀(歸)한다. 신(神)으로 신(神)을 느끼면 길(吉)하다. 길(吉)하면 신(神)이 생(生)한다. 귀(鬼)로 귀(鬼)를 섭(攝)하면 흉(凶)하다. 흉(凶)하면 귀(鬼)가 이르러 거둔다. 귀기(鬼氣)가 신방(神方)에 들어 신기(神氣)를 거두고 귀방(鬼方)에 든다. 신귀(神鬼)는 정(情)이 다르다. 음양(陰陽)이 이치에 어긋나면 수장(收藏)이 장생(長生)이 되고 춘하(春夏)가 추동(秋冬)이 되니 천지(天地)가 변하여 만물이 멸망한다. 그것은 흉(凶)이 된다. 또한 천지(天地) 음양(陰陽) 자연(自然)의 응(應)함이니 어찌 억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양씨(楊氏)가 이르기를 생왕(生旺)은 내(來)하여야 하고 사절(死絕)은 거(去)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생방(生方)이 높고 솟으면 인정(人丁)이 왕(旺)하고 왕위(旺位)가 기봉(起峰)하면 관록(官祿)이 이른다. 그것은 귀신(鬼神)의 정상(情狀)과 음양(陰陽)의 묘용(妙用)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생(四生) 삼합(三合)은 천기(天機)다.]

간인(艮寅) 손사(巽巳) 곤신(坤申) 건해(乾亥)의 사방(四方)은 오행(五行) 장생(長生)의 위(位)로 천시(天市) 자미(紫微) 소미(少微) 태미(太微)의 사원(四垣)의 귀(貴)에 응(應)한다. 만약 이 사양(四樣)의 수신(水神)을 얻거나 혹은 산(山)이 특조(特朝)하면 비록 생왕(生旺)이 아니라도 능히 과명(科名) 천록(千祿)에 이른다. 또 사절휴수(死絕休囚)의 논(論)에 있지 않다. 삼합(三合) 작법(作法)이 이를 시(時)에 정룡(定龍) 입혈(立穴) 정향(定向)하는데 득향(得向)은 오로지 수구(水口)를 본다. 용향(龍向)은 삼합(三合) 생왕(生旺)을 요(要)하고 금목

수화(金木水火)에 이르러 각기 일기(一氣)를 이룬다. 수구(水口)는 요컨대 삼합(三合) 고묘절태(庫墓絕胎)로 거(去)해야 한다. 이것은 천기(天機) 탈조화(奪造化)의 진결(眞訣)을 얻으니까벼이 드러낼 수 없다.

[쌍산오행(雙山五行)은 전비결(全秘訣)이다.]

가결 인간(寅艮) 행룡(行龍)이 병신(丙辛) 이향(二向)을 작(作)하면 간인(艮寅)은 장생수(長生水)이고 손사(巽巳) 병오(丙午)는 임관(臨官) 제왕(帝旺)의 수(水)로 회조(會朝) 도당(到堂)하고 술건해임(戌乾亥壬)으로 유귀(流歸)하여 거(去)하면 이것은 화국(火局)의 전미(全美)함을 얻는다. 또 가령 건해(乾亥) 행룡(行龍)이 정묘(丁卯) 이향(二向)을 작(作)하면 건해(乾亥) 장생수(長生水)와 간인(艮寅) 갑묘(甲卯)의 수(水)가 당(堂)에 유입(流入)하고 서남(西南) 정미(丁未) 곤신(坤申)으로 유귀(流歸)하여 거(去)하면 이것은 목국(木局)의 전미(全美)함을 얻는다. 가령 손사(巽巳) 행룡(行龍)이 경유계향(庚酉癸向)을 작(作)하면 손사(巽巳) 경유(庚酉)의 수(水)가 내(來)하여 간인(艮寅)으로 유입(流入)하여 거(去)하면 금국(金局)의 전미(全美)함을 얻는다. 가령 곤신(坤申) 행룡(行龍)이 임자병향(壬子丙向)을 작(作)하면 곤신(坤申) 임자(壬子)의 수(水)가 내(來)하여 손사(巽巳)로 흘러 거(去)하면 이것은 수국(水局)의 전미(全美)함을 얻는다. 복록(福祿)이 균제(均齊)하고 공위(公位)가 편고(偏枯)되지 않는 전기(全氣)의 지(地)이다. 또 진경해(震庚亥)는 삼길(三吉)의 방위에 속한다. 만약 이 삼방(三方)에 하나의 산수(山水)가 특조(特朝)하고 아울러 육수(六秀)와 상동(相同)하여 유길무흉(有吉無凶)하다. 또한 오행(五行)

휴수(休囚)의 한(限)한 바가 아니다.

옥척경(玉尺經) 상집(上集) 종(終)

옥척경(玉尺經) 하집(下集)

조미부(造微賦)

[태극(太極)이 분(分)하여 양의(兩儀)가 전(奠)하고 이기(二氣)가 포(布)하여 순역(順逆)으로 행(行)한다.]

혼돈(混沌)의 초(初)에 태극(太極)의 기(氣)가 나뉘지 않았다. 또 경청(輕淸)한 기(氣)는 자(子)에 열리어 위로 뜬 것은 천(天)이 되고 중탁(重濁)한 기(氣)는 축(丑)에 열리어 아래로 응결된 것은 지(地)가 된다. 그 일월성상(日月星辰)은 천(天)에 현상(懸象)하니 그 청기(淸氣)가 정(精)하여 밝은 것이다. 산천강하(山川江河)는 지(地)에 열형(列形)하니 그 탁기(濁氣)가 응(凝)하여 통(通)한 것이다. 천도(天道)는 양(陽)에 속하고 지도(地道)는 음(陰)에 속한다. 음양(陰陽)이 이미 나뉘었으면 오행(五行)이 조포(兆布)한다. 양기(陽氣)는 좌선(左旋)하여 춘(春)은 동(東)에 행(行)하고 하(夏)는 남(南)에 행(行)하며 추(秋)는 서(西)에 행(行)하고 동(冬)은 북(北)에 행(行)한다. 오기(五氣)가 순류(順流)하여 사시(四時)가 서(序)하여 만물(萬物)이 화생(化生)하는 것은 모두 그 기(氣)이다. 음기(陰氣)는 우선(右旋)하여 하(夏)는 남(南)에 행(行)하고 춘(春)은 동(東)에 행(行)하며 동(冬)은 북(北)에 행(行)하고 추(秋)는 서(西)에 행(行)한다. 오기(五氣)가 역류(逆流)하여 시서(時序)가 정(正)하고 품휘(品彙)가 형(亨)한 것은 모두 그 물(物)이다. 그러나 양기(陽氣)는 장(長)하므로 좌(左)로 진(進)하고 음기(陰氣)는 소(消)하므로 우(右)로 퇴(退)한다. 음(陰)이 장(長)하면

양(陽)이 소(消)하고 양(陽)이 장(長)하면 음(陰)이 소(消)한다. 진퇴(進退) 소장(消長) 화육(化育)의 기(機)이다. 그리고 일순(一順) 일역(一逆) 또한 그 자연(自然)의 운(運)이다. 그러므로 양(陽)은 동지(冬至) 갑자시(甲子時)의 반(半)에 생(生)하여 좌행(左行)하고 음(陰)은 하지(夏至) 갑자시(甲子時)의 반(半)에 생(生)하여 우행(右行)한다. 음양(陰陽) 상혼(相渾)과 좌우(左右) 상탕(相盪)은 화기(化機)라 한다. 화기(化機) 화리(化理)를 알면 산천(山川)의 열형(列形)은 요컨대 홀로 사람들에게 상(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님을 안다.

[좌양(左陽) 우음(右陰)은 용(龍)이 행(行)하는 양로(兩路)이고 양순(陽順) 음역(陰逆)은 기(氣)가 본래 일원(一原)이다.]

형(形)이 지(地)에 나열된 것은 홀로 있는 물(物)이 아니다. 요컨대 또한 음양(陰陽) 이기(二氣)가 그것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토(土)는 기(氣)로 인하여 형(形)한다. 양기(陽氣)는 좌전(左旋)하니 맥(脉)이 따라서 좌전(左轉)하고 음기(陰氣)는 우전(右旋)하니 맥(脉)이 따라서 우전(右轉)한다. 그러므로 그 지세(地勢)가 우(右)로부터 좌(左)로 돌아 입국(入局)한 것은 양(陽)이 되고 용(龍)이 좌(左)로부터 우(右)로 돌아 입국(入局)한 것은 음(陰)이 된다. 용(龍)이 음양(陰陽) 양로(兩路)로 나뉘어서 순행(順行) 역행(逆行)하면 그 지기(地氣)는 자연히 운행한다.

[음(陰)은 양(陽)의 조(朝)를 용(用)하고 양(陽)은 음(陰)의 응(應)을 용(用)하니 상견(相見)하여 실가(室家)의 의(義)를 협(協)한다. 양(陽)으로 음(陰)을 축(蓄)하고 음(陰)으로 양(陽)을

함(含)하니 자웅(雌雄)이 교구(交媾)의 정(情)을 기뻐한다.]

기(氣)는 수(水)의 모(母)이다. 기(氣)가 행(行)하면 수(水)가 따른다. 수(水)가 멈추면 기(氣)가 멈춘다. 자모(子母) 동정(同情)으로 수(水)와 기(氣)가 사귀어 쫓는다. 마치 영(影)이 형(形)을 따르는 것과 같다. 대개 기(氣)는 하나다. 땅 밖으로 넘치어 자취가 있으면 수(水)가 되고 땅속에 행(行)하여 형(形)이 없는 것은 기(氣)가 된다. 수(水)는 그 표(表)이고 기(氣)는 그 이(裏)이다. 표리(表裏)가 함께 운행하고 내외(內外)가 함께 흐른다. 그 조화(造化)는 필연(必然)의 묘운(妙運)이다. 그러므로 지중(地中)의 기(氣)를 살피어 동(東)으로 향하고 서(西)로 향하면 그 수(水)의 내거(來去) 또한 대개 그것을 알 수 있다. 속담에 기기(氣機)의 운(運)을 잘 보는 자는 제수(諸水)를 본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 수(水)가 오는 곳을 살피면 족히 용기(龍氣) 발원(發源)의 시(始)를 안다. 그 수(水)의 이르는 곳을 살피면 족히 용기(龍氣)가 융취(融聚)하는 곳을 안다. 경(經)에 이르기를 계수즉지(界水則止)라 했고 또 이르기를 외기(外氣)가 횡행(橫行)하면 내기(內氣)가 멈추어 생(生)한다고 했다. 진실로 말과 같다. 그러나 천지(天地)의 기(氣)는 음(陰)과 양(陽)일 뿐이다. 역(易)에 이르기를 일음(一陰) 일양(一陽)은 도(道)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음양(陰陽)은 그 택(宅)을 상호 장(藏)하며 동정(動靜)이 서로 그 근본이 되고 음양(陰陽)이 서로 선흠(嬪)하여 만물(萬物)이 화순(化純)한다. 곽자(郭子)가 말한 것이 있는데 독양(獨陽)은 생(生)을 못하고 독음(獨陰)은 성장을 못한다 했다. 이로 인하여 보면 음양(陰陽)이 충화(冲和)한 뒤에 화기(化機)를 이룰 수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음룡(陰龍)은 반드시 양수(陽水)가 내회(來會)

함을 얻어야 하고 양룡(陽龍)은 반드시 음수(陰水)의 내교(來交)를 얻어야 한다. 외기(外氣)와 내기(內氣)가 화회(和會)하여 이기(二氣)가 움직여 물(物)을 이룬다. 마치 부부(夫婦)가 교접하여 생육(生育)하는 것과 같다. 양(陽)은 웅(雄)이 되고 음(陰)은 자(雌)가 된다. 양룡(陽龍)이 좌행(左行)하고 우수(右水)가 도당(到堂)하면 음래(陰來) 합금(合襟)하여 음(陰)이 되어서 회음(會陰)한다. 음룡(陰龍)이 우행(右行)하고 양수(陽水)가 도당(到堂)하면 좌래(左來) 합금(合襟)하여 양(陽)이 되어서 축음(蓄陰)한다. 즉 자웅상회(雌雄相會) 빈모교구(牝牡交媾)의 정(情)이다. 음양(陰陽)이 상견(相見)하면 복록(福祿)이 영정(永禎)하다. 음양(陰陽)이 충화(沖和)하면 만물(萬物)이 화생(化生)한다. 이것이 천지(天地) 자연(自然)의 화기(化機)다. 합하여 말하면 통체(統體) 일태극(一太極)의 묘용(妙用)이고 나누어 말하면 수물(隨物) 부물(付物)하여 또 각기 일태극(一太極)의 현오(玄奧)함을 갖춘다. 태극(太極)의 이치를 알면 화기(化機)의 묘품(妙品)을 말할 수 있다. 화기(化機)의 묘(妙)함은 형(形)과 더불어 법(法)의 학(學)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陰)이 양(陽)에 교(交)하면 양(陽)이 하제(下濟)하여 시생(施生)하고 양(陽)이 음(陰)에 교(交)하면 음(陰)이 앙승(仰承)하여 흡수(翕受)한다.]

용맥(龍脉)이 내(來)하면 토(土)는 기(氣)를 따라 형상을 이룬다. 기(氣)가 비록 유행(流行)하나 살필 수 없다. 그러나 그 토맥(土脉)이 와서 멈추면 일정(一定)하여 옮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용형(龍形)은 고요하여 자리를 지킨다. 만약 수(水)라면 움직여 무상(無常)하여 혹은 동(東)으로 혹은 서(西)로 일

정한 곳이 없다. 비록 기(氣)가 행(行)하고 수(水)가 내(來)하여도 자연(自然)의 세(勢)가 있다. 그러나 기(氣)는 스스로 멈출 수 없으니 반드시 수교(水交)를 얻어야 스스로 멈춘다. 그러므로 양룡(陽龍) 입수(入首)면 양수(陽水)가 내회(來會)하고 음룡(陰龍) 입수(入首)면 양수(陽水)가 내회(來會)하면 이것을 일러 음양교구(陰陽交媾)라 한다. 음(陰)은 양(陽)에 교(交)하고 양(陽)은 음(陰)에 교(交)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수(水)로써 말한다. 경(經)에 이른 것이 있는데 형(形)이 멈추면 기(氣)가 쌓인다. 기(氣)가 유행(流行)하여 가지 않고 도달하지 않으면 어찌하여 능히 쌓이겠는가. 대개 국전(局前)의 수(水)로 능히 용기(龍氣)를 멈춘다. 가령 계수(界水) 삼차(三叉)인 것이다. 그러므로 양공(楊公)이 이른바 수(水)가 삼차(三叉)를 대(對)하면 종적을 자세히 안다고 했다. 산룡(山龍)에 이르러 용(龍) 호(虎) 응(應)을 얻으면 앞에 횡행(橫行)을 살피면 또한 기지(氣止) 형축(形蓄)이 된다. 그리고 말미암은바 내기(內氣)는 멈추어 생(生)한다는 것이 이 것이다. 음(陰)이 양(陽)에 교(交)하고 양(陽)이 하제(下濟)하여 시생(施生)한다는 것은 양(陽)이 아래에 있고 음(陰)은 위에 있어 양기(陽氣)가 상제(上濟)하여 음(陰)을 승(乘)하여서 시생(施生)한다. 양(陽)이 음(陰)에 교(交)하고 음(陰)이 우러러 받들어 합하여 받는다는 것은 양(陽)이 위에 있고 음(陰)이 아래에 있어 양기(陽氣)가 하강(下降)하여 음(陰)을 승(乘)하여서 합하여 받는다. 양(陽)이 베풀고 음(陰)이 받으면 태식(胎息)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대개 화육(化育)의 묘(妙)한 기기(氣機)는 자연(自然)의 이치다.

[천근(天根)은 중묘(衆妙)의 문호(門戶)를 나타내고 월굴(月

窟)은 현기(玄機)의 문호(門戶)를 연다.]

천근(天根)은 양기(陽氣)가 따라 나오는 곳의 문(門)이다. 즉 시생(施生)의 두(寶)로 남자(男子)의 모(牡)와 같다. 월굴(月窟)은 음기(陰氣)가 발육(發育)되어 베푸는 곳이다. 즉 합하여 받는 문호로 여자(女子)의 빈(牝) 같다. 모빈(牡牝)이 상대(相對)하여 현규(玄竅)가 상통(相通)하면 남녀(男女)가 교구(交媾)하여 생식(生息)이 스스로 왕성하다. 하문(下文)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을병(乙丙)이 교(交)하여 술(戌)을 추(趨)한다. 신임(辛壬)이 회(會)하여 진(辰)에 취(聚)한다. 두우(斗牛) (즉표)가 정경(丁庚)의 기(氣)를 납(納)한다. 금양(金羊)(未)이 계갑(癸甲)의 영(靈)을 수(收)한다.]

을(乙)이 병(丙)의 교(交)를 용(用)하는 것은 병화(丙火)는 인(寅)에서 생(生)하고 목욕(沐浴)은 묘(卯)이며 관대(冠帶)는 진(辰), 임관(臨官)은 사(巳), 제왕(帝旺)은 오(午), 쇠(衰)는 미(未), 병(病)은 신(申), 사(死)는 유(酉), 묘(墓)는 술(戌)이다. 이 술(戌)은 병(丙)의 묘(墓) 즉 양화룡(陽火龍)의 천근(天根)이고 음목향(陰木向)의 월굴(月窟)이다. 병(丙)이 을목(乙木)을 용(用)하는데 오(午)에서 생(生)하고 목욕(沐浴)은 사(巳), 관대(冠帶)는 진(辰), 임관(臨官)은 묘(卯), 제왕(帝旺)은 인(寅), 쇠(衰)는 축(丑), 병(病)은 자(子), 사(死)는 해(亥), 묘(墓)는 술(戌)이다. 이 술(戌)은 을(乙)의 묘(墓)로 음목룡(陰木龍)의 월굴(月窟)이고 양화향(陽火向)의 천근(天根)이다. 병(丙)과 을(乙)이 상견(相見)하여 현규(玄竅)가 상통(相通)하면

자웅교구(雌雄交媾)가 된다는 것이 이 것이다. 진(震) 이(離) 이룡(二龍)이 동국(同局)이다. 신(辛)이 임(壬)을 배(配)하는 것은 손(巽) 태(兌)의 음국(陰局)이고 임(壬)이 신(辛)을 배(配)하는 것은 신자(申子)의 양국(陽局)이다. 사룡(四龍)의 수법(水法)은 모두 진상(辰上)으로 출로(出路)하기 때문이다. 경(庚)이 정(丁)과 배(配)함은 손(巽) 태(兌)의 양국(陽局)이다. 정(丁)이 경(庚)과 배(配)함은 인오(寅午)의 음국(陰局)이다. 갑(甲)이 계(癸)를 배(配)함은 해묘(亥卯)의 양국(陽局)이다. 사룡(四龍)의 수법(水法)은 모두 미상(未上)으로 출(出)하기 때문이다. 행룡(行龍)이 포기(布氣)한다. 아울러 갑을(甲乙) 교배법(交配法)의 예(例)를 본받는다.

[그러므로 을신정계(乙辛丁癸)의 부(婦)가 있으면 의당 갑경병임(甲庚丙壬)의 부(夫)를 배(配)한다. 부부(夫夫) 부부(婦婦)가 자웅(雌雄) 빈모(牝牡)다.]

을신정계(乙辛丁癸)는 음(陰)이고 갑경병임(甲庚丙壬)은 양(陽)이다. 양(陽)은 음(陰)의 응(應)함을 용(用)하고 음(陰)은 양(陽)의 조(朝)함을 용(用)한다. 그러므로 을(乙)이 병(丙)을 얻고 정(丁)이 경(庚)을 얻으며 신(辛)이 임(壬)을 얻고 계(癸)가 갑(甲)을 얻으면 음(陰)이 양조(陽朝)를 용(用)함이 된다. 병(丙)이 을(乙)을 얻고 경(庚)이 정(丁)을 얻으며 임(壬)이 신(辛)을 얻고 갑(甲)이 계(癸)를 얻으면 양(陽)이 음응(陰應)을 용(用)함이 된다. 음양(陰陽) 상견(相見)은 마치 부부(夫婦)의 교구(交媾)와 자웅(雌雄) 빈모(牝牡)의 의(義)와 같다. 상문(上文)을 본다.

[만약 음(陰)이 양(陽)을 만나서 그 동류(同類)가 아니면 양차(陽差)라 부르고 양(陽)이 음(陰)을 보아서 그 짝이 아니면 이름 하여 음착(陰錯)이 된다.]

가령 을해룡(乙亥龍)이 병기(丙氣)를 용(用)하여 상합(相合)하면 음양(陰陽) 정배(正配)가 되니 술(戌)상으로 출수(出水)하면 상견(相見)의 의(義)를 얻는다. 만약 진(辰)과 축(丑)상으로 출수(出水)하면 이는 경(庚) 임(壬)의 수구(水口)를 보니 그 짝이 아니다. 그것을 일러 양차(陽差)라 하니 상남(傷男)한다. 병인룡(丙寅龍)이 을기(乙氣)를 용(用)하여 내합(來合)하면 음양(陰陽) 정배(正配)가 되어 술(戌)상으로 출수(出水)하여 음양(陰陽) 상견(相見)의 의(義)가 된다. 만약 진(辰)과 축(丑)상으로 출수(出水)하면 이는 정(丁) 신(辛)의 수구(水口)를 보아 그 동류(同類)를 잃으니 음착(陰錯)이 된다. 음착(陰錯)은 상부(傷婦)한다.

[처(妻)는 길에서 만난 것 같으면 결국 억지로 합(合)하나 화합하지 못한다. 권속(眷屬) 일가(一家)는 비록 경미(輕微)하여도 쓰임이 있다.]

위의 구절을 이어서 말한다. 병(丙) 을(乙)이 상견(相見)하면 부처동정(夫妻同情)과 권속일가(眷屬一家)가 된다. 비록 내거(來去)가 경미(輕微)하여도 쓰임이 있게 된다. 부귀(富貴) 복택(福澤)도 능히 그 생(生)한 바에 미친다. 만약 병(丙)이 을(乙)을 못 만나고 정계신(丁癸辛) 수구(水口)를 만나 출로(出路)한 것은 부(夫)가 길에서 처(妻)를 만난 것이다. 을(乙)이 병(丙)을 못 만나고 갑경임(甲庚壬) 수구(水口)를 만나 출로

(出路)한 것은 처(妻)가 길에서 부(夫)를 만난 것이다. 비록 사명(砂明) 수수(水秀)하여도 결국 강합(強合)이 되어 무정(無情)하니 그 발복(發福)도 심히 후(厚)하지 않다. 대개 현호(玄戶)가 불통(不通)하기 때문이다. 동산(銅山)이 서쪽에서 무너지면 영종(靈鐘)이 동쪽에서 응(應)하고 또 이르기를 학명(鶴鳴)이 음(陰)에 있으면 그 새끼가 거기에 화(和)하니 그 동성(同聲)이 상응(相應)하여 동기(同氣)가 상구(相求)할 뿐이다. 선현(先賢)이 이르기를 기(氣)가 화(和)하면 형(形)이 화(和)하고 형(形)이 화(和)하면 기(氣)가 화(和)하니 형(形)과 기(氣)가 함께 화(和)하면 물(物)은 화생(化生)한다. 그러므로 음양(陰陽)이 화(和)하면 만물(萬物)이 생(生)하고 부부(夫婦)가 화(和)하면 남녀(男女)가 육(育)한다. 또 만약 병(丙)이 중도(中途)에서 을(乙)을 배(配)하고 을(乙)이 반도(半道)에서 병(丙)을 배(配)하면 가령 병(丙)은 인(寅)에서 생(生)하는데 수(水)가 인(寅)으로부터 내(來)하지 않고 진사방(辰巳方)에서 내(來)하여 수구(水口)에 이르러 술(戌)상으로 출수(出水)하면 이는 현두(玄竇)가 상통(相通)하여 내수(來水)는 단지 중도(中途)에 나타난다. 이것은 본래 정배(正配)가 되는데 다만 발복(發福)이 지완(遲緩)하니 노년(老年)의 과제(科第)를 주관한다. 여러 가지가 모두 지(遲)하여 노부(老夫) 소처(少妻)가 생자(生子)하는 응(應)함이 있으니 인정(人丁)이 불왕(不旺)하고 장방(長房)이 불리(不利)하며 특히 중소방(中小房)의 재록(財祿)이 발(發)한다. 또 수(水)가 다른 곳을 따라 횡과(橫過) 복당(伏堂)하여 출(出)하면 또한 길에서 만난 것과 같다. 이것은 용(龍)이 합국(合局)을 못하니 발복을 못하는 터이다. 비록 발(發)하여도 경(輕)하다. 수(水)를 알고 입향(立向)하면 능히 향상(向上)에서 소식(消息)하니 객수(客水) 등당(登堂)하여도 능

히 길(吉)에 이른다.

[이녀(二女)가 동거(同居)하면 순음(純陰)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양남(兩男) 병처(並處)에는 독양(獨陽)으로 생(生)하지 못한다.]

가령 을해룡(乙亥龍)이 묘목수(卯木水)의 내(來)함을 얻고 더불어 자오수(子午水)가 내(來)하여 도당(到堂)하고 우전(右轉) 도좌(倒左)하면 이 또한 음(陰)이 음(陰)을 만나 이녀(二女) 동거(同居)가 되어 순음(純陰)으로 부장(不長)한다. 대개 수(水)와 용(龍)은 일로(一路)로 내(來)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차 좌수(左水) 우도(右倒)하여 음수(陰水)와 만나 행(行)하면 꺼리지 않는다. 병인룡(丙寅龍)이 임경갑수(壬庚甲水)를 얻어 좌행(左行) 도우(倒右)하여 거(去)하면 이는 양(陽)이 양(陽)을 만나기 때문에 양남(兩男) 병처(並處)가 되니 독양(獨陽) 불생(不生)이다. 만약 우수(右水) 도좌(倒左)를 얻어 음수(陰水)를 만나 출(出)하면 꺼리지 않는다.

[음(陰)과 양(陽)이 과교(過交)하여 지나치면 해(害)가 되고 양(陽)이 음(陰)을 만나 불급(不及)하여 폐(廢)하면 공(功)이 없다.]

가령 을해룡(乙亥龍)이 병화(丙火)와 교(交)하면 응당 인사(寅巳)상으로부터 수래(水來)하여 합도(合倒)하여 술자(戌字)상에 이르러 출수(出水)해야 한다. 술(戌)상으로 출(出)하지 않고 과류(過流)하여 건해자(乾亥字)상에 이르러 출(出)하면 이름 하여 과교(過交)가 되며 지나치면 도리어 능히 인정(人

丁)을 휴손(虧損)하니 생기(生氣)를 충산(冲散)하기 때문이다. 다시 비횡(非橫) 관재(官災) 고절(孤絶)이 생(生)하고 출인(出人)이 강악(剛惡)하며 이미 높이 과(過)하면 멸(滅)하여 인물(人物)이 이치를 어기고 패가(敗家)한다. 또 가령 병인룡(丙寅龍)이 을목(乙木)과 교(交)하면 응당 간병(艮丙)상에 도좌(倒左) 내향(來向)하여 술(戌)상으로 출(出)하면 마야호로 합(合)인데 도리어 술(戌)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곧 건해(乾亥)를 따라 출(出)하면 불급(不及)이 되어 폐(廢)하니 출인(出人)이 나 겁(懦怯) 무모(無謀) 빈약(貧弱) 무력(無力) 다욕(多欲) 소성(小成) 유시무종(有始無終) 극처상자(剋妻喪子) 만년상패(晚年喪敗)한다. 비록 사명(砂明) 수수(水秀)하여 향록(享祿)하여도 불구(不久)하고 벼슬을 하여도 적강(謫降)이 불일(不一)이다. 천기결(天機訣)에 이르기를 수교(水交) 불급(不及)이면 안회(顔回) 삼십이(三十二)라 하여 죽음을 말하고 또한 요수(夭壽)가 출(出)한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음목룡(陰木龍)이 양화향(陽火向)을 세우면 건해(乾亥) 수구(水口) 음금룡(陰金龍)이 양수향(陽水向)을 세우면 손사수구(巽巳水口) 음화룡(陰火龍)이 양금향(陽金向)을 세우면 간인수구(艮寅水口) 음수룡(陰水龍)이 양목향(陽木向)을 세우면 곤신수구(坤申水口)는 이 모두 지나쳐서 과술(過戌)한다. 양목룡(陽木龍)이 음수향(陰水向)을 세우면 곤신수구(坤申水口) 양화룡(陽火龍)이 음목향(陰木向)을 세우면 건해수구(乾亥水口) 양금룡(陽金龍)이 음화향(陰火向)을 세우면 간인수구(艮寅水口) 양수룡(陽水龍)이 음금향(陰金向)을 세우면 손사수구(巽巳水口)는 이 모두 폐(廢)가 되고 불급(不及)이다. 지나치면 출인(出人)이 강강(剛強)하고 상가(喪家)하며 폐(廢)이면 출인(出人)이 나약(懦弱)하고 냉퇴

(冷退)한다.

[화육(化育)은 용가(龍家)에 근본을 두고 성쇠(盛衰)는 형응(形應)에 매인다.]

대저 천지(天地)는 하나의 남녀(男女)다. 남녀(男女)는 하나의 천지(天地)다. 남녀(男女)를 보면 천지(天地)를 알 수 있다. 건양(乾陽)은 생물(生物)의 기(機)를 주재하고 곤음(坤陰)은 생물(生物)의 능(能)함을 이룬다. 마치 남녀(男女)가 합(合)하여 잉육(孕育)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양(陽)은 음응(陰應)을 용(用)하고 음(陰)은 양조(陽朝)를 용(用)한다. 형(形)은 기(氣)로써 물(物)에 접촉한다. 인(因)하여 생기(生氣)가 감(感)하여 응(應)하니 귀복(鬼福)으로 미친다. 이로 인하여 논(論)하면 부귀(富貴)가 생(生)하고 인정(人丁)이 왕(旺)함은 모두 수신(水神) 교회(交會)의 합법(合法)에 있고 뒤에 응(應)한다. 빈천(貧賤)을 주관하고 고궁(孤窮)을 받는 것도 오직 수신(水神) 내거(來去)의 실도(失度)가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기화(氣化)가 모이고 모이지 못하거나 혹은 성(盛)하고 혹은 쇠(衰)함은 수(水)에 매일 뿐이다. 용(龍)이 양(陽)이고 수(水)가 음(陰)이거나 혹은 용(龍)이 음(陰)이고 수(水)가 양(陽)이면 음양(陰陽)이 교구(交媾)하니 기(氣)가 감(感)하고 응(應)하여 귀복(鬼福)이 비로소 생(生)한다.

뇌씨(賴氏)가 이르기를 백온선생(伯溫先生)의 주(註)에는 화육(化育)이 비록 음양(陰陽) 용기(龍氣)에 근본을 두고 있으나 부귀(富貴) 빈천(貧賤)을 발(發)하는 바는 또 형응(形應)에 매인다. 형응(形應)은 물(物)에 감촉(感觸)하여 따르고 시작된다. 대개 용기(龍氣)의 융결(融結)을 말하는데 혈(穴)을 얻지 못하

면 형(形)과 기(氣)가 불응(不應)하여 쇠(衰)한다. 혈(穴)이 생기(生氣)를 타면 형(形)과 기(氣)가 응(應)하여 성(盛)한다. 이것은 승기(乘氣)로써 혈(穴)의 입법(立法)을 주관한다. 음양(陰陽)이 교구(交媾)하나 향(向)을 얻지 못하면 향(向)과 기(氣)가 불응(不應)하여 쇠(衰)한다. 향(向)이 당기(堂氣)를 승(乘)하면 향(向)과 기(氣)가 응(應)하여 성(盛)한다. 이것은 또 승기(乘氣)로 입향(立向)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좌행(左行)은 해자(亥子)를 따라 나아가고 우행(右行)은 자해(子亥)를 따라 선(旋)한다.]

이것은 포기(布氣)하여서 성쇠(盛衰)를 살펴 입향(立向)하여서 생왕(生旺)의 법을 구(求)한다. 향(向)이 하나를 분명히 가리키면 수신(水神)의 생왕(生旺) 사절(死絕)이 요연(燎然)하게 목(目)에 있다. 그러므로 양(陽)은 좌선(左旋)을 따라 해자축(亥子丑)으로부터 행(行)하고 음(陰)은 우선(右旋)을 따라 자해술(子亥戌)로부터 나아간다. 각기 음양(陰陽) 조응(朝應)으로 인하여 순역(順逆)의 법이 된다. 이른바 이십사산(二十四山)이 순역(順逆)으로 나뉘어 음양(陰陽)의 조(祖)와 종(宗)을 알아 취한다. 양(陽)은 좌변(左邊)을 따라 둥글게 돌고 음(陰)은 우로(右路)를 따라 돌아 서로 통(通)한다.

[생왕(生旺) 호용(互用)하고 현규(玄竅) 상통(相通)한다.]

가령 을병(乙丙)이 상견(相見)하면 을목(乙木)은 오(午)에 생(生)하고 인(寅)에 왕(旺)이다. 병화(丙火)는 인(寅)에 생(生)하고 오(午)에 왕(旺)이다. 을목(乙木)이 생(生)하는 자리는 병화

(丙火) 제왕(帝旺)의 방위다. 을목(乙木) 제왕(帝旺)의 방위는 병화(丙火)가 생(生)하는 자리다. 을(乙)과 병(丙)이 교(交)한다. 그러므로 생왕호용(生旺互用)이라 한다. 병(丙)의 묘(墓)는 술(戌)에 있고 을(乙)의 묘(墓)도 같다. 그러므로 현규상통(玄竅相通)이 된다. 대개 병을(丙乙) 모두 술토(戌土)가 수구(水口)가 된다. 양공(楊公)이 장(葬)한 백룡담(白龍潭)은 을해룡(乙亥龍) 주혈(主穴)인데 을(乙)의 생기(生氣)는 오(午)에 있다. 을(乙)이 병향(丙向)을 용(用)하면 생기(生氣)는 인(寅)이고 술(戌)상으로 출수(出水)한다. 이것이 바로 생왕호용(生旺互用) 현규상통(玄竅相通)이다. 그러므로 대부귀(大富貴)를 발(發)한다. 병향(丙向)은 인갑수(寅甲水)를 거두어 술(戌)로 귀(歸)한다. 서씨(徐氏)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을목(乙木)은 오(午)에 생(生)하고 인(寅)에 왕(旺)이며 병화(丙火)는 인(寅)에 생(生)하고 오(午)에 왕(旺)이니 현규(玄竅)가 술(戌)에 모두 통(通)한다. 신금(辛金)은 자(子)에 생(生)하고 신(申)에 왕(旺)이며 임수(壬水)는 신(申)에 생(生)하고 자(子)에 왕(旺)이니 현규(玄竅)가 모두 진(辰)에 통(通)한다. 경금(庚金)은 사(巳)에 생(生)하고 유(酉)에 왕(旺)이며 정화(丁火)는 유(酉)에 생(生)하고 사(巳)에 왕(旺)이니 현규(玄竅)가 모두 축(丑)에 통(通)한다. 계수(癸水)는 묘(卯)에 생(生)하고 해(亥)에 왕(旺)이며 갑수(甲水)는 해(亥)에 생(生)하고 묘(卯)에 왕(旺)이니 현규(玄竅)가 모두 미(未)에 통(通)한다. 이것은 전(前)에 을병교이추술(乙丙交而趨戌) 일절(一節)의 의(意)이다.

[오직 짝(偶)은 계합(契合)에서 이루어지고 형매(兄妹)에서 만나면 즐겁지 않다.]

을병(乙丙) 정경(丁庚) 계갑(癸甲) 신임(辛壬)은 모두 계합(契合)하여 짝이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을해(乙亥)가 갑수(甲水)를 보고 신유(辛酉)가 경수(庚水)를 보며 계룡(癸龍)이 임수(壬水)를 보고 정룡(丁龍)이 병수(丙水)를 보면 을갑(乙甲) 신경(辛庚) 임계(壬癸) 정병(丁丙)은 모두 형매(兄妹) 동기(同氣)가 있다. 어찌 그 마땅히 만나야 할 바 이겠는가. 비록 을(乙)이 갑(甲)을 보면 음(陰)이 양(陽)을 만남이 되나 모두 즐겁지 않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예(禮)를 제(制)하여 가실(家室)을 밝혀서 남녀(男女)를 구별하였고 이성(異姓)에 장가들어서 부처(夫妻)를 분별하였다.]

이것은 주공(周公)이 제례(制禮)하여 남녀(男女)를 상배(相配)함을 말한다. 가실(家室)에 이성(異姓)을 상합(相合)하게 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밝혀 제례(制禮)하여 동성자(同姓者)에 장가들지 못하게 하여서 족(族)을 분별하였다. 성인(聖人)의 마음이 천도(天道)에 통(通)하고 덕(德)이 지기(地紀)에 밝으니 천경(天經)을 본받아 지기(地紀)로 인(人)을 가운데에 세우고 또한 이기(理氣) 자연(自然)의 운(運)을 요(要)한다.

[이것은 대개 천경(天經) 지의(地義)의 상도(常道)인데 또한 이기(理氣) 자연(自然)의 운(運)을 요(要)한다.]

이것은 성인(聖人)이 남녀(男女)를 구별하고 부부(夫婦)를 분별하는 것으로 천경(天經) 지의(地義)의 상도(常道)를 본받아서 인기(人紀)를 세우고 이기(理氣) 자연(自然)의 운(運)에

합(合)한다. 요컨대 억지로 인정(人情)이 천지(天地)의 도(道)에 어긋나게 함이 아니고 그것은 위하여 제(制)하는 것이니 성인(聖人)이 예(禮)를 제(制)하여서 남녀(男女)에 합(合)하여 음양(陰陽)을 정(定)하고 천경(天經) 지의(地義)의 상도(常道)에 벗어나지 않으니 지리(地理)에 음양(陰陽) 상견(相見) 빈모(牝牡) 교구(交媾)를 취(取)함을 안다. 각기 정배(正配)가 있으니 난(亂)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천지(天地) 자연(自然)의 기(氣)이고 만물(萬物)을 화육(化育)하는 진기(眞機)가 거기에 있다.

[천관(天關)이 재록(財祿)의 근원을 개(開)한다면 지축(地軸)은 화생(化生)의 두(竇)를 깊게 한다.]

수신(水神)의 발원처(發源處)는 이름 하여 천관(天關)이고 수신(水神)의 유출처(流出處)는 지축(地軸)이 된다. 천관(天關)은 재록(財祿)을 주관하고 지축(地軸)은 인정(人丁)을 관장한다. 내수(來水)가 심장(深長)하면 재록(財祿)이 유원(悠遠)하다. 출수(出水)가 합법(合法)하면 인정(人丁)이 번식(蕃息)한다. 현두(玄竇)로 화생(化生)의 빈호(牝戶)를 삼기 때문이다.

[법(法)이 현공(玄空)을 나타내면 신공(神功)이 막측(莫測)하다.]

수(水)와 용(龍)이 상교(相交)하여 음양(陰陽) 상견(相見)의 의(義)를 얻어서 생왕(生旺)이 도당(到堂)하면 생수(生水)는 발인(發人)하고 왕수(旺水)는 발록(發祿)한다. 또한 반드시 향(向)해야 할 곳에 혹 음양(陰陽)이 배치(背馳)되고 향지(向指)

가 재록(財祿)과 인정(人丁)이 둘을 거두기 어려워 휴(虧)한 곳이 있으면 또 현공오행(玄空五行)의 법(法)을 세워 입수(入水)를 취(取)다. 사금(四金) 사화(四火) 사목(四木) 사토(四土)가 이십사산(二十四山)중에 포열(布列)되고 용(用)하여 수로(水路)에 소식(消息)한다. 생아(生我) 극아(剋我)를 취하면 길(吉)이 되고 생출(生出) 극출(剋出)은 흉(凶)이 된다. 내수(來水)가 합법(合法)하면 반드시 재록(財祿)이 발(發)하고 거수(去水)가 합도(合度)하면 반드시 인정(人丁)이 왕(旺)하다. 길(吉)하면 길응(吉應)하고 흉(凶)하면 흉응(凶應)한다. 신공(神功)이 막측(莫測)하다.

[오행(五行)이 실은 용가(龍家)에 관계가 없고 화복(禍福)은 수로(水路)에서 밝게 취(取)해야 한다.]

현공오행(玄空五行)과 용가(龍家) 본음(本音)의 의(義)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본산(本山) 오행(五行)은 갑을손인묘(甲乙巽寅卯)는 목(木)에 속하고 병정사오(丙丁巳午)는 화(火)에 속하며 경신건신유(庚申乾辛酉)는 금(金)이고 임계해자(壬癸亥子)는 수(水)에 속하며 곤간진술축미(坤艮辰戌丑未)는 토(土)에 속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현공(玄空)의 기(氣)는 또 을목(乙木) 유금(酉金)은 화(火)가 되고 손목(巽木) 신금(申金)은 수(水)가 된다. 결(訣)에 이르기를 병정을유(丙丁乙酉)는 원래 화(火)에 속하고 건곤묘오(乾坤卯午)는 금(金)이며 해계갑간(亥癸甲艮)은 목(木)이고 술경축미(戌庚丑未)는 토(土)이며 자인진손(子寅辰巽)은 수(水)이고 신사임신(辛巳壬申)도 수(水)이다. 취용(取用)은 향수(向首)와 수구(水口) 내거지(來去地)가 무슨 자(字)가 무슨 오행(五行)을 얻어서 생극(生剋)을 구(求)

한다.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돌아오면 관(官)이 되고 부(父)가 된다.]

나를 극(剋)하면 관(官)이 되고 나를 생(生)하면 부(父)가 된다. 보통 오행(五行)의 기(氣)는 상생(相生)을 취(取)하고 상극(相剋)을 꺼린다. 이에 반하여 극입(剋入)을 취하는 것은 대개 수신(水神)이 내(來)하여 나의 정(情)과 내교(來交)하고자 하니 스스로 그것을 향한다. 그러므로 나를 생(生)하고 나를 극(剋)하는 것은 정(情)이 그로부터 들어온다. 수신(水神)이 출거(出去)하면 정(情)은 절(絶)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를 생(生)하고 나를 극(剋)하는 것 또한 정(情)이 그로부터 들어온다. 산의 체(體)는 정(靜)하여 오르지 한다면 오직 고요하여 오르지 하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지킨다. 생출(生出) 극출(剋出)은 동(動)이다. 수룡(水龍)은 움직여 번드니 오직 움직여 번들기 때문에 항상 운화(運化)하니 극입(剋入) 생입(生入)하여 화공(化工)은 자성(自成)한다. 혈(穴)은 용(龍)에 의지한 군도(君道)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삼가고 남면(南面)하여 영(令)을 출(出)하는 것이다. 향(向)은 수(水)에 의지하는 신도(臣道)로 군(君)의 영(令)을 행(行)하여 시화(施化)하는 것이다. 군(君)은 편안하나 이룸이 있고 신(臣)은 노(勞)하여 공(功)을 이룬다. 이것 또한 천지(天地) 자연(自然)의 운(運)이다. 이와 같으니 생입(生入) 극입(剋入)의 뜻은 명백하다.

[주고 빼앗으면 그것이 무심(無心)하여 어찌 돕겠는가. 생입

(生入) 극입(剋入)하면 정(情)이 이미 거(去)하나 다시 머무른다.]

수신(水神)이 유출(流出)하면 세(勢)가 나에게 돌아 올 수 없다. 비록 생(生)하나 덕(德)이 되지 못하고 비록 극(剋)하나 원망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저것이 무심(無心)하여 어찌 돕겠는가. 그러나 수신(水神)이 유출(流出)하면 세(勢)가 비록 돌릴 수는 없으나 그 정(情)은 나를 잃을 수 없다. 진실로 저것을 위할 수 없다. 어찌하여 저것의 정(情)이 능히 나를 잊지 못하겠는가. 세(勢)가 가고자 하나 나를 생(生)하고 내가 극(剋)한다. 또한 능히 나를 위하여 복(福)을 짓는다. 내(來)하면 이미 은혜를 베풀고 거(去)하여도 복(福)을 바친다. 어찌 길(吉)함이 되지 않겠는가. 장고송(張古松)이 현공(玄空)의 법을 논(論)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정(情)이 나로부터 출(出)하면 용기(龍氣)를 설(泄)한다. 정(情)이 저것으로부터 출(出)하면 용기(龍氣)를 덮는다. 이 네 구절은 바로 생입(生入) 극입(剋入)을 가리키어 말한다. 비록 극출(剋出)이라 하나 또한 정(情)이 자기로부터 출(出)할 뿐이다. 비록 극입(剋入)이라 하나 또한 정(情)이 밖으로부터 들어온다.

[천지(天地)를 다스려 화육(化育)을 돕는 데는 그 도(道)가 아님이 없다. 조화(造化)를 돌려 천명(天命)을 바꾸는 데는 술(術)이 어찌 묘(妙)한가.]

[지극한 도(道)는 정미(精微)하여 오직 성인(聖人)이 된 뒤에 능히 그에 이를 수 있다. 밝은 지혜가 아니면 그 누가 능히 알겠는가.]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이 두 구절의 대요(大要)는 현공수법(玄空水法)을 말한다. 천(天)을 돌려 명(命)을 고치고 이치가 정(精)하고 의(義)가 현(玄)하니 반드시 지혜로운 자는 능히 알고 용우(庸愚)하지 않아야 용(用)할 수 있다. 이것은 번거롭지 않은 해설이다. 구주(舊註)는 너무 잘게 나누었다.

[길지(吉地)는 매번 적덕(積德)에 머무르고 악지(惡地)는 매번 사음(邪淫)에 준다. 악(惡)한 사람을 경계하여 천신(天神)이 공노(共怒)한다.]

장법(葬法)에 천(天)을 돌려 명(命)을 고치는 공(功)이 있어 능히 귀복(鬼福)을 불러서 사람에게 미치니 길지(吉地)가 있으면 응당 적덕(積德)의 가(家)에 머무르고 선지(善地)는 악(惡)한 무리에 줄 수 없다. 대개 복선(福善) 화음(禍淫) 이것은 천도(天道)다. 천도(天道)에 순(順)하면 조복(造福)하니 하늘이 반드시 거기에 응(應)한다. 만약 사음(邪淫)의 무리에 주면 하늘이 진실로 재앙을 내리며 사람이 복(福)을 내리고자 하면 이는 천도(天道)를 어기어 요행의 복(福)이다. 천지(天地) 귀신(鬼神)이 사(邪)를 기꺼이 용서하여 하늘이 악인(惡人)에 죄를 주지 않고 법상가(法象家)에 죄를 준다. 다행이 착한 지사가 전(傳)한 경계의 말이 가까이 있다. 감히 소홀이 하겠는가.

천기부(天機賦)

[심룡(尋龍)의 법(法)을 상고하면 첫째 용기(龍氣)의 성쇠(盛衰)를 보고 다음에 향수(向水)의 길흉(吉凶)을 본다. 소서(召

瑞) 요상(邀祥)의 묘(妙)함을 살피고 음양(陰陽) 조응(朝應)의 정(情)을 살핀다.]

용운(龍運)은 오행(五行)으로 다스려 이십사산(二十四山)상에 배(配)한다. 가령 해묘방(亥卯方) 도두(到頭)면 목룡(木龍)의 운용(運用)이니 목(木)은 해(亥)에서 생(生)하여 기례(起例)한다. 그러나 음양(陰陽)의 나뉘어 있으니 양목(陽木)은 해(亥)에서 일으키고 음목(陰木)은 오(午)에서 기(起)하여 순포(順布) 역포(逆布)한다. 각기 음양(陰陽)으로 나누어 행운(行運)하여서 생왕휴폐(生旺休廢)를 살핀다. 생왕(生旺)은 길(吉)하고 휴폐(休廢)는 흉(凶)하여 길흉화복(吉凶禍福)은 얻어 알 수 있다. 그 소서요상(召瑞邀祥)의 법은 아울러 향상(向上)으로 소(消)한다. 가령 생방(生方) 수래(水來)는 길(吉)하니 향(向)으로 따르고 왕방(旺方) 수래(水來)는 길(吉)하니 향(向)으로 맞이한다. 양공(楊公)이 이르기를 향(向)은 수(水)에 의(依)하여 세우면 바로 복을 맞이하는 법이라고 했다.

[생왕묘(生旺墓)가 삼방(三方)에 조합(弔合)하면 맹중계(孟仲季)의 공위(公位)가 나뉘는 바이다. 십이궁(十二宮)이 오행(五行)에 배속(配屬)되면 빈천(貧賤)은 파(破)하고 천성(天星)이 비로소 정(定)하여 진다.]

인신사해(寅申巳亥)는 사맹(四孟)이고 건곤간손(乾坤艮巽)이 예속된다. 자오묘유(子午卯酉)는 사중(四仲)이고 갑경병임(甲庚丙壬)이 예속된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사계(四季)이고 을신정계(乙辛丁癸)가 예속된다. 가령 장생(長生) 사맹(四孟)이면 길흉(吉凶)이 장(長)에 응(應)한다. 가령 제왕(帝旺)이 사중

(四仲)에 있으면 길흉(吉凶)이 유(幼)에 응(應)한다. 가령 묘고(墓庫)가 사계(四季)에 있으면 길흉(吉凶)이 유자(幼子)에 응(應)한다. 장생(長生)은 탐랑(貪狼)이 되고 관왕(官旺)은 무곡(武曲)이 되며 묘고(墓庫)는 파군(破軍)이 된다. 아울러 맹중계(孟仲季)로 분배(分配)하여서 공위(公位)를 붙인다.

[인정(人丁)은 실로 장생(長生)에 매이고 재록(財祿)은 반드시 관왕(官旺)에 근(根)한다. 그래서 생수(生水)가 조당(朝堂)하면 종사(螽斯)가 천고(千古)하고 왕신(旺神)이 국(局)에 모이면 식록(食祿)이 만종(萬鍾)이다.]

장생(長生)은 인정(人丁)을 관(管)하고 제왕(帝旺)은 관록(官祿)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장생수(長生水)가 도당(到堂)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제왕수(帝旺水)가 조당(朝堂)하면 재백(財帛)이 풍영(豐盈)하다.

[부귀(富貴)를 탐(貪)하면 생(生)을 버리고 왕(旺)을 향한다. 사속(嗣續)을 도모하면 왕(旺)을 등지고 생(生)을 맞이한다.]

입향법(立向法)은 먼저 수구(水口)로서 주(主)를 삼고 그런 뒤에 내수(來水) 방위(方位)가 어느 생왕(生旺)에 속하는지를 자세히 살핀다. 생왕(生旺)이 가령 생수(生水)가 도당(到堂)하고 향(向)이 생기(生氣)를 타면 인정(人丁)이 먼저 발(發)한다. 왕수(旺水)가 도당(到堂)하면 재록(財祿)이 먼저 발(發)한다. 이것이 양공(楊公)의 구빈술(救貧術)이다. 또 길지(吉地)를 얻어서 그렇게 된 곳이 수신(水神)의 내거(來去)에 향(向)이 그것을 승(乘)하면 곧 능히 발복(發福)한다. 그와 같으니 길지

(吉地)를 얻었으나 향(向)이 수(水)에 불합(不合)하면 또한 발복(發福)을 못한다. 하물며 길기(吉氣)가 없는데서 승(乘)할 수 있겠는가.

[파군(破軍)이 제왕(帝旺)의 향(鄉)을 침범하면 몸이 한 목숨 붙여 살 곳이 없고 천강(天罡)이 탐랑(貪狼)의 위(位)를 침범하면 반자(半子)의 영화도 불러 오기 어렵다.]

묘(墓)의 수(水)가 역류(逆流) 도당(到堂)하여 관왕(官旺)을 충파(冲破)하면 반드시 빈천(貧賤)하다. 신무일명(身無一命)은 귀(貴)하지 못함을 말하고 빈자호견(貧者互見)을 말하지 않는다. 묘수(墓水)가 장생(長生)을 충파(冲破)하면 인정(人丁)을 손(損)하고 소망(少亡) 고과(孤寡)를 주관한다. 여자 또한 불러 올 수 없다. 하물며 자식이 있겠는가. 심하게 말하여 절사(絶嗣)의 재앙이 이와 같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목국(木局)에 미수(未水)가 조래(朝來)하여 인묘방(寅卯方)을 유파(流破)하고 출(出)하고 화국(火局)에 술수(戌水)가 내향(來向)하여 사오방(巳午方)으로 출(出)하며 금국(金局)에 축수(丑水)가 내향(來向)하여 신유방(申酉方)으로 출(出)하고 수토국(水土局)에 진수(辰水)가 내향(來向)하여 해자방(亥子方)으로 출(出)하면 이것은 모두 파군(破軍)이 제왕방(帝旺方)을 파(破)함이 된다. 또 목국(木局)에 미수(未水)가 내향(來向)하여 건해방(乾亥方)으로 출(出)하고 화국(火局)에 술수(戌水)가 내향(來向)하여 간인방(艮寅方)으로 출(出)하며 금국(金局)에 축수(丑水)가 내향(來向)하여 손사방(巽巳方)으로 출(出)하고 수토국(水土局)에 진수(辰水)가 내향(來向)하여 곤신방(坤申方)으로 출(出)하

면 이것은 모두 천강(天罡)이 탐랑(貪狼)의 위(位)를 침범함이 된다.

[생래(生來) 회왕(會旺)하면 총명(聰明)한 자손이 바야흐로 생(生)하고 왕거(旺去) 충생(沖生)하면 비록 부귀(富貴)하나 헛된 것이다. 왕거(旺去) 영생(迎生)하면 부귀(富貴)의 시기가 갑자기 이르고 생래(生來) 파왕(破旺)하면 비록 자손이 있어도 무엇을 하는가.]

장생수(長生水)가 먼저 당국(堂局)에 도달하고 왕수(旺水)와 모여 합류(合流)하여 고(庫)에 있으면 장후(葬後)에 먼저 인정(人丁)이 발(發)하여 귀자(貴子)가 생(生)하고 과거에 급제함을 주관한다. 제왕수(帝旺水)가 먼저 당국(堂局)에 도달하고 장생수(長生水)와 모여 합류(合流)하고 고(庫)에 모이면 장후(葬後)에 먼저 관귀(官鬼)를 발(發)하고 뒤에 인정(人丁)을 발(發)한다. 만약 왕수(旺水)가 역류(逆流)하여 장생(長生)을 충파(沖破)하면 비록 관록(官祿)을 발(發)하여도 인정(人丁)을 손(損)한다. 생수(生水)가 역류(逆流)하여 제왕(帝旺)을 충파(沖破)하면 비록 인정(人丁)을 발(發)하여도 재록(財祿)을 상(傷)한다. 둘은 취(取)하기에 부족하다. 가령 그런 수법(水法)을 보면 모름지기 향상(向上)으로 소식(消息)한다. 장차 거수(去水)가 쇠절(衰絕)의 방(方)에 있게 하면 내수(來水)는 반드시 관왕방(官旺方)에 있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목국(木局)에 건해수(乾亥水)가 내(來)하여 갑묘수(甲卯水)에 모여 미(未)로 유귀(流歸)하여 거(去)하고 화국(火局)에 간인수(艮寅水)가 내(來)하여 병오수(丙午水)에 모여 술상(戌上)으로 유귀(流歸)하며 금

국(金局)에 손사수(巽巳水)가 내(來)하여 경유수(庚酉水)에 모여 축(丑)으로 귀(歸)하여 거(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곤신수(坤申水)가 내(來)하여 임자수(壬子水)와 모여 진상(辰上)으로 유귀(流歸)하면 이 모두 생래(生來) 회왕(會旺)이 되어 먼저 인정(人丁)이 왕(旺)하고 다음에 부귀(富貴)를 초래한다. 목국(木局)에 갑묘수(甲卯水)가 내(來)하여 건해(乾亥)로 유귀(流歸)하여 거(去)하고 화국(火局)에 병오수(丙午水)가 내(來)하여 간인(艮寅)으로 유귀(流歸)하여 거(去)하며 금국(金局)에 경유수(庚酉水)가 내(來)하여 손사(巽巳)로 유귀(流歸)하여 거(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임자수(壬子水)가 내(來)하여 곤신(坤申)으로 유귀(流歸)하여 거(去)하면 이 모두 왕거(旺去) 충생(冲生)이 되어 비록 발재(發財)하나 절사(絶嗣)한다. 목국(木局)에 갑묘수(甲卯水)가 먼저 도달하고 건해수(乾亥水)와 모여 미(未)에 합류(合流)하여 거(去)하고 화국(火局)에 병오수(丙午水)가 먼저 도달하고 간인수(艮寅水)와 모여 술(戌)에 합류(合流)하여 거(去)하며 금국(金局)에 경유수(庚酉水)가 먼저 도달하고 손사수(巽巳水)와 모여 축(丑)에 합류(合流)하여 거(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임자수(壬子水)가 먼저 도달하고 곤신수(坤申水)와 모여 진(辰)에 합류(合流)하여 거(去)하면 이 모두 왕거(旺去) 영생(迎生)이 되어 먼저 발재(發財)를 주관하고 다음에 인정(人丁)이 왕(旺)하다. 목국(木局)에 건해수(乾亥水)가 내(來)하여 갑묘(甲卯)로 유거(流去)하고 화국(火局)에 간인수(艮寅水)가 내(來)하여 병오(丙午)로 유거(流去)하며 금국(金局)에 손사수(巽巳水)가 내(來)하여 경유(庚酉)로 유거(流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곤신수(坤申水)가 내(來)하여 임자(壬子)로 유거(流去)하면 이 모두 생래(生來) 파왕(破旺)이 되어 단지 인정(人丁)이 왕(旺)함을 주관하나 빈궁(貧

窮)을 못 면한다.

[태(胎)가 떨어지지 않으면 요절(夭折)하는 것은 대부분 태신(胎神)을 충파(冲破)하기 때문이고 겨우 출세(出世)하나 망신(亡身)하는 것은 생기(生氣)를 격상(擊傷)하기 때문이다.]

태수(胎水)가 명당(明堂)에 유출(流出)하면 타태(墮胎)의 응(應)함이 있고 혈붕(血崩) 임력(淋瀝)의 처(處)에 이른다. 대개 태궁(胎宮)은 생기(生氣) 발맹(發萌)의 시초로 유출(流出)되면 여인(女人)이 태(胎)를 못 받고 유입(流入)되면 타태(墮胎)한다. 장생(長生)의 기(氣)가 바로 충달(充達)하나 수(水)가 협(夾)하여 그 기(氣)를 격산(擊散)하면 주기(周椿)적인 망신(亡身)의 화(禍)가 있다. 대개 생기(生氣)는 해아살(孩兒煞)이 된다. 세속에서 백일관(百日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목국(木局)에 수(水)가 경유방(庚酉方)을 따라 내거(來去)하고 화국(火局)에 수(水)가 임자방(壬子方)을 따라 내거(來去)하며 금국(金局)에 수(水)가 갑묘방(甲卯方)을 따라 내거(來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수(水)가 병오방(丙午方)을 따라 내거(來去)하면 이 모두 태신(胎神)을 충파(冲破)함이 된다. 목국(木局)에 건해(乾亥) 수구(水口), 화국(火局)에 간인(艮寅) 수구(水口), 금국(金局)에 손사(巽巳) 수구(水口), 수토국(水土局)에 곤신(坤申) 수구(水口)는 모두 생기(生氣)를 격상(擊傷)하게 된다.

[관대(冠帶)는 초촌(齠齔)의 남(男)을 주관하고 임관(臨官)은 성재(成材)의 자(子)를 상(喪)한다.]

기(氣)가 관대(冠帶)에 이르면 충(充)하고 장(長)한다. 그 충장(充長)의 기(氣)를 격산(擊散)하면 초춘(齠齔)을 손(損)하고 장차 출(出)할 유인(幼人)에 미친다. 기(氣)가 임관(臨官)에 이르면 장(長)하고 성(盛)하다. 그 충성(充盛)의 기(氣)를 격산(擊散)하면 손약(損弱)함이 삼십(三十) 상하(上下)의 인(人)에 미친다. 대개 기혈(氣血)은 바야흐로 중년(中年)에 강(剛)하여 그 기(氣)를 손(損)하면 요(夭) 또한 반드시 응(應)한다. 또 사람이 이삼십(二三十)때에 이르면 성재(成財)한다. 기(氣)는 형(形)으로 응(應)하니 조화(造化)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이다. 성인(聖人)이 순시(順時)에는 정치를 하고 천화(天和)를 보양(保養)하여 어긋남이 없게 한다. 그러므로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이 그시기를 잃지 않는다. 도끼를 갖고 산림(山林)에 들어갈 때에 눌러 절제하고 애양(愛養)하는 자는 하늘이 그 방장(方長)의 기(氣)를 손절(損折)하고자 하지 않으며 충장(充長) 조달(條達)하게 한다. 그러므로 보상(輔相)이라 한다. 의당 지리가(地理家)는 생왕(生旺)의 기(氣)를 상(傷)함을 꺼리고 그것을 보전(保全)하여 사람들에게 복(福)을 짓는다. 바로 운기(運氣)로 인하여 발달(發達)한다.

서씨(徐氏)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목국(木局)에 계축(癸丑)상으로 수거(水去)하고 화국(火局)에 을진(乙辰)상으로 수거(水去)하며 금국(金局)에 정미(丁未)상으로 수거(水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신술(辛戌)상으로 수거(水去)하면 이 모두 그 방성(方盛)의 기(氣)를 격파(擊破)하게 된다. 그러므로 육칠세(六七歲) 아동(兒童)을 상(喪)하고 장관(將冠)의 자제(子弟)에 미친다. 목국(木局)에 간인(艮寅)상으로 수거(水去)하고 화국(火局)에 손사(巽巳)상으로 수거(水去)하며 금국(金局)에 곤신(坤申)상으로 수거(水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건해(乾亥)상

으로 수거(水去)하면 이 모두 그 충성(充盛)의 기(氣)를 격파(擊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년(壯年) 성재(成材)의 자(子)를 상(喪)한다.

[탐랑(貪狼)이 천강(天罡)에 직보(直步)하면 백년(百年) 이수(頤壽)하고 파살(破煞)이 생기(生氣)를 도충(倒冲)하면 정권(丁眷)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장생수(長生水)가 당(堂)을 향(向)하여 곡류(曲流)하고 본음(本音) 고묘방(庫墓方)에 직지(直至)하며 취축(聚畜) 유양(悠洋)하여 거(去)하고 달리 타방(他方)에 분류(分流) 파쇄(破碎)가 없으면 자손이 다수(多壽)한다. 이런 종류의 수법(水法)이 있으면 당국(堂局)이 주밀(周密)하여 내기(內氣)가 완고(完固)하다. 그러므로 그 응(應)함이 있다. 천강수(天罡水)가 좌후(坐後)로부터 생기(生氣)를 반충(反冲)하여도 인정(人丁)이 요망(夭亡)한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목국(木局)에 건해수(乾亥水)가 내(來)하고 달리 타방(他方)에 분류(分流) 파쇄(破碎)가 없이 정미방(丁未方)에 직귀(直歸)하여 거(去)하고 화국(火局)에 간인수(艮寅水)가 타방(他方)으로부터 잡류(雜流)가 없이 신술(辛戌)로 출(出)하며 금국(金局)에 손사수(巽巳水)가 내(來)하여 타방(他方)에 잡류(雜流)가 없이 계축(癸丑)으로 출(出)하고 수토국(水土局)에 곤신수(坤申水)가 내(來)하여 타방(他方)에 잡류(雜流)가 없이 을진(乙辰)으로 출(出)하면 이 모두 탐랑(貪狼)이 천강(天罡)에 직보(直步)하게 되어 고수(高壽)가 나온다. 목국(木局)에 면전(面前)에서 비록 건해수(乾亥水)의 조(朝)함을 얻어도 그 수원(水源)이 미방(未方)으로부터

내(來)하고 화국(火局)에 비록 간인수(艮寅水)의 조(朝)함을 얻어도 그 발원(發源)이 술(戌)상으로부터 내(來)하며 금국(金局)에 비록 손사수(巽巳水)의 조(朝)함을 얻어도 그 발원(發源)이 축상(丑上)으로부터 내(來)하고 수도국(水土局)에 비록 곤신수(坤申水)의 조(朝)함을 얻어도 그 발원(發源)이 진상(辰上)으로부터 내(來)하면 이 모두 파살(破煞)이 혈후(穴後)로부터 유출(流出)하여 그 생기(生氣)를 도충(倒冲)함이 된다. 더 불어 전(前)의 파군(破軍)이 탐랑(貪狼)의 위(位)를 범(犯)하는 의의(意義)와 부동(不同)한데 대개 전(前)에는 국내(局內)의 내거(來去)로써 말했고 이것은 국내(局內)에 그 발원(發源)을 겸하여 연구하였다.

[사패(四敗)가 생(生)을 상(傷)하면 비록 자(子)가 있어도 모명부암(母明父暗)이다. 왕신(旺神)이 목욕(沐浴)에 투(投)하면 거관(居官)하나 음란(淫亂)함이 부끄럽다.]

자오묘유(子午卯酉)는 함지수(咸池水)가 된다. 또 도화수(桃花水)로 이름한다. 만약 수(水)가 자오묘유상(子午卯酉上)으로부터 조래(朝來)하여 생방(生方)에 흘러 이르고 거(去)하면 무자(無子)할 뿐만 아니라 또 생(生)하여 비록 득자(得子)하여도 이는 간생(姦生)으로 모명(母明) 부암(父暗)이다. 만약 제왕수(帝旺水)가 조입(朝入)하여 자오묘유방(子午卯酉方)을 향(向)하면 이는 왕신(旺神)이 목욕(沐浴)의 향(鄉)에 투(投)함이니 비록 부귀(富貴)를 발(發)하여도 그 규문(閨門)이 음란(淫亂)하여 풍성(風聲)이 추(醜)하다.

[양차(陽差)를 만나면 극부(剋夫)하고 음착(陰錯)을 보면 상

처(傷妻)한다.]

양차(陽差)는 가령 을기(乙氣)가 임경갑(壬庚甲)을 보아 현규(玄竅)가 불통(不通)하니 부인(婦人)이 부(夫)를 극(剋)하여 고과(孤寡)를 주관한다.

음착(陰錯)은 가령 병기(丙氣)가 신정계(辛丁癸)를 보아 현규(玄竅)가 불통(不通)하니 남자(男子)가 처(妻)를 극(剋)하여 환거(鰥居) 무자(無子)를 주관한다. 기(氣)는 유(類)로 응(應)하기 때문이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음목룡(陰木龍)이 양화(陽火)와 같은 술수구(戌水口)를 못 만나고 진미축(辰未丑)으로 유출(流出)하고 음화룡(陰火龍)이 양금(陽金)과 같은 축수구(丑水口)를 못 만나고 미술진(未戌辰) 방(方)으로 유출(流出)하며 음금룡(陰金龍)이 양수(陽水)와 같은 진수구(辰水口)를 못 만나고 술미축(戌未丑) 방(方)으로 유출(流出)하고 음수토룡(陰水土龍)이 양목(陽木)과 같은 미수구(未水口)를 못 만나고 축진술방(丑辰戌方)으로 유출(流出)하면 이 모두 음(陰)이 양(陽)을 만나나 그 유(類)가 아니며 음차(陰差)가 된다. 양목룡(陽木龍)이 음수(陰水)와 같은 미수구(未水口)를 못 만나고 진술축방(辰戌丑方)으로 유출(流出)하고 양화룡(陽火龍)이 음목(陰木)과 같은 술수구(戌水口)를 못 만나고 진축미방(辰丑未方)으로 유출(流出)하며 양금룡(陽金龍)이 음화(陰火)와 같은 축수구(丑水口)를 못 만나고 미진술방(未辰戌方)으로 유출(流出)하고 양수토룡(陽水土龍)이 음금(陰金)과 같은 진수구(辰水口)를 못 만나고 술미축방(戌未丑方)으로 유출(流出)하면 이 모두 양(陽)이 음(陰)을 만나나 그 짝이 아니니 이는 양착(陽錯)이다.

[자웅(雌雄)이 길에서 만나면 만세(晩歲)에 영화(榮華)롭고 권속(眷屬)이 동정(同情)이면 가문(家門)에 효의(孝義)가 있다.]

해설은 전(前)의 조미부(造微賦)에 유(劉)씨의 주(註)중에서 본다.

[정(情)이 과(過)하여 지나치면 여망(呂望)이 팔순(八旬)에 좋은 때를 만났고 교여불급(交如不及)이면 안회(顔回)가 삼십(三十)에 곧 신망(身亡)하였다.]

교(交)가 극(極)하면 지나치므로 모년(暮年)에 발달(發達)하니 마치 태공(太公)이 문왕(文王)을 만나는 것 같다. 불급(不及)하면 폐(廢)하므로 소년(少年)이 요절(夭折)하니 마치 안회(顔回)와 같다. 서씨(徐氏)가 말한 과항(過亢) 불급(不及)은 내가 아울러 조미부(造微賦)중에 음여양이과교(陰與陽而過交)의 일절(一節)에 자세히 하였으니 여기서는 거듭 주(註)하지 않는다.

[수수(秀水)가 내(來)하여 특조(特朝)하고 파왕(破旺)하면 응(應)함이 거관(居官)하나 졸(卒)하여 환시(還屍)를 임(任)한다.]

왕방(旺方)은 관록(官祿)을 주관하고 수수(秀水)는 영귀(榮貴)를 주관한다. 만약 삼길(三吉) 육수(六秀)가 특조(特朝)하여 도당(到堂)하나 향전(向前)으로부터 관왕방(官旺方)으로 유출(流出)하면 자손이 과갑(科甲)하나 선종(善終)을 못하고 시

(屍)를 들고 회가(回家)한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목국(木局)에 간병손신태정수(艮丙巽辛兌丁水)가 조(朝)하여 갑묘방(甲卯方)으로 유출(流出)하여 거(去)하고 화국(火局)에 간병손신태정수(艮丙巽辛兌丁水)가 조(朝)하여 병오방(丙午方)으로 유출(流出)하여 거(去)하며 금국(金局)에 간병수(艮丙水) 신태정수(辛丁水)가 조(朝)하여 경유방(庚酉方)으로 유출(流出)하여 거(去)하고 수토국(水土局)에 간병손신태정수(艮丙巽辛兌丁水)가 조(朝)하여 임자방(壬子方)으로 유출(流出)하여 거(去)하면 이 모두 수수(秀水)가 특조(特朝)하여 과왕(破旺)하게 되니 비록 귀(貴)를 주관하나 관(官)에서 사(死)한다.

[방분(房分)의 영고(榮枯)를 궁구하게 되면 삼방(三方)의 등제(等第)를 품(品)하면 경중(輕重)이 있다. 모름지기 완급(緩急)을 밝히면 재상(災祥)의 응험(應驗)은 반드시 선후(先後)가 있다.]

분방(分房) 공위(公位)는 생왕묘(生旺墓) 삼방(三方)에 맹중계(孟仲季)를 배(配)하여서 길흉(吉凶)을 단(斷)하는 법이다. 주(註)는 전(前)을 본다. 가령 맹(孟)은 장자(長子)가 되고 장생(長生)은 장방(長房)을 관할하고 인정(人丁)을 주관한다. 만약 생수(生水)가 먼저 도당(到堂)하면 장방(長房)이 먼저 발(發)한다. 중(仲)은 중자(中子)가 되고 제왕(帝旺)은 중방(中房)을 관할하고 재록(財祿)을 주관한다. 만약 왕수(旺水)가 먼저 도당(到堂)하면 중방(中房)이 먼저 발(發)한다. 생수(生水)가 선도(先到)하면 인정(人丁)이 선발(先發)하고 왕수(旺水)가 선도(先到)하면 관록(官祿)이 선발(先發)한다. 이것이 완급(緩

急) 선후(先後)의 응(應)함이다. 나머지도 유추(類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맹형(孟兄)의 기위(寄位)는 탐랑(貪狼)이고 태(胎) 목(沐) 양(養) 생(生)도 동단(同斷)한다. 중자(仲子)는 무곡(武曲)에서 권(權)을 취(取)하고 관(冠) 임(臨) 쇠(衰) 왕(旺)도 다름이 없다. 삼위(三位) 차례는 숙계(叔季)에 해당하고 파군(破軍) 휴폐(休廢)에 분속(分屬)된다.]

이 십이위(十二位)는 삼방(三房)을 나누면 탐랑(貪狼)은 장방(長房)을 관할하고 태(胎) 목(沐) 양(養) 삼방(三方)이 매인다. 무곡(武曲)은 중방(中房)을 관할하고 관대(冠帶) 임관(臨官) 쇠(衰)가 매인다. 천강(天罡)은 삼방(三房)을 관할하고 병(病) 사(死) 묘(墓) 절(絶)이 매인다. 생왕(生旺)이 내(來)하면 길(吉)하여 장중방(長中房)에 응(應)한다. 병(病) 사(死) 절(絶)이 거(去)하면 길(吉)하여 소방(小房)에 응(應)한다. 다만 수신(水神)의 내거(來去)는 삼길육수(三吉六秀)를 살펴서 판단한다.

[그래서 멀리서 생수(生水)가 천강(天罡)을 관(貫)하면 특별히 장형(長兄)만 육수(毓秀)하지 않는다. 굴곡(屈曲)하여 왕신(旺神)이 묘고(墓庫)에 귀(歸)하면 또한 중숙(仲叔)에 응(應)하여 고루 영화롭다.]

장생(長生)은 장방(長房)을 주관한다. 만약 생수(生水)가 당(堂)을 감싸고 직관(直貫)하여 묘방(墓方)으로 유수(流水)하면 장자(長子)와 중소(中小)의 삼방(三房)이 모두 길(吉)하다. 그

러므로 특별히 장형(長兄)만 육수(毓秀)하지 않는다 했다. 중간에 혹 잡수(雜水)가 있어 어느 궁(宮)으로 유파(流破)하면 묘방(某房)에 흉(凶)함이 응(應)한다고 단정한다. 관왕수(官旺水)가 굴곡(屈曲)하여 흘러 와서 조당(朝堂)하고 묘방(墓方)을 향(向)하여 출거(出去)하면 이방(二房)과 삼방(三房)에 길(吉)함이 응(應)하고 장방(長房)은 간예(干預)하지 않는다. 관왕수(官旺水)와 쇠병수(衰病水)가 유래(流來)하여 도당(到堂)하고 양생방(養生方)을 따라 거(去)하면 중방(中房)은 길(吉)하나 소장방(小長房)은 흉(凶)하다.

[생(生)과 왕(旺)이 동귀(同歸)하면 인(人)과 재(財)가 함께 길(吉)하다.]

생왕(生旺) 이방수(二方水)가 동도(同到) 조당(朝堂)하고 합류(合流)하여 묘(墓)로 출(出)하면 인정(人丁) 재백(財帛)이 모두 길(吉)하다.

[다시 육수(六秀)로부터 내(來)하면 만문(滿門)의 주자(朱紫: 고위관리)를 헤아리게 된다.]

생왕(生旺) 이수(二水) 모두 그 삼길육수방(三吉六秀方)에 매여 발원(發源)하고 도달하면 수기(秀氣)가 더욱 아름다워 인재(人財)중 하나가 아니고 함께 이롭다. 또 장원급제하고 부귀쌍전(富貴雙全)한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혈전(穴前)에서 볼 수 있는 수(水)가 가령 생왕(生旺)을 얻어 내조(來朝)하면 국내(局內)에 맞이할 수 있는 길기(吉氣)가 있다. 또 그 수(水)의 발원(發源)이 또

삼길육수방(三吉六秀方)으로부터 출(出)하고 그 발원(發源)이 이미 본래(本來)의 수기(秀氣)를 띠고 국내(局內)에 있으면 또 용향(龍向)에 유기(有氣)한 용신(用神)이 되고 원류(源流)가 협(協)하면 길(吉)한 복력(福力)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부귀(富貴)가 영문(盈門)함을 주관한다. 그 예(例)는 가령 목국(木局)에 건해(乾亥) 갑묘(甲卯)의 수(水)를 얻어 조(朝)하고 그 발원(發源)이 간병손신태정방(艮丙巽辛兌丁方)으로부터 내(來)하는 것이다. 나머지도 같은 예로 헤아린다.

[가령 요방(曜方)의 충지(冲至)함을 보면 응(應)함은 온 집안이 형(刑)을 만남을 안다.]

생왕(生旺) 이수(二水)가 비록 조당(朝堂)하여도 만약 길수(吉秀)등의 방(方)에서 내(來)하여 이르지 않고 후(後)에 팔요관살등방(八曜官煞等方)과 자오묘유(子午卯酉)의 함지(咸池)로부터 오면 군적(軍賊)이 노상(路上)에서 유래(流來)하니 비록 향상(向上)의 생왕(生旺)에 매여도 반드시 참혹한 형륙(刑戮)이 있다. 만약 본토(本土)가 휴수(休囚)되고 용신(龍身)이 천(賤)한 것도 같이 응험한다. 대개 용(龍)이 휴(休)하고 천(賤)하며 살(煞)이 왕(旺)하면 관(官)이 변하여 귀(鬼)가 되기 때문이다.

서씨(徐氏)의 보석(補釋)에 이르기를 혈전(穴前)에서 보이는 수(水)가 생왕(生旺)을 얻지 못하고 내조(來朝)하며 그 발원처(發源處)가 혹 팔요살방(八曜煞方)으로부터 내(來)하면 그 국내(局內)에는 이미 길기(吉氣)가 없는데 본원(本源)이 또 살기(煞氣)를 띠면 근본(根本)이 상(傷)을 받는 바로 혹독한 형륙(刑戮)을 못 면한다. 그 예(例)는 가령 감자(坎子) 수국(水局)

에 용향(龍向)이 면전(面前)에 이미 곤신(坤申) 정미(丁未)와 건해(乾亥) 임자(壬子)의 길수(吉水)가 없고 그 발원(發源)이 또 진방(辰方)으로부터 유출(流出)되면 이는 살요(煞曜)를 띤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아울러 살요결(煞曜訣)의 예(例)를 뒤에 실는다. 감룡(坎龍) 곤토(坤兔) 진산후(震山猴) 손계(巽雞) 건마(乾馬) 태사두(兌蛇頭) 간호(艮虎) 이저(離猪)는 살요(煞曜)가 되니택묘(宅墓)에 이것을 만나면 일시(一時)에 휴(休)한다.

[이에 만약 용(龍)이면 입수(入首)를 보고 수(水)는 원두(源頭)를 본다. 천간위(天干位)상에는 내(來)하여야 마땅하니 모름지기 유파(流破)를 막아야 한다. 지지위(地支位)상에는 거(去)해야 마땅하니 조귀(朝歸)를 꺼린다.]

용(龍)은 단지 입수일절(入首一節)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본다. 삼길육수(三吉六秀)로 귀천(貴賤)을 단정한다. 수(水)는 발원처(發源處)와 경류(經流) 도국(到局) 일절(一節)이 어느 길수(吉秀)에 속하는지를 보아 길흉(吉凶)을 단정한다. 수(水)는 양(陽)에 속하여 천(天)을 따른다. 그러므로 내조(來朝)는 의당 천간(天干) 건곤간손갑경병임을신정계방(乾坤艮巽甲庚丙壬乙辛丁癸方)상으로부터 오면 길(吉)하다. 만약 거(去)하면 요컨대 지지위(地支位)상으로부터 거(去)해야 하고 내(來)하면 기쁘지 않다.

[그러므로 소사문(小赦文)이 진(進)하면 소남(小男)에 공복(貢福)하고 대사문(大赦文)이 진(進)하면 복(福)이 중자(仲子)에 임(臨)한다.]

을신정계(乙辛丁癸)는 소사문수(小赦文水)가 된다. 그 방위에 수조(水朝)하면 소방(小房)이 획득(獲福)한다. 갑경병임(甲庚丙壬)은 대사문(大赦文)이다. 그 방위에 수조(水朝)하면 중자(中子)에 길(吉)이 응(應)한다. 자오묘유(子午卯酉) 사중지지(四仲地支)는 모두 이방(二房)에 예속된다. 내(來)하면 흉화(凶禍)가 있다. 진술축미(辰戌丑未) 사묘지지(四墓地支)는 모두 삼방(三房)에 매인다. 내(來)하면 재앙이 흉(凶)하다. 이 또한 생왕론(生旺論)과 겸(兼)해야 한다.

[사주(四柱)가 유정(有情)하면 장방(長房)에 복(福)이 응(應)한다.]

건곤간손(乾坤艮巽)은 사유(四維)가 되고 천지(天地)의 사주(四柱)가 된다. 그 수(水)가 내조(來朝)하면 복(福)이 장방(長房)에 있다. 그리고 인신사해수(寅申巳亥水)가 내(來)하면 맹자(孟子)가 흉(凶)을 만난다.

[경갑(庚甲)이 조당(朝堂)하면 허리에 금인(金印)을 매달고 병임(丙壬)이 도국(到局)하면 몸에 주의(朱衣)를 걸친다.]

이것은 갑경병임(甲庚丙壬) 사수(四水)의 길(吉)함을 말한다. 갑수(甲水)는 풍질(風疾)을 주관하나 그것이 귀(貴)한 것은 경금(庚金)을 얻어서 설제(泄制)하기 때문에 길(吉)하다. 갑수(甲水)가 독립(獨流)하여 입당(入堂)하면 흉(凶)하다.

[소년(少年)이 장원급제하여 명성을 날리면 반드시 그 수(水)의 내(來)함은 인갑(寅甲)이고 관록(官祿)이 시랑(侍郎)으

로 높으면 대부분 신경(申庚)으로 부터 조(朝)하기 때문이다.]

인갑수(寅甲水)는 천제(天帝) 원성(垣星)이 조림(照臨)한다. 삼길육수(三吉六秀) 용(龍)이 인갑(寅甲)의 조당(朝堂)을 얻으면 소년(少年)이 고과(高科)에 오른다. 그 수(水)가 문장(文章)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신경수(申庚水)는 소미원(少微垣)이 조림(照臨)한다. 삼길육수룡(三吉六秀龍)이 그것을 보면 관품(官品)이 극품(極品)으로 시랑(侍郎)등의 직(職)을 주관한다. 금(金)은 예리함을 주관하고 문적(文籍)은 신태(辛兌)에 있기 때문이다. 진룡(震龍)이 그것을 얻으면 무직(武職)을 주관한다. 추금(秋金)은 숙살(肅殺)의 기(氣)이기 때문이다.

[해임(亥壬)은 외임(外任)의 사(司)가 되고 사병(巳丙)은 내응(內應)의 직(職)이 된다.]

해임자(亥壬子)는 본래 자미원(紫微垣)이 임(臨)하는 곳이다. 또 천문(天門)에 있다. 이치는 응당 동직(東職)이 된다. 해(亥)에 임(壬)이 잡(雜)되면 응당 외(外)에 있다. 만약 손룡(巽龍)이 해수(亥水)를 보면 반드시 한림(翰林)의 아름다움이 있다. 사병(巳丙)은 태미원(太微垣)이 조(照)하는 지호(地戶)가 되고 후비(后妃)가 거(居)하는 정(庭)이 된다. 근시(近侍)의 영화가 있다. 삼길육수룡(三吉六秀龍)이 그것을 보면 더욱 묘(妙)하다.

[유손(酉巽)은 총명(聰明)한 여(女)를 발(發)하고 진경(震庚)은 위무(威武)의 아(兒)를 산(産)한다.]

손(巽)은 장녀(長女)가 되고 태(兌)는 소녀(少女)가 된다. 이수(二水)가 내조(來朝)하면 총명한 여인(女人)이 출(出)한다. 그러나 유(酉)는 목욕(沐浴)이 되니 오행(汚行)을 범(犯)할까 두렵다. 만약 득수(得水)가 청철(淸徹)하면 근심이 없다. 만약 손수(巽水)가 내(來)하면 생녀(生女)가 극히 아름답고 귀하다. 만약 유수(酉水)가 불결(不潔)하면 아니다. 진경(震庚)은 위무(威武)의 지(地)가 된다. 삼길육수룡(三吉六秀龍)이 그것의 내조(來朝)함을 얻으면 장상(將相)의 재목이 출(出)한다. 만약 이룡(離龍) 곤룡(坤龍)이 그것을 보면 장군(將軍)이 된다.

[간손병신(艮巽丙辛)이 교응(交應)하면 괴원(魁元)의 귀(貴)가 세출(世出)하고 해(亥)가 인갑손경(寅甲巽庚)과 연(聯)하면 장상(將相)의 권(權)을 대응(代膺)한다.]

간병손신(艮丙巽辛)은 육수(六秀)의 수(水)다. 간손(艮巽)은 문장(文章)을 주관하므로 사수(四水)가 당(堂)에 모이면 신동장원(神童壯元)이 출(出)하고 극품(極品)의 귀(貴)가 된다. 해(亥)는 인갑손경(寅甲巽庚)과 더불어 길수수(吉秀水)이다. 그러나 경(庚)은 무(武)를 주관하고 갑묘(甲卯)는 뇌정(雷霆)이 되며 손해(巽亥)는 문(文)을 주관한다. 축수(丑水)가 도당(到堂)하면 출장입상(出將入相)과 문무전재(文武全材)를 주관한다.

[원진수(元辰水)가 도(到)하면 공명(功名) 백수(白首)하고 원성(垣星)이 입국(入局)하면 입패(立霸) 봉후(封侯)한다.]

보룡(輔龍) 발원(發源)의 혈맥수(血脉水)는 원진(元辰)이 된

다. 굴곡하여 용(龍)을 따라서 도당(到堂)하고 교합(交合)하여
 내외(內外)가 모여서 조류(朝流)하고 지지(地支)로 거(去)한다.
 원진(元辰)이 입국(入局)하면 그 현규(玄竅)는 만나기 어렵다.
 가령 그 수(水)를 얻어 도당(到堂) 합금(合襟)하면 부귀(富貴)
 가 유구(悠久)하고 수고(壽考) 무강(無疆)하여 백두(白頭) 공
 명(功名)이 되니 그 영구함을 말한다. 원성(垣星)은 사원(四
 垣)의 수(水)이다. 갑인(甲寅) 사병(巳丙) 신경(申庚) 해임(亥
 壬)의 사수(四水)가 입국(入局) 조당(朝堂)한 것은 수(水) 또
 한 쉽게 얻지 못한다. 그 수(水)가 있어 법(法)을 세우면 패봉
 후(霸封侯)의 응(應)함을 주관하니 대용(大勇)의 상(象)이다.

[진경(震庚)이 조(朝)하면 부(富)는 국가에 대적할 수 있고
 사병(巳丙)이 지(至)하면 무장(武將) 영웅(英雄)이다.]

진경수(震庚水)가 내단(來斷)하여 그것이 발(發)하면 참감(斬
 砍)을 자유롭게 하는 권세가 있으므로 대부(大富)한다. 사병
 수(巳丙水)가 내(來)하면 무장(武將)이 출(出)한다. 목(木)은
 성(盛)하고 화(火)는 열(烈)하니 그 성(性)이 위열(威烈)하다.
 그러므로 사병오(巳丙午) 삼화(三火) 모두 그 응(應)함이 있으
 니 삼길육수방(三吉六秀方)을 얻으면 바로 응(應)한다. 만약
 용체(龍體)가 약(弱)하면 병오수(丙午水)가 도리어 군적(軍賊)
 의 자(資)가 된다.

[건술(乾戌)은 고분(鼓盆)의 살(殺)이 되고 곤류(坤流)는 과
 숙(寡宿)의 성(星)이 된다.]

건(乾)은 노양(老陽)이고 술(戌)은 천강살(天罡殺)이다. 건술

수(乾戌水)가 내(來)하면 반드시 처(妻)를 극(剋)하고 장자(莊子)의 처(妻)가 사(死)하며 혜자(惠子)가 그에 조(弔)한다. 장자(莊子)가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한다. 곤(坤)은 과모(寡母)가 된다. 그 수(水)가 유입(流入)되면 극부(剋夫)한다. 천상(天上)에는 과수(寡宿)가 있는데 단지 일성(一星)이 홀로 밝고 옆에는 나열된 별이 없다. 그러므로 과수(寡宿)로 그것을 밝혀 말한다. 외롭고 부(夫)가 없다.

[묘유(卯酉)는 본래 사음(邪淫)을 범(犯)하는데 유양(悠洋) 청철(淸徹)하면 여(女)가 도리어 현량(賢良)하다.]

묘유(卯酉)는 함지(咸池)가 된다. 수(水)가 내(來)하면 음(淫)을 주관한다. 만약 내수(來水)가 유양(悠洋) 청철(淸徹)하고 탁(濁)하지 않으면 생(生)한 여자(女子)가 도리어 현숙(賢淑)하고 정결(貞潔)하다.

[자오(子午)는 반드시 군적(軍賊)을 초(招)한다. 원류(源流)가 호대(浩大)하고 편(偏)되면 무직(武職)이 마땅하다.]

자오수(子午水)가 내(來)하면 본래 군적(軍賊) 화도(火盜)가 출(出)한다. 만약 원두(源頭)가 탕양(蕩漾) 호저(湖渚)하고 직류(直流) 충사(冲射)하지 않으면 자손이 위엄(威嚴)이 있고 무장(武將)이 출(出)한다. 만약 직사(直射)함이 세소(細小)하면 오직 무직(武職)이니 인가(人家)가 거기에 장(葬)하면 도리어 길(吉)하다. 가령 사서(士庶)의 가(家)에서 그것을 보면 반드시 군적(軍賊)이 출(出)하거나 혹은 화도(火盜)가 상간(相干)한다.

[을진(乙辰)이 지(至)하면 투하(投河) 자액(自縊)하고 병정(丙丁)이 내(來)하면 수고(壽考) 무강(無疆)하다.]

진(辰)은 천강(天罡)이 되고 을(乙)은 성(盛)함이 된다. 진(辰)과 을(乙)이 같이 이르면 투하(投河) 자액(自縊) 사(死)하는 사람이 출(出)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少亡) 강시(扛尸)의 재앙이다. 병정(丙丁) 이방(二方)은 남극(南極) 장수성(長壽星)이 임(臨)하는 곳이다. 이수(二水)가 조래(朝來)하면 장수(長壽)한다.

[사문(赦文)이 만약 도화(桃花)를 띠면 청백(清白)의 풍(風)을 타기 어렵다.]

갑경병임(甲庚丙壬) 을신정계(乙辛丁癸)는 사문수(赦文水)가 된다. 만약 단래(單來)하면 길(吉)하다. 가령 자오묘유(子午卯酉)상에 혼잡(混雜)되어 나란히 이르거나 혹은 타방(他方)과 섞여 동조(同朝)하면 모두 도화(桃花)를 띠니 음란(淫亂)하지 않으면 군적(軍賊)을 주관하고 청백(清白)의 풍(風)이 소(少)하다.

[육수(六秀)가 가령 요기(曜氣)를 만나면 반드시 강량(強梁)의 무리가 출(出)한다.]

요살(曜殺)의 기(氣)가 가장 흉(凶)하다. 육수룡(六水龍)이 만약 요성(曜星)을 범하면 형륙(刑戮)을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강폭(強暴)한 사람이 출(出)하고 횡사(橫死) 강시(扛屍)의 응(應)함이 있다.

[소망(少亡) 횡사(橫死)는 황천(黃泉)을 범(犯)함이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황천(黃泉) 사고수(四庫水) 본음(本音)이다. 만약 그 수(水)를 보면 반드시 소망(少亡) 횡사(橫死)가 응(應)한다. 진술(辰戌) 이방(二方)이 생(生)하면 배역(背逆)을 주관하고 축미(丑未) 이방(二方)은 고과(孤寡) 념경사니(念經師尼)가 출(出)한다.

[사고(四庫)에 유통(流通)하면 부녀(婦女)가 탕가(撐家)한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사고(四庫)가 된다. 만약 수(水)가 유래(流來)하면 남자(男子)는 소망(少亡)하고 여인(女人)은 과거(寡居)하여 홀로 가업(家業)을 지탱한다. 만약 수(水)가 유래(流來)하여 당외(堂外)에 취축(聚蓄)하고 충사(冲射)하지 않으면 재앙이 조금 가벼우며 도리어 사람마다 집안을 일으킨다.

[인신사해수(寅申巳亥水)가 조(朝)하면 온화(瘟火)가 아니면 산란(産難) 허로(虛癆)한다. 술건진태(戌乾辰兌)가 내임(來臨)하면 풍질(瘋疾)이 아니면 목맹(目盲) 음아(음啞)이다.]

인신사해(寅申巳亥) 사로(四路)는 온역(瘟疫)과 화재(火災)가 있고 허로병(虛癆病)이 생긴다. 대개 오기(五氣)가 초생(初生)이니 사수(四水)가 지지(地支)를 파(破)하면 그것이 있다. 술건(戌乾)의 기(氣)는 흉렬(凶烈)하고 진술(辰戌)의 기(氣)는 고악(孤惡)한데 혹 수래(水來)가 있어 면응(面應)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인갑수(寅甲水)가 내(來)하면 풍질(瘋疾)이 전신(纏身)함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인갑(寅甲)은 목(木)에 속하며 인(寅)은 화생지(火生地)가 되
고 또 그 궁(宮)은 나뉘어 기성(箕星)이 임(臨)하여 있다. 기
성(箕星)은 풍(風)을 좋아 하고 하물며 목(木)이 성(盛)하면
풍(風)을 생(生)하며 동방(東方)은 또 목왕(木旺)의 향(鄉)이
다. 그러므로 인갑수(寅甲水)가 내(來)하면 풍질(瘋疾)이 출
(出)함을 주관한다.

[누항(婁亢)이 쌍귀(雙歸)하면 응(應)하여 지도(持刀) 문경
(勿頸)을 본다.]

진술(辰戌) 이궁(二宮)의 수(水)가 이르면 천강(天罡) 대사
(對射)가 되니 자문(自刎)의 재앙을 주관한다.

[인룡(寅龍)에 오술수(午戌水)가 원(垣)에 거(居)하면 을진
(乙辰)과 모여서 화재(火災)가 곧 이른다.]

오(午)는 천화(天火)이고 술(戌)은 지화(地火)이며 인(寅)은
인화(人火)다. 을진(乙辰)은 목(木)중의 화(火)이다. 인룡(寅龍)
이 오술수(午戌水)가 입당(入堂)함을 보고 또 을진(乙辰)을 만
나면 회록(回祿)의 변(變)이 있다.

[신지(申地)에 자임진(子壬辰)이 회국(會局)하고 해수(亥水)
를 만나면 표탕(飄蕩)하여 무유(無遺)하다.]

신(申)은 천하수(天河水)이고 자(子)는 대해수(大海水)이며
진(辰)은 지당수(池塘水)이고 해(亥)는 황하수(黃河水)이다. 신
룡(申龍)에 자임진수(子壬辰水)가 입당(入堂)하고 다시 해수
(亥水)를 만나면 수표(水飄)의 환(患)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탕패(蕩敗)의 자(子)가 생(生)하여 조업(祖業)이 폐(廢)하고 도
류(逃流)한다.

[그러므로 방위(方位)의 순잡(純雜)은 그 길흉(吉凶)의 이응
(異應)이 있다.]

이 모두 이십사위(二十四位)의 기(氣)는 청탁(淸濁) 순잡(純
雜)이 부동(不同)함으로 인한다. 그러므로 그 길흉(吉凶)이 사
람에 응(應)하는데 이와 같이 다름이 있다. 이것은 상문(上文)
을 맺는다. 방사(方士)의 단(斷)은 대개 이렇게 한다.

축길부(逐吉賦)

[영웅호걸(英雄豪傑)은 악독(岳瀆)의 영(靈)을 모아 부귀(富
貴) 영화(榮華)하니 산천(山川)의 빼어남에 관계된다. 그러므
로 용(龍)이 내(來)하여 입국(入局)하면 청탁(淸濁)의 다른 길
이 있으니 군사(群砂)가 흠취(翕聚)하면 의당 길흉(吉凶)의 이
응(異應)이 없다.]

곽자(郭子)가 이르기를 악독(岳瀆)이 영(靈)을 모아 산호(產
豪) 육영(育英)하고 산천(山川)이 육수(毓秀) 취부귀(聚富貴)
한다 했다. 청낭경(靑囊經)에 이르기를 기(氣)가 감(感)하고

응(應)하면 신령(神靈)을 생(生)하여 충량(忠良)을 모으니 부귀호걸(富貴豪傑)의 가(家)는 반드시 산천(山川)의 기(氣)를 얻어 이룬다. 그러나 산천(山川)은 모두 아름다울 수 없다. 취길(聚吉)이 있으나 취흉(聚凶)으로 거(去)하면 흉(凶)하다. 그러므로 용체(龍體)가 청귀(淸貴)하나 군추(群醜)가 취당(聚堂)하면 또한 흉구(凶咎)의 응(應)이 있다. 그래서 심룡(尋龍)하여 입장(立葬)함에는 또 응당 사수(砂水)의 선악(善惡)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한다. 용(龍)은 귀(貴)하나 사(砂)가 천(賤)한 것은 부장(不葬)한다. 진실로 그렇게 한다.

[혹 사유(四維)의 지(地)에 거(居)하거나 혹은 육수(六秀)의 방(方)을 보아 만약 첨제(尖齊) 고용(高聳)을 보면 군자(君子)는 가히 관(官)을 구(求)하고 저소(低小) 방원(方圓)하면 사서(士庶)는 응(應)하여 치부(致富)한다.]

전후좌우(前後左右)의 사방에 송종(送從) 조호(朝護)등의 산이 응(應)하면 사유(四維) 육수(六秀)의 위(位)에 불구(不拘)하고 모두 요컨대 첨제(尖齊) 용발(聳拔)하여야 하고 기사(欹斜) 파쇄(破碎)되면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첨수(尖秀)한 것은 대부분 귀(貴)하고 파쇄(破碎)된 것은 대부분 흉(凶)하다. 혹 삼길육수방(三吉六秀方)에 첨용(尖聳) 침운(侵雲)하면 과제(科第)의 길(吉)함을 주관한다. 만약 저소(低小) 방원(方圓)하면 단지 부(富)를 주관할 뿐이다.

[마함(馬陷) 녹공(祿空)이면 허명(虛名) 부리(浮利)이다.]

기(氣)가 등(騰)하면 위로 성진(星辰)이 되고 기(氣)가 응

(凝)하면 아래로 산천(山川)이 된다. 그러므로 산천(山川)은 아래에 있어 위로 천성(天星)에 응(應)한다. 간병(艮丙)은 천시원(天市垣)에 속하여 재화(財貨)가 모이는 곳이며 땅 아래로 응(應)하여 천록(天祿)의 사(司)가 된다. 건이(乾離)는 천구(天廡) 천마(天馬)의 성(星)이 임하여 비추니 천제(天帝) 행어(行御)의 병(兵)이다. 그러므로 간병(艮丙)이 결(缺)하면 녹산(祿山)이 함(陷)하고 건오(乾午)가 결(缺)하면 천마(天馬)의 도(倒)함이 된다. 이 이방(二方)이 결함(缺陷) 파쇄(破碎)되면 비록 용혈(龍穴)의 길(吉)함을 승(乘)하여도 허명(虛名) 부리(浮利)일 뿐이다. 혹 직(職)이 있으나 무록(無祿)으로 의관(義官) 및 수관(壽官)이 출(出)하고 혹은 과갑(科甲)하나 식록(食祿)에 미치지 못하며 혹은 식록(食祿)이 있으나 선종(善終)을 얻지 못한다.

[천태(天太) 양봉(兩峰)이 불기(不起)하면 귀(貴)가 부지(扶持)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손궁(巽宮)은 태을(太乙) 귀인성(貴人星)이 위로 응(應)하여 비추고 신궁(辛宮)은 천을성(天乙星)이 임하여 위로 응(應)한다. 이 이성(二星)은 천하(天下) 민물(民物)의 복(福)을 주관하고 부귀(扶貴) 부천(扶賤)하니 손상(巽上)에 제(帝)가 오로지 천현(薦賢)하여서 직(職)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방(二方)이 결함(缺陷)하여 불기(不起)하면 귀인(貴人)의 힘을 얻지 못한다. 첨봉(尖峰) 수발(秀拔)하고 용혈(龍穴)이 바르면 반드시 대귀인(大貴人)이 휴설(携挈)하니 권세가(權勢家)에 인연(夤緣)이 출(出)하여 귀(貴)를 취(取)한다.

[천원(薦元) 관귀(官貴)가 투공(投空)이면 모두 재고(才高)하나 부제(不第)한다.]

건곤간손(乾坤艮巽)은 사원(四垣) 성진(星辰)의 지(地)이다. 고산(高山)이 특기(特起)하면 이십사룡(二十四龍)의 수기(秀氣)와 각 최관(催官) 생기(生氣)의 요(曜)를 능히 발(發)한다. 용(龍)이 혈(穴)을 맺으면 반드시 건곤간손(乾坤艮巽)의 사산(四山)이 용발(聳拔)하고 결함(缺陷)되지 않아야 발귀(發貴)가 극히 빠르다. 손룡(巽龍)이 신(辛)을 보고 간룡(艮龍)이 병(丙)을 보며 태룡(兌龍)이 정(丁)을 보고 진룡(震龍)이 경(庚)을 보면 또한 천원봉(薦元峰)이라 이름한다. 가령 손룡(巽龍)이 신봉(辛峰)을 얻어 높이 응(應)하면 손(巽)이 신(辛)을 얻어 발수(發秀)하여 등과급제(登科及第)가 모두 가능하다. 만약 신봉(辛峰)이 결함(缺陷)하면 천원(薦元)은 이미 공(空)이다. 비록 손룡(巽龍)이 명정(明淨)하고 사회(砂回) 수요(水遶)하여도 흥발(興發) 과갑(科甲)을 못한다. 나머지도 모두 그렇다. 관(官)은 갑(甲)이 신(辛)을 보는 유형을 말하고 귀(貴)하다는 것은 존중(尊重) 단엄(端嚴)함을 말한다. 가령 갑룡(甲龍)이 신봉(辛峰)을 보고 병룡(丙龍)이 계봉(癸峰)을 보면 모두 관요(官曜)라 이름한다. 혹은 안(案)에 수산(秀山)이 응(應)하면 관요(官曜)가 된다고 하는데 또한 그렇다. 이러한 방위가 결함(缺陷) 공쇄(空碎)되면 비록 재학(才學)이 과인(過人)하여도 결국 급제(及第)가 어렵다. 선니(宣尼)의 고도(考途)와 유분(劉蕡)의 하제(下第)가 대개 그렇다.

[그러므로 건마(乾馬)가 궁천(巨天)하고 곤우(坤牛)가 망월(望月)하며 간구(艮狗)가 의시(依市)하고 손계(巽雞)가 명월

(鳴闕)한다. 천주(天柱)가 사유(四維)의 기(氣)를 발(發)하면
공명(功名)이 수수(垂手)다.]

성인(聖人)이 역(易)을 만들고 상(象)을 취하여서 건(乾)은
마(馬)가 되고 곤(坤)은 우(牛)가 되며 간(艮)은 구(狗)가 되고
손(巽)은 계(雞)가 된다. 물(物)로 괘(卦)를 형상하여 각기 그
종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건마(乾馬) 궁천(巨天)이라하여 건
(乾)은 천문(天門)이 된다. 곤우(坤牛) 망월(望月)이니 곤(坤)
은 태음(太陰)이 된다. 간구(艮狗) 의시(依市)이니 간(艮)은 천
시(天市)가 된다. 손계(巽雞) 명궐(鳴闕)이니 손(巽)은 지궐(地
闕)이 된다. 건곤간손(乾坤艮巽)은 천지(天地)의 사주(四柱)로
사세(四勢)에 처(處)하여 이십사룡(二十四龍)의 기(氣)를 행
(行)한다. 이른바 사세(四勢) 행룡(行龍)하면 팔방(八方)이 시
생(施生)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군룡(郡龍)의
수(秀)를 발(發)하여 최성(催星)의 제일길(第一吉)이 된다. 용
(龍)이 삼길육수(三吉六秀)의 국(局)에 드는 것은 그 사방(四
方)이 고용(高聳)함을 얻으면 과갑(科甲)을 곧 이루고 공명(功
名)이 수수(垂手)와 같이 쉽다.

[태미(太微)가 임어(臨御)하고 남극성(南極星)이 빛나면 금
계(金階)에 보무(步武)하고 옥전(玉殿)에 서(書)를 전(傳)한다.
천원(薦元)이 육수(六秀)의 관(官)을 재촉하면 단지(丹墀)에서
독대(獨對)한다.]

태미원(太微垣)은 병(丙)에 있고 남극성(南極星)은 정(丁)에
있다. 경(庚)은 금계(金階)가 되고 신(辛)은 옥전(玉殿)이 된
다. 가령 간룡(艮龍)은 천시원(天市垣)이 되는데 태미봉(太微

峰)이 기(起)한 것을 보면 태미(太微) 임어(臨御)가 된다. 태
 룡(兌龍)이 정봉(丁峰)의 고용(高聳)을 만나면 남극성(南極星)
 의 빛남이 된다. 진룡(震龍)이 간산(艮山)의 제운(齊雲)함을
 보면 금계(金階) 보무(步武)가 된다. 보무(步武)라고 하는 것
 은 대개 경진(庚震)은 무고(武庫)의 사(司)를 주관하기 때문이
 다. 손룡(巽龍)이 신봉(辛峰)의 삽천(插天)을 보면 옥전(玉殿)
 전서(傳書)가 된다. 대개 신(辛)은 천제(天帝) 문장(文章)의 부
 (府)가 되기 때문이다. 병정경신(丙丁庚辛)은 각기 기(氣)로
 응(應)한다. 그러므로 신산(辛山)은 손룡(巽龍)의 수(秀)를 발
 (發)하고 병봉(丙峰)은 간룡(艮龍)의 수(秀)를 발(發)하며 경정
 (庚丁)은 진태(震兌)에서 모두 그렇다. 그 사산(四山)을 얻어
 육수(六秀)의 기(氣)를 최동(催動)하면 과갑(科甲)이 곧 이르
 고 단지(丹墀)에서 독대(獨對)함이 틀림없다. 만약 손(巽)에
 신(辛)의 응(應)이 없고 신(辛)에 손(巽)의 응(應)이 없으면 수
 기(秀氣)가 분발(奮發)할 수 없으니 비록 혈(穴)이 승(乘)할
 수 있어도 관귀(官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손(巽)이 신(辛)을 보면 문장(文章)의 사(士)가 되고 다시
 건간(乾艮)을 얻으면 중소(中霄) 부귀(富貴)하니 누가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손신(巽辛二方)은 천제(天帝)가 문장(文章)과 전적(典籍)을
 맡아 보는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손신(巽辛) 이룡(二龍)이 기
 (氣)를 얻으면 모두 문장(文章)이 세상에 으뜸가는 선비를 주
 관한다. 만약 건간(乾艮) 이봉(二峰)이 불기(不起)하면 혹 문
 장(文章)이나 귀(貴)가 크지 않고 귀(貴)가 중(重)하고 후(厚)
 하여도 부(富)를 못한다. 비록 고괴(高魁)중에 삶이 청(淸)하

여도 요컨대 한림(翰林)의 직(職)이 반드시 극품(極品)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만약 삼공(三公)의 지위로 대각(台閣)에 올라 부귀쌍전(富貴雙全)하고자 하면 또 다시 건간병봉(乾艮丙峰)을 얻어 고용(高聳)하여야 비로소 응(應)한다.

[병(丙)이 간(艮)을 만나면 만종(萬鍾)의 녹(祿)을 먹고 다시 건손(乾巽)이 동궁(同拱)함을 만나면 명성이 있으며 왕사(王謝)의 주(儔)가 된다.]

간병(艮丙)은 천시원(天市垣)이 되어 재화(財貨)가 거처하는 곳이다. 지(地)에 그 기(氣)가 응(應)하면 반드시 식록(食祿) 만종(萬鍾)을 주관하고 요재(饒財) 부족(富足)하며 백화(百貨)가 구비(俱備)된다. 다시 건손(乾巽)이 동조(同朝)하여 용발(聳拔)하면 괴원급제(魁元及第)하여 부귀쌍전(富貴雙全)하며 왕사(王謝)의 성명(聲名)이 있다. 왕사(王謝)는 그 지기(地氣)를 얻어 응(應)하기 때문이다.

[뇌동천횡(雷動天橫)이면 손해(巽亥)에서 중권(重權)을 장악한다.]

뇌(雷)는 진(震)이고 천횡(天橫)은 경(庚)이다. 경진(庚辰) 이방(二方)은 위무(威武)가 되고 천자(天子)가 병기(兵器)와 무고(武庫)를 관장하여 맡아 보며 제잔(除殘) 감란(戡亂)의 직(職)이 된다. 만약 손해(巽亥) 이룡(二龍) 주혈(主穴)을 얻고 밖으로 경진(庚辰) 이봉(二峰)이 기(起)하여 거기에 응(應)하면 손해(巽亥) 이룡(二龍)의 혈(穴)은 문장(文章)의 귀(貴)가 출(出)함을 주관하고 경진(庚辰) 수봉(秀峰)은 무(武)에 응(應)

한다. 그래서 과제지사(科第之士)를 지낸 문신(文臣)으로 중병(重兵)을 장악(掌握)한다. 만약 용체국(龍體局)이 수(秀)하면 귀(貴)가 극품(極品)에 이르고 출입장상(出入將相)의 존(尊)이 있다. 만약 임자계곤신인갑(壬子癸坤申寅甲)등의 천룡(賤龍)이 그것을 얻고 이산(二山)이 용수(聳秀)하고 용신(龍身)의 기(氣)가 모이면 과갑(科甲)에 들지 않고 무직(武職)을 취(取)한다. 혹 타도(他途)로 인하여 무귀(武貴)에 요행히 이르는 것은 그것이 있다. 다시 요살(曜煞)을 보면 보신(保身)을 못한다.

[진경(震庚)은 분무(奮武)하는데 감이(坎離)에서 바로 남면(南面)한다.]

진경(震庚) 이봉(二峰)이 빼어나게 일어나고 만약 감룡(坎龍)이 결국(結局)하고 혈(穴)이 그 기(氣)를 승(乘)하며 또 남이(南離)에 이봉(二峰)이 고용(高聳)하고 건곤간손(乾坤艮巽)에 각기 기산(旗山)과 고각(鼓角)과 군둔(軍屯)과 극렬(戟列)이 중중(重重)하여 뻗뻗하게 있는 것은 천하영호(天下英豪)가 출(出)하여 사방(四方)으로 횡행(橫行)함을 주관한다. 그 지(地)를 보면 어지럽게 전(傳)할 수 없다. 점천(點扞)하면 도리어 기화(奇禍)를 주관한다.

[병오정(丙午丁)이 수발(秀拔)하면 괴원(魁元)을 독점(獨占)한다.]

병오정(丙午丁)은 삼양(三陽)의 자리다. 빼어난 봉우리가 특이하게 일어나면 괴원(魁元)의 귀(貴)가 있다. 만약 간해(艮亥)의 기(氣)가 그것을 받으면 그 복력(福力)이 더욱 크다. 임

룡(壬龍)이 그것을 얻으면 폐기(廢奇)한다. 그 나머지 용(龍)이 그것을 보면 비록 능히 과제(科第)에 발(發)하여도 반드시 괴원(魁元)에 능히 들지는 못한다. 다시 본산(本山) 최관(催官)등의 사(砂)가 도우면 바야흐로 응(應)한다.

[곤모봉(坤母峰)이 고기(高起)하면 다행이 방미(榜尾)에 제명(題名)한다.]

곤(坤)은 노모(老母)가 되고 또 이름하여 태음성(太陰星)이다. 곤룡(坤龍)은 본래 항극(亢極)이 되니 그 방(方)에 고기(高起)하여 타산(他山)의 응(應)을 만들면 또한 수기(秀氣)를 최발(催發)하여 길(吉)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곤봉(坤峰)이 고용(高聳) 수발(秀拔)하면 과제(科第)에 오르는데 다만 방(榜)의 말(末)에 낮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주(本主)가 흥륭(興隆)하면 살요(煞曜)가 변(變)하여 문요(文曜)가 되고 용신(龍身)이 미천(微賤)하면 아도(牙刀)가 변하여 도도(屠刀)를 만든다.]

살요(煞曜)는 황천팔요(黃泉八曜)의 살(煞)이다. 살요(煞曜)를 범하면 형화(刑禍)가 출(出)한다. 그러나 좌하(坐下) 용혈(龍穴)이 혹 손방(巽方) 간병정태경신(艮丙丁兌庚辛)등의 기(氣)를 얻고 송종(送從) 호응(護應)등의 사(砂)가 취수(聚秀)가관(可觀)이면 황천팔살(黃泉八煞)등의 방(方)에 고봉(高峰)이 도리어 능히 나의 복력(福力)을 도와 화살생권(化煞生權)하고 요(曜)는 복심(腹心)을 만들 수 있다. 그 사(砂)가 있어 응(應)하면 도리어 위권(威權)을 주관하고 참작(斬斫)을 자유

롭게 한다. 용(龍)이 천(賤)하고 사(砂)가 흩어지면 황천팔살(黃泉八殺)은 화(禍)가 중(重)하게 되면 형륙(刑戮)이고 가벼우면 요망(夭亡) 소사(少死)함이 반드시 응(應)한다. 아도(牙刀)는 패도(珮刀)이고 도도(屠刀)는 살회도(殺劊刀)이다. 용신(龍身)이 귀(貴)하면 도도(屠刀)는 패도(珮刀)가 되고 용신(龍身)이 천(賤)하면 아도(牙刀)가 변하여 도도(屠刀)를 만들어 도리어 상인(傷人)에 이른다. 도(刀)에는 도(屠) 아(牙)의 구별이 없고 용(龍)에는 귀천(貴賤)이 있다. 그러므로 길(吉)하면 길(吉)이 응(應)하고 흉(凶)하면 흉(凶)이 응(應)한다.

[고궤(庫櫃)가 간병(艮丙)에 낙(落)하면 부감적국(富堪敵國)이다.]

간병(艮丙) 이방(二方)은 재화(財貨)의 사(司)이다. 그러므로 고산(庫山) 궤산(櫃山)이 방평(方平) 비만(肥滿)하여 형(形)이 고궤(庫櫃)같은 것이 그 방(方)에 나타나면 위로 천성(天星)의 기(氣)에 응(應)한다. 지기(地氣)가 그것을 얻으면 반드시 재록(財祿)이 대발(大發)하고 백화(百貨)가 구적(具積)됨을 주관한다. 그리고 부주적국(富主敵國)은 무비(無比)를 말한다.

[아미(娥眉)가 손궁(巽宮)에 보이면 여색(女色)이 경성(傾城)한다.]

손(巽)은 장녀(長女)가 되고 태미(太微)가 임(臨)하는 자리다. 청(淸)하고 부잡(不雜)하여 그 아미산(娥眉山)의 형(形)이 반월(半月)같이 저소(低小)하고 장만(長彎)하여 손산(巽山)에서 보이면 미모(美貌)의 여인(女人)이 출(出)하여 경성(傾城)

의 자(姿)가 있다. 만약 좌하(坐下)의 산룡(山龍)이 수려(秀麗) 청귀(淸貴)하면 여(女)는 후(后)의 존(尊)이 되고 혹 남(男)은 혼(婚)하여 부마(駙馬)가 된다. 이(離)와 태(兌)는 곤(坤)의 소녀(少女) 중녀(中女)가 된다. 비록 아미사가 응(應)하나 이(離) 유(酉)는 목욕지(沐浴地)가 되니 여색(女色)이 아름다워도 다 음(多淫)한다. 그러므로 단지 그 사(砂)를 취할 뿐이다. 손사(巽砂)가 비록 아미(娥眉)같아도 묘유자오(卯酉子午)상에 사(砂)가 내조(來照)하여 파(破)하면 미모(美貌) 또한 면하지 못하는 바이다.

[문필(文筆)은 손신(巽辛)에서 발(發)하는데 곤신(坤申)에 있으면 사송(詞訟)의 흉(凶)이 된다.]

문필봉(文筆峰)이 순(筭)처럼 고발(高拔)하여 손신(巽辛) 이 방(二方)에 당(撞)하면 문한(文翰) 치예(馳譽)를 주관한다. 만약 곤신(坤申)의 지(地)에 있고 그것이 보이면 비록 순(筭)같이 삽천(插天)하여도 도리어 사송(詞訟)을 주관하여 흉(凶)한 필(筆)이 된다. 좌하(坐下)에 해간손병정룡(亥艮巽丙丁龍)을 승(乘)하여 그것을 받으면 또한 과제(科第)가 출(出)하고 도필(刀筆)의 재주가 있다. 그것을 단(斷)한 것을 보면 민(敏)하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곤봉(坤峰)하나면 전에 말한 곤모봉(坤母峰)이 고기(高起)하면 다행히 방미(榜尾)에 제명(題名)한다는 것은 대개 그것을 취(取)한다. 그것은 또 이르기를 곤신(坤申)에 있으면 사송(詞訟)의 흉(凶)함이 된다고 했다. 왜 그런가. 나는 용상(龍上)에서 그것을 구별한다. 용(龍)이 길(吉)하면 곤봉(坤峰)이 고기(高起)하면 취(取)할 수 있고 용(龍)이 흉(凶)하면 곤봉(坤峰)이 커도 불상(不祥)하게 된다. 그 예(例)

는 가령 금수(金水) 이국(二局)이면 곤신(坤申)은 장생(長生) 임관(臨官)의 위(位)가 되니 위로 고봉(高峰)이 기(起)하면 어찌 흉(凶)함이 있겠는가. 만약 화목(火木) 이국(二局)이면 병(病) 절(絶)의 흉위(凶位)가 되니 이것은 유씨(劉氏)가 취(取)하기를 포기하는 의(意)로 오히려 장(藏)하면 미발(未發)한다. 내가 분수에 넘치게 그것을 위하여 보(補)하고 석(釋)한다.

[정기(旌旗)는 경진(庚震)에 나타나는데 자오(子午)에 있으면 겁적(劫賊)의 자(資)가 된다.]

정기(旌旗) 도극(刀戟)은 본래 흉기(凶器)가 된다. 가령 경진(庚震)의 방(方)에 나타나고 좌하(坐下)에 삼길육수(三吉六秀)의 용기(龍氣)를 얻어 그것을 받으면 문무전재(文武全才)가 출(出)하여 곤외(閫外)에서 병권(兵權)을 장악한다. 만약 자오(子午) 이방(二方)에 보이면 자오(子午)는 겁살(劫殺)의 향(鄉)이 되니 군적(軍賊)이 출(出)하고 다시 기검(旗劍)이 있어서 응(應)하면 흉기(凶器)를 잡고 물(物)을 살(殺)하니 말로 다할 수 없다. 크면 배부(背父) 배군(背君)하고 작으면 향촌(鄉村)을 겁략(劫掠)한다.

[검극(劍戟) 아도(牙刀)는 육수(六秀)가 그로 인하여 귀(貴)를 취(取)하고 사금(四金) 팔요(八曜)의 방(方)에는 도리어 살신(殺身)의 해(害)를 만든다.]

도검(刀劍) 예극(銳戟)은 병기(兵器)다. 육수룡(六秀龍)이 그것을 보면 반드시 무위(武威) 병형(兵刑)의 직(職)을 주관한다. 만약 진술축미(辰戌丑未) 사금(四金)의 위(位)와 팔요방

(八曜方)에 있으면 도리어 살신(殺身) 망가(亡家)를 주관한다. 팔요(八曜)는 감룡(坎龍) 곤토(坤兔) 진후(震猴) 손계(巽雞) 건마(乾馬) 태사(兌蛇) 간호(艮虎) 이저(離猪)의 종류로 괘기(卦氣) 극제(剋制)의 살(煞)이다.

[구(龜) 학(鶴) 금(琴) 검(劍)은 삼길(三吉)이 얻으면 문아(文雅)하고 축미곤신지(丑未坤申地)는 대부분 선성(僊聖)의 풍(風)이 된다.]

구(龜) 학(鶴) 금(琴) 서(書)는 완희(玩戲) 청기(淸氣)이고 구학(龜鶴)은 또 영년(永年) 영서(靈瑞)의 물(物)이다. 삼길룡(三吉龍)이 그것을 보면 문신(文臣) 청아(淸雅)의 직(職)이 출(出)하여 한림(翰林) 치예(馳譽)가 된다. 만약 축미곤신(丑未坤申) 사방(四方)에 있으면 축미(丑未)는 신선(神仙)이 출(出)하고 곤신(坤申)은 또 고기(孤氣)를 주관한다. 길기(吉氣)가 응(應)하면 선성(僊聖)을 산(産)함이 틀림없다.

[헌군(掀裙) 무수(舞袖)는 목욕(沐浴)의 향(鄉)에서 감당하지 못한다.]

헌군사(掀裙砂)는 일고(一股)는 장직(長直)하고 일고(一股)는 반장(反長)하여 동서(東西)로 서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무수사(舞袖砂)는 내장(來長) 곡절(曲折)하여 동서(東西)로 요요(遶遶)하니 마치 바람에 표무(飄舞)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법(砂法)이 만약 자오묘유(子午卯酉) 방위(方位)에 보이면 반드시 부인(婦人)이 음란(淫亂)하고 수치심이 없다. 만약 타방(他方)에 있으면 그 화(禍)가 가볍기 어렵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목욕(沐浴)의 향(鄉)은 목국내(木局內)에는 자방(子方)이고 화국내(火局內)에는 묘방(卯方)이며 금국내(金局內)에는 오방(午方)이고 수토국내(水土局內)에는 유방(酉方)이다. 각기 용향(龍向) 본음(本音)을 따라서 꺼린다. 자오묘유(子午卯酉) 사방(四方)이 모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언월(偃月) 와시(臥屍)는 황천지(黃泉地)를 가장 꺼린다.]

언월사(偃月砂)의 형상은 아미(蛾眉)같고 사측(斜戾) 저장(低長)하다. 와시사(臥屍砂)는 저소(低小)하고 장직(長直)하며 두고(頭高) 두저(頭低)한 것이다. 이 이사(二砂)는 어느 방(方)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면 모두 불미(不美)하다. 만약 진술축미(辰戌丑未)에 있고 팔살(八煞)이 만나면 틀림없이 해로우니 객사(客死) 강시(扛屍)하지 않으면 형륙(刑戮)을 주관한다.

[을진(乙辰)에 수로(水路)가 교가(交加)하면 현하(懸河)의 액(厄)을 못 면한다.]

을진궁(乙辰宮)은 진수(軫水) 각목(角木) 이성(二星)이 점(占)하는 곳이고 또 진(辰)은 수룡(水龍)의 고(庫)가 된다. 만약 을진위(乙辰位)상에 수(水)의 유입(流入)이 있거나 혹은 도로(道路)가 있어 답파(踏破) 붕횡(崩橫) 쇄함(碎陷)하면 어느 용(龍)을 불구하고 아울러 투하(投河) 자액(自縊)의 재앙이 출(出)한다. 만약 감룡(坎龍)이 그것을 보면 곧 응(應)한다.

[팔요(八曜)가 도상(刀傷)을 거듭 만나면 헌법(憲法)의 주

(誅)를 피하기 어렵다.]

팔요주(八曜注)가 앞에 보이고 요살방(曜煞方)에 고산(高山)이 첨수(尖秀)하면 또 불가(不可)한데 하물며 첨사(尖砂)가 도(刀)와 같다면 살신(殺身)에 이르지 않겠는가. 좌하(坐下)에 용체(龍體)가 청수(清秀)하고 군사(群砂)가 모두 길(吉)하나 홀로 요지(曜地)에 도(刀)를 만나면 무관(武官)은 진망(陣亡)하고 문신(文臣)은 죄륙(罪戮)됨이 출(出)한다.

[목표(木瓢) 우발(盂鉢)이 곤신(坤申)에 낙(落)하면 승니(僧尼) 걸개(乞丐)다.]

목표사(木瓢砂)는 일두(一頭) 유병(有柄)에 장원(長員) 기측(欹側)한 것이다. 우발(盂鉢)은 저원(低員)하여 마치 복분반(覆盆盤)같고 소(小)한 것이다. 각기 타방(他方)에 나타남을 꺼리는데 곤신(坤申) 이방(二方)을 더욱 꺼린다. 곤신(坤申)의 기(氣)에 응(應)하면 간경(看經) 염불(念佛)하는 사람이 출(出)한다. 또 고신살(孤神煞)이 되니 반드시 그 험(驗)이 있다.

[귀우인감(鬼牛寅甲)에 호로(葫蘆)를 만나면 고질(痼疾) 풍잔(風殘)이다.]

호로(葫蘆)는 산두(山頭)가 고(高)하고 저중(低中)이 요(凹)하여 원(圓)한 것이다. 축미인갑을진방(丑未寅甲乙辰方)에 응(應)하면 풍질(風疾)이고 다시 호로사(葫蘆砂)가 그 방(方)에 보이면 약(藥)이 구(口)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고봉(高峰)이 남이(南離)에 독출(獨出)하면 회록(回祿)의 화(禍)에 놀랄까 두렵다.]

남이(南離)는 화위(火位)다. 화성(火性)은 엄렬(嚴烈)하여 위기(威氣)를 쉽게 발(發)한다. 만약 남방(南方)에 독봉(獨峰)이 영수(逞秀)하고 해건(亥乾)의 사(砂)가 불응(不應)하면 반드시 화소(火燒)의 변(變)이 있다. 만약 이산(離山)이 높고 인룡(寅龍)에 술수(戌水)가 내(來)하면 그 화(禍)가 곧 이른다. 을진사(乙辰砂)가 인오술국(寅午戌局)에 모두 모인 것 또한 그렇다. 아니면 목맹(目盲)의 화(禍)가 있다.

[성인(星印)이 일마(日馬)에 당(當)하면 반드시 고목(瞽目)의 재앙을 만난다.]

인사(印砂)는 저평(低平) 방원(方員)하여 인(印)같다. 성(星)은 산란(散亂) 세소(細小)하여 성(星)같다. 이사(二砂)가 정오(正午)에 보이면 반드시 고목(瞽目)의 재앙이 있다. 대개 이(離)는 일(日)이 당공(當空) 여명(麗明)의 지(地)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이 이(離)에 이르면 향명(向明)이다. 사람의 양목(兩目)이 사물(事物)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다. 만약 성인(星印)이 있어 차엄(遮掩)하면 양목(兩目)이 무광(無光)하여 만물이 회명(晦冥)한다. 그러므로 그 응(應)함이 있다.

[삼길(三吉)이 능운(凌雲)하게 되면 비록 십여리(十餘里)라도 그 먼 것을 어찌 싫어하겠는가. 육수(六秀)가 삽한(插漢)하면 수백보(數百步)라도 의심하지 않는다.]

삼길방(三吉方)에 빼어난 봉우리가 하늘 높이 솟아 있으면 십리(十里) 이십리(二十里)의 먼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첨원(尖員) 단정(端正)하여 혈전(穴前)에 보이면 곧 수기(秀氣)가 나타난다. 육수방(六秀方)에 봉우리가 있어 하늘 높이 수백보(數百步)이면 또한 그것이 꺾신(逼身)이 됨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압미(壓眉) 차엄(遮掩)에 이르지 않음을 요(要)하고 당국(堂局)이 관평(寬平)하고 혈전(穴前)에 조양(朝仰)하면 곧 수기(秀氣)가 생(生)한다.

[다만 소소(昭昭)한데서 애행(愛幸)함을 희(喜)하고 은은(隱隱)한데서 장간(藏奸)함을 대기(大忌)한다.]

삼길육수(三吉六秀)등의 방(方)에 수사(秀砂)가 있다면 모두 송정(送情) 배무(拜舞)하고 국전(局前)에 공향(拱向)하거나 혹은 국후(局后)에 있어 정신(挺身) 부복(俯伏)하면 그것을 일러 애행우소소(愛幸于昭昭)라고 한다. 만약 장신(藏身) 노조(露爪)하고 능두(楞頭) 은체(隱體)하면 그것을 일러 장간우은은(藏奸于隱隱)이라고 하여 모두 불길(不吉)하다.

서씨(徐氏)가 이르기를 일설(一說)에 산(山)이 이미 수용(秀聳)하고 또 용향(龍向) 본음(本音)의 생왕(生旺)의 위(位)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용향(龍向)에 유기(有氣)한 용신(用神)이 되니 밝은 모양을 총애한다. 사(砂)가 비록 첨수(尖秀)하나 그 자리가 아닌 곳에 거(居)하여 휴수사절방(休囚死絕方)에 나와 있으면 체(體)가 비록 길(吉)하여도 용(用)하면 흉(凶)하다. 이른바 장간우은은(藏奸于隱隱)이라고 한다. 자세히 알아야 한다.

[노충헌적(露忠獻赤)하면 빈주(賓主)가 마음을 알고 대면(對面) 송정(送情)하면 바야흐로 귀(貴)하게 될 수 있다.]

수려침출(秀麗尖出)하여 국전(局前)에 배무(拜舞)한 것은 이름하여 노충헌적(露忠獻赤)이라 한다. 그 심사(心事)가 피식차견(彼識此見)하니 은닉(隱匿)함이 없다.

[만약 혹 포두(抱頭) 측면(側面)이면 이미 충후(忠厚)의 풍(風)이 아니고 섬적(閃跡) 포종(拋踪)이면 반드시 험사(險邪)의 배(輩)이다.]

군자(君子)의 풍(風)은 입(立)하면 정(正)하고 좌(坐)하면 용(容)하다. 포두(抱頭) 측면(側面)의 용모(容貌)는 본 받을 수 있는 거동이 없는 것이니 모두 험사(險邪)한 소인(小人)의 태도다. 사(砂)에 비유하면 포두(抱頭) 사면(斜面) 기측(欹側)은 부정(不正)하다. 섬적포종(閃跡拋踪)은 반장반로(半藏半露)다. 가령 소인(小人)이 험사(險邪)하면 이미 본 받을 수 있는 위 의(威儀)가 없으니 반드시 중히 여길 수 있는 덕행(德行)이 없다.

[경미(輕微) 쇠쇄(瑣碎)하여 산(山)같으나 산이 아니고 혹 사방(四方)에 나열(羅列)되고 혹은 성(星)같이 좌우(左右)에 흩어져서 바라보면 앞에 있는데 보면 보이지 않고 돌아 보면 뒤에 있는데 향하면 불거(不去)한다.]

경미(輕微) 세소(細小)하여 산(山)같으나 산이 아니고 혹은 토퇴(土堆) 혹은 사퇴(砂堆)로 부장(不長) 불방(不方)하여 무

형(無形) 무상(無象)하고 기사(欹斜) 첨곡(尖曲)하다. 혹은 사방(四方)에 나열하고 혹은 성(星)이 흩어진 것 같이 좌우(左右)에 보인다. 바라보면 있는 것 같으나 자취를 감추고 옆에 있는데 당국(堂局)을 향(向)하지 않는다. 돌아 보면 뒤의 근신(近身) 측족(側足)에 있으나 비록 발(撥)하여도 불거(不去)한다. 이와 같은 사법(砂法)은 모두 불길(不吉)하게 된다. 위와 같이 험사(險邪)하여 취(取)하기에 부족(不足)하다.

[수형(隨形) 보영(步影)은 천유(穿窬) 아니면 귀수(鬼祟)로 재앙이 된다. 막배(摸背) 애견(捫肩)은 사음(私淫)이 아니면 간노(奸奴)가 주인을 속인다.]

상문(上文)과 같이 토퇴(土堆) 성산(星散)하고 근신(近身) 보영(步影)하여 보면 보이지 않고 발거(撥去)하나 제거(除去)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사법(砂法)은 천유(穿窬) 귀수(鬼祟)의 응(應)함이 된다. 자취를 숨겨 옆에 있어 막배(摸背) 애견(捫肩)하고 무형(無形) 무상(無像)하면 이런 종류의 사법(砂法)은 사음(私淫) 음모(陰謀)의 응(應)함이 된다. 정인(正人) 군자(君子)는 당당(堂堂)하게 나타나 피차(彼此) 마음을 안다. 만약 장두(藏頭) 섬적(閃跡)등의 무리는 심지(心地)가 암매(暗昧)하여 음사(陰邪)하고 해물(害物)한다. 그러므로 사두(砂頭)가 그와 같으면 반드시 천유(穿窬)의 도(盜)가 출(出)하거나 아니면 천유(穿窬)의 도적(盜賊)을 만나고 혹은 귀수(鬼祟)가 괴이하게 된다. 아울러 처(妻)가 부(夫)를 속이고 노(奴)가 주(主)를 속이며 부인(婦人)이 음란(淫亂)하게 되어서 승중(乘中)하는 유형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사(砂)가 원정(圓淨)하면 응(應)하여 충정(忠貞)은 잉(孕)하고 세(勢)가 혹 기사(欹斜)되면 반드시 음란(淫亂)이 생(生)한다. 지(地)와 인(人)이 부(符)하면 기(氣)가 통(通)하고 물(物)이 응(應)한다.]

위의 모든 말을 이르면 사(砂)가 가령 정정(貞淨) 고대(高大) 준결(峻潔)한 것은 반드시 출인(出人)이 방정(方正) 수아(秀雅)하고 기사(欹斜) 파쇄(破碎)한 것은 반드시 출인(出人)이 음녕(陰佞) 추악(醜惡)하다. 이는 대개 지기(地氣) 자연(自然)의 부(符)이고 일정(一定) 불역(不易)의 이(理)이다.

[지(地)를 보면 인(人)을 알 수 있고 내(來)를 살피려면 이왕(已往)에서 험(驗)한다.]

지(地)의 형상(形象)으 보아서 그 용기(龍氣)가 수(秀)한지 아닌지에 이르면 곧 그 집안의 자손을 알 수 있다. 가령 사(砂)가 둥글고 단정하면 자손은 반드시 정대(正大) 단후(端厚)하며 기사(欹斜) 측향(側向)하면 자손이 음녕(陰佞) 추악(醜惡)하니 그 자손을 볼 필요가 없이 나중에 안다. 장래(將來)의 일을 알고자 하면 그 조묘(祖墓)의 용사(龍砂)에서 그 이왕(已往)의 일을 험(驗)하면 장래(將來) 또한 본 것과 같다.

옥척경(玉尺經) 하집(下集) 종(終)